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9권

즉각 깨닫는 열쇠
제 9 권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SM출판사

사랑의 길을 걷다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의 발자취

우리는 작은 사랑을 찾아
높고 낮은 곳을 찾아다니며
세상 곳곳의
모든 존재와
작은 사랑을 나눕니다.

만나거나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던 이들에게 다정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칭하이 무상사는 사랑의 길을 걷자는 메시지대로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주의자이자 예술가, 영적 지도자인 그녀의 사랑과 도움은 모든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 전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어려운 이들, 노숙자, 에이즈와 암 연구 센터, 미국 참전 용사, 불우한 노인, 심신 장애인, 난민, 그리고 지진-홍수-화재 등 천재지변을 당한 이재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녀의 친절에 축복을 받은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의 동물 역시 그녀의 무한한 자비심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자선 활동 속에서 우리는 이 자상한 여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자비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국제협회는 그녀의 사랑을

본받아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랑이 우리 의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때 우리는 뭔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의 힘과 무한한 사랑, 창조성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초기 시절

칭하이 무상사는 어울락 중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병원의 환자와 가난한 이들을 돕고 다친 동물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그녀는 그곳에서 적십자사의 번역 일을 하며 계속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곧 아픔과 고통이 모든 문화 속에,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책을 찾는 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독일 의사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별이 두 사람 모두에게 대단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남편은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영적 깨달음을 찾아 2년이 걸린 구도의 길에 올랐습니다.

히말리아 순례

마침내 그녀는 인도의 히말리아 깊은 곳에서 깨달은 스승을 만나 내면의 빛과 소리를 관하는 명상 기법인 관음법문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녀는 얼마간 수행한 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말리아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신실한 요청

에 따라 칭하이 스승은 관음법문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내면을 성찰해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관음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큰 성취와 행복, 평화를 얻었습니다. 얼마 후 미국과 유럽 아시아·호주 아프리카·남미, 그리고 주요 기관에서 칭하이 스승에게 강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인도적인 도움을 베푸는 숭고한 귀감이 되고 있는 칭하이 스승은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관음법문 명상을 통해 자생적인 재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림과 창작 예술품(아름답고 정교한 등불과 음악, 시 등), 미적 감각이 뛰어난 보석·의상 디자인을 통해 당신이 접한 사람들과 문화의 내적·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1995년, 대중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의상 디자인은 런던·파리·밀라노 뉴욕을 순회하는 국제적인 패션쇼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이런 예술 작품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칭하이 무상사의 자선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재정이 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신의 자녀를 돕는 그녀의 고귀한 임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정과 스승님의 꿈

칭하이 무상사는 그 어떤 형태의 인정도 바라지 않지만 전세계 많은 정부와 개인 단체들이 그 사심없는 지원을 인정해 다음과 같은 수많은 상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평화상, 세계 영적 지도자상, 인권 신장상, 세계 시민 인도주의상, 인류를 위한 뛰어난 공익 봉사상, 2006 구시 평화상, 로스 앤젤레스 음악 주간 표창장, 2006년 제27회 텔리상 은상 등등. 미국에서

는 2월 22일과 10월 25일을 '칭하이 무상사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전임 시장인 프랭크 파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자의 빛이며 모두를 위한 자비의 천사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 데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분입니다. 역사상 많은 위인들에게 꿈이 있었듯이 그녀 또한 그렇습니다.

“난 모든 세상이 평화로워지길 꿈꿉니다.

나는 모든 살생이 멈추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아이가 평화와 조화 속을 거닐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국가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길 꿈꿉니다.

나는 이 행성이 파괴되지 않길 꿈꿉니다.

수억 수조 년이 걸쳐 만들어진 이 행성은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나는 이 행성이 평화와 아름다움, 사랑 속에 지속되기를 꿈꿉니다.”

머리말

칭하이 무상사는 강연하실 때
어려운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평이한 구어체만 사용하십니다.
책을 출판함에 있어서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스승의 가피력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범부의 두뇌로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니다.

CONTENTS

차례

	사랑의 길을 걷다.....	3
	머리말	7
1장	입문은 곧 성불이다.....	13
2장	유체이탈과 여래의 상황은 다르다.....	41
3장	어떻게 스승의 가피력을 느끼는가.....	73
4장	연각불	101
5장	은신술	133
6장	자신의 불성을 알자.....	159
7장	스승은 오직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다.....	189
8장	어떻게 복을 받고 업을 피하는가.....	223
9장	재앙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239
10장	수행 진보의 비결.....	265
	관음법문 입문과 5계.....	281
	간행물 안내.....	284
	주요 연락처.....	291

도움말

영적 스승이자 예술 디자인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든 방식을 사랑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의 뜻을 가진 '포모사'는 그 섬나라와 국민들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을 쓰면 그 나라와 국민의 영성이 고양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A decorative rectangular border with intricate floral and scrollwork patterns, framing the central text.

즉각 깨닫는 열쇠
제 9 권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1장

입문은 곧 성불이다

1장

입문은 곧 성불이다

1987. 1. 1. 포모사 타이베이 신디엔

입문하는 것이 곧 성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처입니다. 이곳에 아직 성불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지 못하니 여러분은 아직 부처가 아닙니다. 이는 곧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입문할 때 바로 성불할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어느 모르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험이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나중에 많은 인연들이 쌓이고 나면 우리가 곧 부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 역시 중요합니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동굴에서 수행하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험해 본다거나 경험해 볼 상황이 없었다면 이 '깨달음'을 영원히 믿지 못할 것이며, 깨달

은 그 순간조차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문하는 것이 곧 성불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수록 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될 테니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루뿐인 성불로 끝나 버리고 다음날은 성불하지도 못한 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령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의사가 된 후 환자를 치료한 경험도 전무하고 의료기구나 의약 용어를 사용한 적도 없으며 임상 경험을 한 적도 없다면 몇십 년이 지난 후에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 간에 약간의 기억이 남는 것 외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기 연주를 잘하던 사람도 십여 년 동안 연주를 하지 않는다면 훗날 제대로 연주할 수 없어 듣기에도 거슬릴뿐더러 음률도 매끄럽지 못할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하더라도 30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어에 서툴게 되겠지요. 나는 어울락에서 태어나 어울락어를 십여 년이나 사용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어울락어를 잘 구사하지도 못하고 문장력이 떨어져 시를 잘 짓지도 못합니다. 지금 시를 쓴다면 우선 영어로 쓰고 나서 다시 어울락어로 번역해야 하지요. 이제는 어울락어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내 경우엔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가끔은 어울락어를 사용하니까요. 그러나 외딴 섬에 갇혀 수십 년간 어울락어를 쓰지 않고 산다면 전혀 못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영어나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조금씩 말을 할 줄 알다
가도 졸업하고 나서 말할 기회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지요. 이해하겠습니까?

돈오頓悟 법문이 곧바로 견성성불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
다. 불광佛光을 보았다는 것은 곧 부처와 동일체로서 성불했다는 뜻
입니다. 불음佛音 역시 많은 적든 듣기만 했다면 부처와 동일체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내 손이나 발·머리를 잡았다면 그것
역시 내 몸을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나의 일부이니
까요.

마찬가지로 낮은 등급의 불음을 들었다 해도 역시 불음이며, 낮
은 등급의 불광을 보았다 해도 역시 불광입니다. 부처의 발을 잡았
다 해도 성불했다고, 부처를 보았다고, 부처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아직 완전한 부처의 얼굴을 보지 못해 자신감이 부족한 것뿐이
지요. 이는 장님 4명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귀를 만진 사
람은 코끼리가 쟁반 같다고 말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호스
같다고 말하며, 다리를 잡은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말하지요.
그들 모두 코끼리를 잡긴 했지만 생각들이 다 다른 것뿐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문할 때 모두 성불하긴 하지
만 아직은 자기 내면의 부처의 품성, 부처의 능력, 전능한 힘을 완전
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성불할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입문이 곧 성
불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자신감과 경험이 부족할 뿐입니다. 수행이
좋아지고 선정의 힘이 강해져서 중생을 제도하게 되면 그때 자신이

어떤 부처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는 말재주
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적인 지혜와 체험을 두루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외적인 지식과 경험도 부족해선 안 되지요. 그래야만 중
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성불했다는 것만으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각불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승 없이 스
스로 깨달았거나 아니면 한 스승에게 관음법문을 배워 입문할 때 작
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스승이 떠난 뒤 혼자 수행하다 어느 날 증오
證悟하게 된 것인데, 스승의 지도가 없다 보니 중생을 가르칠 수 있
는 체계도, 말로써 법을 전해 본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말로 법을
전하는’ 이러한 지식은 중생을 끌어들이 설법을 듣게 할 수 있으며
중생의 주의력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깨
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거침없는 말재주가 없다면 깨닫지 못한 사
람들에게 지혜를 들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
운 일이지요.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야말로 정
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성불하자 시방 삼세불이 오
탁악세五濁惡世에서 중생을 제도할 그를 찬탄해 마지않았던 것입니
다. 불성과 우리 내면의 수행 등급을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기란 쉽
지 않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지혜가 높고 선근이 깊으며 복이 많은 중생
을 제외한 다른 중생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안으로는 수행하여 큰 힘을 기르는 동

시에 밖으로는 참 스승·선지식의 지도를 구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수행하는 사람들도 염불이나 독경·만트라 등으로 내면의 소리를 체험할 순 있지만, 그들의 체험은 하루걸러 한 번씩 있다거나 하루이틀 있다가 영원히 사라지기도 하지요. 설령 매일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이 좋은 소리이고 나쁜 소리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경지이고 나쁜 경지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가고 말지요. 이것은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다가 길을 잃고 외도(外道)로 변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입문할 때가 바로 이른바 ‘돈오’입니다. 돈오란 곧바로 깨닫는다는 것이며, 꽃이 피니 부처를 본다, 즉 곧바로 전성성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깨닫기는 했어도 지혜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원래부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큰스승들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이를 모르니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소도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보물과 재산이 있는데도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여전히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불을 하고 못 하고는 우리의 마음과 자신감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성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성불할 수 있다면 ‘좌불’이 되겠지요. 오래 누워 있다면 ‘와불’이 될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한다고 깨달은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

다. 입문이 곧 성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이 수행하고 마음을 더 고요히 유지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입문하면 모두 성불하는 것입니다. 수기(受記)(역주: 부처로부터 내생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음.)를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백천만겁 이후에 모모 부처가 되어 모모 나라에서 모모 중생들을 제도하게 된다.”라는 이런 수기는 정말이지 웃기는 얘기입니다.

석가모니불은 『법화경』에서 일찍이 “모모는 수천 수백 겁이나 무량무변 아승지겁이 지난 후에야 성불할 수 있다. 그때 그 부처의 이름은 모모이며 모모 국토에서 살게 된다.”라는 수기를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그의 제자였다면 나는 “아니오,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너무나 요원한 일이니까요. 아직도 무량무변 아승지겁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누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승지겁 무량무변의 생을 기다린 후에야 성불할 수 있다면 기린이 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입문한 사람은 이미 부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아니라면 누가 부처입니까? 내가 성불할 수 없다면 성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부처란 깨달은 사람·선지식·큰스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등급이며 큰스승의 등급, 해탈의 등급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명상하며 얼마간의 이해력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명상할 때마다 서방세계에 다녀오지만 기억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생입니다.

부처를 보러 가는 그때, 우리는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만이 부처의 나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똑같은 품성을 지녀야 부처와 함께 살 수 있지요. 그러므로 부처가 있는 곳에 갈 수 있고 불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곧 부처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란 바로 이렇습니다.

부처는 단지 천수천안(千手千眼)이거나 백수백안(百手百眼) 또는 다안(多眼)이 아닙니다. 그는 무량무변의 눈과 무량무변의 손을 가지고 있지요. 천수천안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관음보살은 무량무변의 손과 무량무변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천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그들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수천안도 너무 많긴 하지만요.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삼두육비(三頭六臂(머리가 셋, 팔이 여섯이라는 뜻.))’라고 표현하는데, 만약 천수천안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흠족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관음보살의 힘은 정말 불가사의하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천수천안이 사람들에게 아주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천수천안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관음보살이 천수천안인 것은 아닙니다. 중생이 너무나 많아서 천수천안만으로는 부

족하지요.

이른바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내가 여러분에게 7시에 성불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7시가 되면 여러분이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불했습니다. 본래 부처였지요. 적어도 입문한 후에는 부처의 힘과 소통하고 부처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언제 성불할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 부처의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선은 한쪽에 두세요.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이르데면 누구든 일을 하면 곧 돈을 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월말이 되면 계산해 주겠지요. 그러므로 일단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돈이 생기는 겁니다. 일을 시작한 그날부터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이지 월말이 되어야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은 처음부터 사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재직 한 후에야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그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자신이 사장이라고 곧바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직원들과도 생소하고, 업무에도 미숙하며, 공장도 너무 크고 넓어서 구석구석 세세한 것들까지 다 알 순 없을 테니까요.

때로는 사장 역시 부하 직원이나 공장 직원들에게 어떤 곳에 무슨 기계가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 아직 학생 같아서 사장으로서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사장이 아니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회사에 들어오면 이미 사장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참 사장이라 많은 것을 배워야 하며 공장의 시스템과 상황에도 적응을 해야 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장이라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점점 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입문하면 곧 부처입니다. 다만 아직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뿐이지요. 이곳에서는 내가 그 힘을 사용하니 여러분은 잠시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 힘을 거두어 한쪽에 놓아두세요. 훗날 사용할 때 ‘아! 내가 바로 부처였구나!’ 하고 자연스레 알게 될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때는 전세계가 여러분을 부정한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부처임을 확신할 겁니다. 결코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성불한 사람은 먹고 자는 것처럼 그것을 자연스레 느끼지요. 대단해질 것도, 우쭐해질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교만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성불이란 의대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학사 과정을 모두 마치면 마땅히 졸업하게 되는 것인데 자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악기를 배워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일 악기를 타며 즐길 뿐 결코 교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교습을 다 받고 나면 다들 연주를 잘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는 않겠지요. 그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진리조차도 세상에선 몇 안 되는 사람만이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처라고 자칭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마장에 걸렸어. 너무 교만해. 미친 거야.”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불한 본인은 정작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불은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집에 있기만 했을 뿐인데도 수행의 힘으로 시아버지의 병을 호전시킬 수 있었던 동수에 대해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동수 역시 아픈 아들을 위해 병원에서 명상했더니 그 아들의 병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 강연을 듣거나 내 책을 보고서 깨닫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것들은 모두 사소하고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한 것은 아라한이나 보살의 등급에 이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치유력이 있는 보살이나 아라한과 같이 살기만 해도 저절로 병이 낫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 봤을 겁니다. 우리 동수의 가족들은 입문을 하지도 않았고 관음법문을 수행하지도 않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까닭에 그들 역시 천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가운데 일원이 이미 보살이나 아라한의 등급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복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 수행자와 가까이 있기만 해도 천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내가 언급했던 그 동수 자신은 결코 어떠한 자만심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녀에게 있어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런 일이라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보살이라거나 대단한 아라한이라고

느끼지 않았지요. 이해하겠습니까?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라한이나 보살이 스스로 아라한이고 보살임을 안다면 진정한 아라한이나 보살이 아니다.”

경전에 의하면 불보살은 스스로 불보살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살이라고 말하지도 않으며, 교만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는 그러한 교만스런 태도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만 또한 모르기도 하지요. 마치 자신이 하나의 도구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범부의 ‘에고’가 모두 사라지고 난 육신에 이제는 불보살의 힘만 존재하여 그 힘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뿐 자기 스스로는 무능해서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앞서 나 자신이 부처라고 말했지만 나 역시 부처가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처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 또한 옳지 않으니까요. 내가 부처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거니와 부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또한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저 사람은 보살이다.” “저 사람은 부처이다.” 또는 “저 사람은 성불했다.”라고 말해야만 하는 상황 이니까요. 그렇지만 언어로는 설명할 수도, 간단히 해석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나 역시 어쩔 수가 없군요.

석가모니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여래이며 여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왕에게 “저는 이제 범부의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부처이오니 관례에 따라 그리 불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부왕이 잘 모르고 실수할까 봐, 여전히 자신의 손을 쓰다듬

고 껴안으며 “내 아들이야.” 하고 부를까 봐 염려했던 것이지요. 부왕이 자신을 그리 대하면 부처로서의 위엄이 서질 않으니 자신이 이미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대중: 그렇습니다.) 그가 부왕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에게 절을 하라거나 무슨 성대한 의식을 치러 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평범한 진리를, 진실을 얘기한 것뿐이지요.

마치 의사가 “나는 이미 졸업했다.”라고 말하거나, 여자 출가자가 머리에 세 번의 연비(향으로 살을 태우는 수계 의식)를 하고서 “나는 이제 비구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뿐, 대단할 게 전혀 없지요. 비구니가 된 후에도 비구니가 되기 전과 다름없는 동일 인물이며,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한다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군요. 결코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부처라고 말하진 않더라도 그 태도가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삼배, 사배를 시키고 게다가 돈 봉투까지 받기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교만한 것입니다. 성불한 사람이 자신이 성불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난 배가 불러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이지요. 배가 불러서 부르다고 하는데 무슨 교만함이 있겠습니까?

성불했으니 “성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불성을 알고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알며 어떤 중생이든 다 부처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교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중생의 사이엔 나는 내가 부처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중생은 자신들이 부처라는 것을 모르는 약간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불한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교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과 중생이 똑같은데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불이란 평범한 일입니다. 입문이 곧 성불이며, 부처의 대해(大海)와 이어져 우리 역시 대해의 물로 변하는 것이지요. 물 한 방울이 바닷속에 떨어져 바다와 통하게 되면 곧 바다로 변합니다. 설마 그때도 “저는 언제쯤 바다로 갈 수 있을까요?”라고 묻지는 않겠지요? 그땐 이미 바닷속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 방울은 점차 사라져 보이지 않다가 전부 바다로 변해 버리지요.

이와 같이 입문은 곧 부처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처로 변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우리가 지닌 힘 역시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을 뿐 대단히 불가사의합니다. 때가 되어 한 번 만이라도 사용해 본다면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억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이 힘을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지금은 사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사용해야 할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테고, 그때서야 여러분은 자신의 힘이 어떤지를 알게 되겠지요. 지금은 알고 싶다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배우는 중이니 힘을 쓸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 힘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명상할 때 우리는 수많은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우리의

진동이 퍼져 나가면서 온 나라가 밝아지고 온 우주의 잠재의식이 고양되지요.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고 난 후에는 ‘에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오랫동안 수행을 한 후에야 참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에고를 훈련시키고 개성을 단련시켜 에고를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 힘은 에고가 사라진 후 사용해야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럴테면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돈을 남기지만 자녀가 18세 이상 이 된 뒤에야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은행에 예금해 둡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녀가 어리든 18세가 되든 돈은 여전히 자녀의 돈이지만 어릴 땐 행여 멋대로 사용할까 봐 18세가 되기 전까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는 무분별해서 밖에 나가 온갖 잡다한 것들을 사느라 돈을 낭비할 수도 있고 도박을 하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돈은 이미 자녀의 것이고 18세가 되면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어찌면 부모는 자녀가 커서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훈련이 잘 되어 있어 낭비하지도, 사기당하지도 않고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나와 똑같으며 다른 점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여러분은 이 힘을 사용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자신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인연이 무르익으면 언젠가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돈과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것이며, 그때서야 자신이 성불했음을 알고 마음을 놓을 겁니다.

이른바 팔십팔불이라는 것은 팔십팔 분의 부처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를 찬탄하는 명칭일 뿐이지요. 이를테면 내가 투명하게 맑은 신체와 엄청나게 큰 빛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품성들을 찬탄하는 일련의 이름들이 생길 겁니다. 즉 제자들이 “저는 유리불에 귀의하며 무량광불에 귀의합니다.”라고 말하겠지요. 이것은 제자가 자신의 스승인 한 분의 부처에게 올리는 찬탄일 뿐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수많은 품성들, 즉 자비와 빛과 투명한 신체를 포함한 다른 많은 품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십팔불은 팔십팔 분의 부처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스승 한 분이 수많은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승님, 당신은 대자비·대광량·대역량·대자재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南無’란 ‘당신을 찬양합니다. 대자대비한 스승님을 찬양하고 무량무변의 공덕을 가진 스승님을 찬양하며 무량광 스승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스승이란 곧 부처를 가리키므로, 이 말은 결국 ‘나무대광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대광대량한 스승님을 찬양합니다.’와 같은 뜻이지요. 따라서 부처의 이름은 수없이 많지만 사실은 한 분의 부처를 찬양한 것일 뿐입니다.

비로자나는 최고의 부처를 대표합니다. 부처가 수많은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서 수많은 부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관세음이라 부

르고, 어떤 사람은 관자재라 부르며, 어떤 사람은 시무외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나무시무외보살·나무관자재보살·나무보타산유리보살·나무관세음보살·나무천수천안보살’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두 관음보살 한 분을 가리키는 말들이지요. 마찬가지로 팔십팔불 역시 한 분의 부처를 찬탄하는 각기 다른 명칭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찬탄해서 부르는 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연인을 부를 때 ‘나의 연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이 허니(My honey)’, ‘마이 캔디(My candy)’라고 부르거나 ‘스위트 하트(Sweet hear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칭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나 모두 아름다운 여자, 즉 자신의 연인을 가리키는 말들이지요. 고대 중국의 황제는 자신의 부인을 미인·애비愛妃·애경愛卿·황후 등으로 불렀는데 이 모든 호칭은 부인 한 사람만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 제자가 자신의 스승을 찬양하면서 수많은 이름을 사용했던 까닭에 대광불·보명불·무구불 등 팔십팔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십팔불은 한 분인 것도, 팔십팔 분인 것도 아닙니다. 일만일천불 역시 마찬가지로 한 분의 최고 부처를 찬양한 것입니다. 그의 품성이 무량하며, 능력이 무한하고 불가사의했던 까닭에 개개의 품성과 능력을 찬탄하는 이름을 하나씩 붙여감에 따라 명칭이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알라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 부르며, 어떤 사람은 하느님·옥황상제 등으로 부르기

도 하는데 이것은 모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후세들이 “내가 부르는 이름이 당신이 부르는 이름보다 더 듣기 좋소.”라고 우기며 잦은 언쟁을 벌이지요. 중생은 너무나 귀엽습니다. 이름 한두 개 때문에 싸움까지 하다니요. 하지만 난 논쟁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나는 방금 부처는 팔십팔 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분의 부처에게는 무수한 품성들이 존재합니다. 보명불 普明佛 · 보정불 普淨佛 · 다마라발전단향불 多摩羅跋數檀香佛 · 전단광불 數檀光佛 · 마니당불 摩尼幢佛 · 환희장마니보적불 歡喜藏摩尼寶積佛 · 일체세간락견상대정진불 一切世間樂見上大精進佛 등 그 무엇으로 칭하든 실은 모두 같은 것이지요. 마치 관음보살에게 삼십이응신이 있듯이 말입니다. 아미타불을 무량광이라고도 하고 무량수 혹은 아미타불 · 아미타바라고도 하는데 모두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후세들이 이를 놓고 서로 다퉁니다. 그나마 오늘날은 사전을 찾아보고 아미타바가 곧 아미타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다행이지요.

내가 처음 포모사에 왔을 때 사람들이 불칠佛七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들과 함께 한두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염불을 할 때마다 ‘나무아미토푸(포모사에)’라고 하기에 나는 속으로 ‘이상하다! 왜 염불은 하지 않고 계속 두부만 외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중 웃음) 정말로 나무아미토푸라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때만 해도 나는 표준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데다 포모사어는 더욱더 몰랐기에 어울락어 ‘토푸(포모사어와 발음이 비슷함)’와 비슷한 발음을 듣고는 속으로 ‘이상하다! 어째서 어울락어인 토푸(두부)를 외울까?’ 하고 생각했

던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들이 나무아미토푸를 외우는 것을 들으면서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그렇게도 배가 고프는가?’라고만 생각했지요. (대중 웃음)

그러므로 의견 충돌은 모두 이름 때문에 생깁니다. 예컨대 중국어로는 물을 ‘수이水’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바쎌Wasser’라고 하며 프랑스어로는 ‘로Leau’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두 다 ‘물’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더욱이 옛날에는 사전이 없었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보다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나아진 편이지요. 그러므로 신과 부처는 같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입에서 신이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당신이 어떻게 신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라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나는 “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듣고 싶지 않다면 어쩔 수 없지요.”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까짓 이름 때문에 고집을 부리며 싸우거나 하고요.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법사가 있기에 그곳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는데, 그리고 나선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물음에 사실대로 말했더니 곧바로 “당신이 어떻게 신을 거론합니까?”라고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마치 내가 큰 죄를 지은 듯 굴어서 나는 “그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 생각이고, 나에겐 신이 존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하며 고집스럽게 꽂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한쪽 벽만이라도 깰 수 있으면 좋으련만

도무지 깨질 못하지요. 이토록 간단한 일인데도 이해하지 못한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간단명료한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계속 맴돌기만 할 뿐 벽을 깨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이래서야 어찌 법을 펼 수 있겠습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도움은 되지 않고 외롭기만 하니, 그야말로 머리를 흔들며 탄식할 노릇이지요.

질문(이하 Q): 이미 입문해서 성불했다면 왜 간혹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칭하이 스승(이하 A): 그것은 결점이자 개성이며 습관이지 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인과입니다. 성불했다고 해서 중생과의 인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를 죽이려고 돌덩어리를 떨어뜨린 사람도 있었던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석가모니불도 두통을 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죽어 가던 물고기의 머리를 발로 찼기 때문에 두통이라는 업보를 짓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석가모니불에게도 인과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가 어느 지방에서 석 달간이나 탁발을 했는데도 음식을 얻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외도 세력들이 그를 비방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석가모니불은 “이것은 인과로서 예전에 심은 인을 지금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전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그도 아난을 꾸짖고 라훌라를 꾸짖는 등 제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에게 나쁜 마음이나 난폭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라훌라와 아난이 너무나 어리석어 그랬던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그것은 인과와 관계된 것이며 중생의 업장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에게는 악인도,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 “나쁘다.”라고 중생의 등급에 맞춰 말하는 것뿐이지요. 부처에게는 죄도 없고 선악도 없습니다. 무악무선무죄無惡無善無罪하여 어린아이와 같지요. 어린아이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들은 매우 천진합니다. ‘늙은 먼 아이가 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불한 후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육조 혜능 역시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처는 영원히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죄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그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깨달았더라도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 오해할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건 매우 합법적으로 합니다.

Q: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도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부처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인과 같은 나쁜 일을 저지른다면 결과적으로는 살해당한 사람과 살인한 사람 모두 서로 원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A: 그렇습니다. 그건 그들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이 일을 자기가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하

고 피해자 역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쌍방의 생각들이 합쳐졌을 때 원한의 기운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서로가 다시 와서 보복할 기회만을 노리다 보니 이 인과의 바퀴 속에서 돌고 도는 것이지요.

불보살은 무엇을 하든 죄가 없고 인과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인과를 꿰뚫어 보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는 그 일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님을 명백히 알기 때문에 인과의 굴레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두뇌에도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지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일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며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음류로써 그러한 관념들을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합니다.

이를테면 오늘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관음을 해서 그런 죄책감을 씻어 버려야 합니다. 이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지요. 일정 기간 씻고 나면 더 이상 씻을 만한 것이 없을 테고, 씻는 데 습관이 들고 나서부터는 관음만 남게 될 겁니다. 죄책감이 들어서기도 전에 씻겨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지요. 내면엔 관음의 음류만이 존재할 뿐, 그 어떤 죄책감도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미처 들어오기도 전에 전부 씻겨 버리니까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수행이 아직 충분치 않은 까닭에 과거에 남겨 놓은 수많은 죄책감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음류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빨리 씻어 낼 겨를이 없지요. 그러나 충분히 씻어 내어 음류가 죄책감보다 많아지게 됐을 때는 그 어떤 죄책감이든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소화되어 버립니다. 마치 배가 무척이나 고평데 음식을 조금만 먹어서 먹지 않은 듯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또한 광대한 바다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도 버리지 않은 것 같고 더러운 물을 갖다 붓는데도 더러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깨달았는데도 자신을 바보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나에게 “저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요? 저는 왜 체험이 없지요?”라고 묻습니다. 체험이 없더라도 100% 완전하게 나를 믿는다면 체험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낫기도 합니다.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체험이 없는데도 나를 믿는다는 것은 등급이 아주 높고 잠재의식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반면 체험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수라 세계나 제2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여 내가 무슨 나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도망가 버리고 말지요. 나에게 꾸중을 듣고서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꾸중을 듣고서 도망간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라도 되겠지만 꾸중을 듣지도 않았는데 도망가는 것은 등급이 높지 않고 지혜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사람들의 경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지가 꼭

무슨 높은 등급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지요. 아수라 세계는 온통 체험으로 가득합니다. 아수라 세계에는 150여 개의 경지가 있는데, 이들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경지마다 또 수많은 작은 경지들이 존재합니다. 놀러 다니고자 한다면 백천만겁으로도 아수라 세계를 다 돌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높은 경지야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그러므로 경지는 아무것도 아니며,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나를 깊이 믿는다면 그 사람은 나와 인연이 깊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수행을 해서 지혜가 높아야만 내가 가르치는 이치를 알아듣고 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밀라레빠처럼 말입니다. 밀라레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도 처음에는 스승이 법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승이 매일같이 때리고 욱하며 내쫓기도 하면서 온갖 참기 어려운 법문으로 대했지만, 그래도 그는 한결같이 스승을 믿으며 7년 동안 힘든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만일 범부였다거나 지혜가 높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곧바로 떠나 버리고 말았겠지요. 금방은 아니더라도 3, 4년 후에는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7년 동안 매일 집을 지었다 헐었다 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욱먹고 얻어맞고 쫓겨나면서까지도 집을 지었다가는 헐고 또다시 짓기를 되풀이했지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스승은 잘못했다며 야단만 쳤지 칭찬하는 날이라곤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야단 맞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칭찬을 기대할 수나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인내했습니다. 체험이라곤

눈곱만치도 없었으면서 말이지요. 스승이 법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 그에게 무슨 체험이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하는 체험이라곤 기껏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피가 나도록 일만 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스승을 뵈기도 어려우며, 무엇을 여쭙든 답도 듣지 못하고, 법문을 구해도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 못하는 상황들뿐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역시 큰스승이 되어 지금까지도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체험이 있어야만 좋은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체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대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명백히 알고서 진심으로 나를 믿습니다. 그러니 체험이 있든 없든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나를 따라 이 사바세계에 머물며 나의 일을 도와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체험이 많을 수 없습니다. 체험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 취해서 일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지금도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엇을 하라고 시키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판에 체험까지 많아서야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나 혼자만 덩그러니 여기 남아 일을 할 뿐 아무도 나와 함께 일을 하려고 들지 않겠지요. 모두들 체험에 취한 채 감로수만 들이키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도 내가 문을 열라고 하면 창문의 커튼을 걷어 젖히고 커튼을 걷으라고 하면 문을 열어젖히는 등 별다른 체험이 없는 데도 벌써 그렇게 엉망인데, 하루 종일 체험에 취해 있다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때로 체험이 너무 많아선 안 됩니다. 이곳에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이해하겠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어야 한다면 우리 자신은 오히려

산해진미를 맛볼 겨를이 없을 겁니다. 밥을 짓는 데만도 급급해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서둘러 사람들에게 건네주겠지요. 밖에서 ‘짹짹’거리며 맛있게 먹는 소리를 주방에서 듣고선 ‘어쩔 저렇게 맛나게 먹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대중 웃음) 만일 예쁜 옷을 차려 입고 식탁에 앉아 다른 사람의 시중을 받으며 음식 맛을 즐기고자 한다면 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밥을 지으면서 식탁에 앉아 사람들의 시중을 받으며 우아한 태도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란 불가능한 일 이니까요. 알겠습니까?

어제 여러분이 노스님이 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시중을 들어 주어 점심을 즐기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의 시중을 드느라 음식을 함께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맛을 느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본분은 일하는 것이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이 끝난 후에는 즐길 수 있습니다. 밥을 지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인 후에는 우리도 앉아서 먹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서방세계에 가거나 먹을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먹을 생각을 마십시오. 만일 지금 먹겠다면 밥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사람들이 먹을 밥을 지어야 하는데 모두들 즐기만 하겠다면 대체 누가 밥을 짓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보살심을 내는 사람은 적습니다. 중생은 모두 자신에게 기대지 않고 불보살에게만 기대려고 하는 데다 일을 하게 되면 즐길 수가 없다 보니 용감하게 나서지도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즐

길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빨리 삼매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삼매에 들었다가도 사람들이 ‘핑’ 하며 소란 피우는 소리에 퍼뜩 깨게 되지요. 때로는 그렇게 깨어나는 게 위험하기도 해서 선뜻 깊은 삼매에 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삼매에서 빠져나오면 위험하기도 한 데다 몸에도 좋지 않고 아플 수도 있거든요.

나는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습니다. 원래 선칠禪七을 할 때는 좀 쉬어야 하는데 막상 쉴 기회가 없지요. 여러분을 돌봐야 하는 데다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들더러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선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하안거 때도 매주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번거롭게 하는 바람에 안거를 하면 할수록 피곤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늘 내가 일하는 것을 볼 겁니다. 쉴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지요. 선칠 때에도 일을 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에도 일해야 하며, 여러분이 식사할 때에도 설령 내가 먹고 싶지 않더라도 나가서 축복해야 합니다. 스승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장

유체이탈과
여래의 상황은 다르다

2장

유체이탈과 여래의 상황은 다르다

1987. 12. 4. 포모사 타이난 치구 아쉬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유체이탈이라는 것은 아스트랄체가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관음법문을 수행하여 어떤 등급에 이르게 되면 무소부재하게 되고 어느 곳이나 다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적 편리하지요. 지구 곳곳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사람들을 구하거나 도울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높은 경지에서는 우리 모두 자유롭습니다. 천백억 화신은 높은 등급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컨대 어제 내가 여러분에게 유체이탈 법문을 가르쳐 주자 여러분의 영체도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영체는 어떤 몸일까요? 그것은 마지막에 입은 겂옷을 벗어 버리듯 가장 바깥층의 몸을 한 껍질 벗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벗지 않은 옷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즉각 깨닫는 열쇠』라는 책에서 나는 유체이탈은 여래의 과위가 아니며 어떤 고등의 영체 여행도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고등의 영체 여행이란 바로 여래의 등급으로 어느 곳이나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당에도 존재하고, 지옥에도 존재하며, 사바세계에도, 어떠한 부처의 세계에도 다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때 ‘보문普門’으로 변하고 관음보살로 변하게 되어 어느 곳에서 나들을 수 있고 어느 곳이든 다 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모에게 모모 법문을 배웠는데 영혼이 나가서 모모를 만나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평범한 일로서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포모사에 사는 모모가 자칭 부처라고 하면서 모모 지역에 가서 모모를 만나 볼 수 있다고 한 말도 들어 봤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내가 가르쳐 준 유체이탈의 상황입니다. 어제 여러분 모두 보았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적어도 몇 사람은 영혼이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한 출가 제자도 유체이탈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화장실까지 가거나, (대중 웃음) 고작 큰 시장이나 미국 등지에 가서 세상을 좀 둘러보고 오는 정도일 뿐입니다.

물론 그런 유체이탈 법문을 이용하여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 비행기 표가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다소간 위험이 따릅니다. 유체이탈 방식은 나가서 놀기에 간단하고 흥분하여 점차 그것에 길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닐 생각만 하게 되고, 신체의 다른 옷들을 벗고 더 높은 경지에 가서 더 높은 과위를 얻으려는 생각은 잊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이 사바세계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뿐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체이탈 법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수많은 법문들을 알고 있지만 모두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의 목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비행기 표를 사지 않고 값싼 ‘여행’만을 즐기고 싶다면 어제 내가 가르쳐 준 유체이탈 법문을 수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해탈을 하고 최고의 과위를 얻고자 한다면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합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때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뇌가 이를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는 전부 잊어버리고 말지요. 단지 어딘가에 갔었던 듯한, 아직 몸에 무언가가 남아 있는 듯한 막연한 느낌뿐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아주 높은 경지에 갔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나에게 “저는 수행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가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좋습니다. 이 소리가 바로 감로수 이니까요. 만일 이 소리가 없다면 감로수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우리는 말라 버릴 겁니다. 빛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소리가 없다면 영혼은 살아가지가 어렵습니다. 때로 우리는 높은 경지에 갔다 와서 이를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다른 동료수행자가 뒤쫓아 왔다가 또 다른 영혼을 보기도 합니다.

예컨대 타이베이에 사는 한 동료수행자의 경우, 아버지가 암에 걸려 여러 해 동안 위중한 상태였는데, 죽을 고비에 이르러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겪자 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혀 수행도 하지 않고 채식도 하지 않았지만

효성스러운 딸인 그녀가 울면서 내게 도와 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었지요. 그녀는 돌아가서 내 지시대로 했고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는 편안하고 고요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동료수행자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 또 다른 동료수행자 한 명이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따라 수행한 지 2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다 수행도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직장 여성이다 보니 평소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해서 수행할 시간이 많지 않지요. 하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명상할 때 눈을 감기만 하면 곧바로 삼매에 들어 영혼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요. 그 동료수행자는 수많은 경지를 보았기 때문에 나의 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동료수행자는 명상 중에, 아버지를 여읜 동료수행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혼을 데리고 좀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승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영혼을 돌보면서도 본인 자신은 정작 그걸 모르고 있었지요. 나는 그녀의 영혼에게 아버지의 영혼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제 1세계 혹은 제2세계에서 스승을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녀 자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명상 중에 그것을 지켜보았던 그 동료수행자만 알고 있었지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는 도를 얻고서도 도를 얻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금강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만일 부처나 아라한이 정말로 부처의 과위나 아라한의 과위를 얻었다

고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한 부처나 아라한이 아니다. 또한 보살이 정말로 보살의 과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두뇌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뇌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낮게는 이 물질세계, 높게는 제2세계 까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2세계는 인과의 세계이며, 지식의 세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뇌는 여전히 지식의 범주 안에 있지요. 이 지식의 세계를 넘으면 두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지요.

이러테면 비행기는 물론 자동차보다 좋습니다. 높이 날 수 있어서 이 세계의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월등하지요. 하지만 비행접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비행접시는 대기층이나 음속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힘 있는 비행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 잡을 수 없으며 뒤쫓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끝 없이 높이 올라갔던 비행접시가 되돌아오던 중 공중에서 비행기를 만나 인사를 건넬진 모르겠지만 그 비행기는 비행접시가 높은 곳에 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싶다거나 돌아올 때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싶다면 여전히 두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억해서 언어로 기록하거나 설명할 수 있지요. 높은 경지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제4세계나 제5세계에 갔을 때 그곳의 상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세계에서 말하는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등의 경지와 우리의 세계는 판이하게 다르니까요.

아스트랄계는 우리 세계와 거의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며 경지 역시 이곳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이곳 사람들이 모두 서양 옷을 입고 있듯이 제1세계(아스트랄계)의 중생들 역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때는 가장 바깥층에 있는 영체의 옷만 벗을 뿐 전부 다 벗지는 않으니까요. 만일 모든 층의 옷을 전부 벗어 버려 옷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면 그때 영혼은 완전히 빛으로 변합니다. 신구의도 없고 안이비설신의도 없는 그런 상황은 매우 높은 경지입니다.

높은 경지에 가더라도 그곳 사람들이 꼭 긴 고대 의상을 입고서 하얗게 수염을 기른 채 형형한 눈빛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청바지를 입고서 맞이할지도 모르지요. 지금은 천사들도 유행에 민감하니까요. 지금과는 다른 옷을 입었던 고대 중국인들은 이 세상을 떠나 천사로 변했을 때에도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청바지가 유행이니 죽어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입겠지요.

옛날에 사람됨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베푸는 데 인색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는커녕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돌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도 여느 사람들처럼 죽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모두 그렇게 죽겠지만요.

왕은 죽어서 위로 올라가던 중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엔 빈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이 훗하니 비어 있는 황금 궁전이었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긴 했으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궁전이었습니다. 그는 그나마 궁전 안에 놓여 있던 아름다운 탁자와 의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편안한 침대를 보고선 잠시 누워 잠을 청했지요. 잠에서 깨

어난 후에는 의자에도 좀 앉아 보고 화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구경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지친 데다 배까지 고파지자 무언가를 좀 먹고 싶었지만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지치고 목도 말라서 마실 게 필요했지만 그것 역시 찾을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은 배고파,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잘 알 겁니다. 틀림없이 화가 폭발하고 말겠지요.

왕은 천사를 찾아가 원망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떻게 내 집에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 없는데 아름다운 궁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의가 뭐니까? 사람을 우롱하는 겁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는 계속 말했지요. “한참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이 텅 비어 있다고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살아 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준 적이 있나요? 이를테면 굶주린 거지가 구걸할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그들이 거지가 된 것은 자신들의 업보이며 하늘이 내린 벌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한테 내가 왜 먹을 것을 준단 말입니까? 나는 그들의 업장이 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곧장 그들을 내쫓았을 뿐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물론 그랬겠지요. 당신이 것처럼 아무에게도 먹을 것을 준 적이 없으니 지금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왕이 놀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 참 큰일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 뿌린 대로 얻은 결과이니 지금 당신은 아무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 인과의 법칙은 아주 철저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닌 당신 자신이 만들어 낸 인과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왕은 너무나 피곤한 데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가 인간이 되면 보시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이 다시 올라왔을 때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세에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좋은 일을 하면 내세에 그 과보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정말이지 기아와 갈증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지요. 먹을 것이 없으니 천당이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이 아무리 좋더라도 먹을 것 하나 없으니 고통이 달리 고통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왕이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잠시만이라도 나를 돌려보내 줄 수는 없나요? 2주면 됩니다. 2주만 휴가를 주십시오.” 천사가 물었습니다. “왜 휴가를 내려고 합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서 내 재산을 모두 보시하고 싶습니다. 다 보시한 후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대로 이곳에서 굶어 죽을 텐데 그럼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재산이 아주 많았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도 쓸 수 없으니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사는 그의 사정이 무척 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가 사랑스럽고 선량한 사람이며 나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고

선 그에게 2주간의 휴가를 허락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온 왕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지요. 성城과 처자, 수많은 돈과 산호·마노 등의 진귀한 보석들을 모두 보시했으며 산해진미도 모두 베풀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일수록 더 많이 주었지요. 이를테면 포모사에서 채식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죠? 두부나 밀고기이겠지요. 그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에 가서 향유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작은 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스승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지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천사가 염라대왕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의 지옥은 온통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단연코 이곳이 가장 붐비는 곳일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세계를 그렇게 순조롭게 다스릴 수 있나요?” 그러자 염라대왕은 이렇게 대답했지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들 각자가 자신의 세계, 자신의 상황, 자신의 집, 자신의 죄 또는 복을 가지고 온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만들고 통제하며 돌볼 뿐이다. 그들이 그런 업력의 감옥 속에 있으므로 내가 전혀 손댈 필요가 없다.”

옛날의 천당과 지금의 천당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천당에 간 사람들은 고대 의상을 입고 올라갔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옷을 입고 가니까요. 그 왕처럼 어떻게 보시했는지에 따라 올라가서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천당은 유행에 아주 민감합니다. TV·라디오·비디오 등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요. 천당도 문명화 되어서 이제는 옛날처럼 걸어나다니지 않고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여러분은 고대 이야기나 고대 경전을 통해 사람들이 화엄華嚴세계에 가서 본 경지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 가게 된다면 상당히 놀랄 거예요. 보자마자 생소해져서는 속으로 ‘이상하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 온 거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천당은 이미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천당에 갔을 때 어찌면 아미타불이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며, (스승님 웃으심) 약사불이 사람들에게 주사를 놓고, (대중 웃음) 화타가 혈압계로 사람들의 혈압을 재거나 또는 청진기로 심장 박동을 듣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약사불과 화타가 지금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오늘날 의약이 매우 진보되어 많은 것들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약사불도 이에 맞추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질 테니 말입니다.

수행도 이와 유사합니다. 옛날 수행자들은 산에 올라가 구석진 곳이나 동굴을 찾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석가모니불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고행을 했을 뿐 아니라 결혼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오늘날 나의 제자들은 대부분 결혼했고 아이가 있으며 일이 있을

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수행의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가자인 여러분 역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출가하지 않고서는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스승을 보기도 쉽지 않았지요. 출가를 해야 매일 스승을 따라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집에서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편리하고 분위기가 청정하다면, 더불어 수행할 시간까지 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에게 출가하는 것은 비교적 고생스럽습니다. 내 제자들은 작은 방에서 모두 함께 뻥뻥이 붙어서 잠을 잡니다. 고생이 두렵다면 출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디를 가든 최선을 다해 이로움을 강구합니다. 강연은 중생에게, 나의 벗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좋은 장소만을 골라 강연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반드시 호텔이나 큰 사찰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형편 닿는 대로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안주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나를 따라 출가한 제자들 역시 그다지 편안한 생활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법사들에게 강연을 청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를 다 해 놓고 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머무를 만한 큰 사찰이 없다면 최소한 큰 집이나 큰 호텔 정도는 준비해 놓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한두 사람에게 방 하나씩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방 한 칸에 2백 명이 함께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출가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다지 편안하지 않으니까요.

포모사에 있는 대다수의 사찰들은 규모가 큰 데다가 방도 다 쓰

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오직 나만이 사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많은데 머무는 곳은 너무나 협소하지요. 내가 제자를 받기 시작한 지는 1년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출가 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다른 절과 비교한다면 상당한 것 같더군요. 일반 사찰에는 한두 사람만이 삽니다. 한 사람이 관리자에, 주지에, 제자에, 신도까지 겸합니다. (대중 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곳은 매우 비좁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출가하려고 나를 찾아옵니다. 난 아이나 남편·부인이 있는지 등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미 거절한 사람들의 수만 해도 꽤 됩니다. 나는 갖가지 상황들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간 제자들의 등쌀에 놀려 살기도 힘들 테니까요. 이해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나 비좁은 데다가 출가하려는 사람들의 상황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만일 아이가 여럿 있다면 출가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출가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아이를 돌봐 줘야 할 텐데, 그럼 나는 강연하러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어딜 가든 우유병·고무젓꼭지·기저귀·유모차를 (대중 웃음) 가지고 다니고 각양각색의 장난감을 싣고 다녀야 할 테니까요. 그러면 너무 성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있는 사람은 집에서 출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도 출가입니다. 유마거사는 출가하지 않았지

만 석가모니불의 출가 제자들보다도 지혜가 높아서 출가 제자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가 병이 나자 석가모니불이 자신의 수제자들에게 문병을 다녀오라고 했지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모두들 예전에 그의 기에 눌린 채 논쟁에서 진 적이 있다 보니 감히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유마거사는 막힘없는 말재주에다神通도 대단했습니다. 그의神通은 손으로 뭔가를 부린다거나 입으로 주문을 외워 병을 고치는 그런神通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큰神通, 해탈의神通, 자연의神通, 무아無我的神通이 있어서 곧바로 천국에 간다거나 즉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즉시 데리고 돌아오는 일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유체이탈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병이 났을 때 내가 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그런 사소한 유체이탈 법문으로 석가모니불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집에서 석가모니불의 제자가 자기를 보러 오기만을 기다렸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석가모니불 역시 유체이탈 법문으로 유마거사를 보러 갈 수도 있었으며, 문수사리보살이나 아난·라훌라·사리불 등도 유체이탈 법문으로 그를 보러 갈 수가 있었지요. 달리 뭔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유체이탈 법문은 궁극적인 해탈 법문인 관음법문과는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예컨대 어제 내가 출가 제자에게 유체이탈 법문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는 그것을 배우자마자 곧바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뒤쪽으로 가더니

뒤쪽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부 기억하고 돌아왔지요. 영혼이 육신으로 돌아온 후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 방금 유체이탈을 해서 보았던 상황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확실히 그곳에 갔음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전에 도가 수행을 했던 또 다른 입문자가 있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저도 알아요. 영혼이 나가고자 하면 아무 문제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 도가에서 배울 때도 영혼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한번은 영혼이 집 밖으로 나갔더랬지요. 그때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보고서 주우려고 해봤지만 신체가 없다 보니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영혼이 몸에 돌아온 후 직접 그곳에 가 보았더니 정말 사실이더군요. 여전히 그곳에 돈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유체이탈 법문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음법문은 유체이탈과는 다릅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궁극적으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매일 아스트랄체로 여러분이 사는 곳에 가서 그곳의 화장실이 깨끗한지 어떤지, 주방으로 가서 여러분이 고기를 몰래 먹는지 안 먹는지를 살핀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대중 웃음) 아닙니다. 스승은 모든 신체를 다 벗어 버려야 합니다. 무소부재해야만 어떤 사람이라도 다 볼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만일 내가 여전히 어떤 종류의 신체 안에 있다면 설령 그것이 아스트랄체라 할지라도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그 한 가지 신체만을 사용할 수 있을 따름이지요. 아스트랄체는 육체와 거의 비

습니다. 우리의 본래면목이 여전히 신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신체로만 떠다닐 수 있을 뿐 무소부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 전체를 보려면 우주에서 제일 높은 곳에 가거나 우주만큼 넓게 자신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체眞體 속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혹은 주인은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 또 우주만큼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행 정도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수행하지 않아 해탈하지 못한 채 여전히 신체에만 묶여 있다면 영혼은 그만큼 작겠지요. 어쩌면 심장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심장이 아니라 영적 심장 속이에요. 마치 아스트랄체에 아스트랄의 심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평소 우리의 영혼(혹은 진인眞人이라 칭함.)은 정수리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좀더 높은 곳에 있다면 아마도 둥그런 곳(백회)에 위치해 있겠지요. 그리고선 은줄과 연결되어 있을 테니 자유롭지 못한 건 여전히 겹니다. 진정한 여래로 변할 때에야 무소부재하게 되며 본래면목이 확대됩니다. 우리는 육체로 올라가는 것도, 아스트랄체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삼계 내에 있거나 또는 제4세계, 제5세계에 있다면 아직 궁극적인 곳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확대되어 우주로 변할 때, 모든 곳에 다 존재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여래가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어딘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만일 아직도 유체이탈을 하고 싶거나 어딘가에 왕생하고 싶다면 그것은 아직 다섯 가지 경계 이내에 머물러 있

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섯 가지 경계를 뛰어넘으면 점점 더 우주처럼 변하게 되지요. 그렇다 해도 우리가 여전히 한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석가모니불은 여래가 된 후에도 변함없는 석가모니였으며 여전히 사바세계에 사는 천인도사天人導師였습니다. 석가모니는 비록 사바세계의 아쉬람에서 명상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설법하긴 했지만 아스트랄계(제1세계)의 천인들과 인과세계(제2세계) 및 제3세계의 천인들도 가르쳤습니다. 각 세계의 천인들은 직접 자신들에게 설법하고 있는 석가모니를 본 것이지 온 우주를 상대로 설법하는 석가모니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온 우주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래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유체이탈 법문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여래의 상황에 이르려는 것이지 육체를 남겨 두고 영체로 화장실이나 엿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한 법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일겠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법문을 수행하는 목적이나 얻게 되는 과위가 과연 궁극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왕생은 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유체이탈 법문처럼 아스트랄체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체이탈을 할 때는 자기 스스로 그걸 알며 돌아와서도 압니다. 유체이탈을 할 때 보았던 정황들을 모두 알지요. 그러나 신체 하나만 끌고 갈 수 있을 뿐 무소부재할 수도, 천백억 화신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

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관음법문과 유체이탈을 하여 돌아다니는 그런 법문을 함께 놓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포모사에는 유체이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명한 법사가 한 명 있는데, 한번은 2주간 삼매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몸이 따뜻했던 관계로 차마 매장을 못하고 있던 터에 2주 만에 그가 유체이탈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황급히 물었지요. “스승님, 어디에 가 계셨습니까? 왜 그렇게 오래 걸리셨습니까? 저희 모두 정말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한번 둘러보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체이탈의 상황입니다. 이는 간단하여 높은 등급의 수행을 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해낼 수 있습니다.

내 출가 제자는 나를 따라 출가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어제 내가 가르쳐 주자마자 바로 유체이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빨랐지요. 사실 유체이탈은 조금만 집중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 법사는 이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몇몇 사람도 유체이탈을 하여 여기저기 다닐 수 있다고 해서 꽤 유명해졌지요. 그러나 그들은 유체이탈에서 돌아온 뒤 과장했습니다. 방금 말한 그 법사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결코 과장하진 않았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유체이탈의 능력 때문에 매우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미 부처라고 하면서 계율에도 맞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계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고기를 먹는거나 출가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은 정말 큰일은 아니지요. 그는 이런 일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깨끗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사람을 의심할 권리는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는 상황을 말해 준 것입니다. 유체이탈은 어제 내가 말한 것처럼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어릴 때는 관음법문이나 다른 법문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영혼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영혼이 나가는 체험을 많이 했지요. 이를테면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것 역시 일종의 유체이탈입니다. 때로는 실제 상황을 꿈꾸기도 해서 어딘가에서 자동차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는 꿈을 꾸고 나면 다음날 정말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체이탈의 한 예입니다. 그러므로 유체이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별게 아니며, 사람들을 해탈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문입니다.

해탈한다는 것은 모든 영체의 옷을 다 벗어 버리고 온 우주로 확대되어 여래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우리를 한번 생각하기만 해도 우린 그곳에 곧바로 나타나게 되지요. 이른바 ‘천 개의 장소에서 기도하면 천 개의 장소에 나타난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역사상 유명한 장군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들도 유체이탈 능력을 갖고 있었기에 백전백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유체이탈을 하여 적의 상황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 진영에 어떤 사람이 있고 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되면 싸움에 이기는 건 따 놓은 당상이랄 수밖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요. 또한 그들은 싸울 때 자신의 신체를 본영에 둔 채 아스트랄체로 빠져나와 어느 곳에서 공격해야 할지 관찰한 뒤 다시 돌아와 부대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평치가 않습니다. (대중 웃음) 그들은 유체이탈 능력을 악용했지요. 그래서 결국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참담한 죽음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많은 일들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을 속이기가 무척 쉽습니다. 영체가 잠깐 나간 것뿐인데도 교만해져서는 자신이 부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영체가 처음 나갈 때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계속해서 유체이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나중에는 죽음도 겁내지 않게 되지요. 이해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죽을 때의 상황은 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유체이탈의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모른 채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시끄럽게 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집에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웃음) 어떤 귀신들은 고독과 좌절로 인해 가족들에게 와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는데 정말로 이런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데다 부인을 만져도 부인은 그걸 알아채지 못한 채 오히려 다른 남자까지 집에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대중 웃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쟁반이나 그릇 같은 것을 찾아내

어 온 힘을 다해 시끄럽게 두들기거나 문을 덜컹거리 보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형상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하지만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야만 그렇게 잠깐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는 몹시 피곤해집니다. 힘을 다 써 버렸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화가 났을 때만 힘을 다해 자신의 존재를 내보이니까요. 그런 영혼은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매우 고독합니다. 어떤 귀신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법사나 누군가를 청해 그 영혼에게 “당신은 이미 죽었으니 실컷 먹고 갈 곳으로 가시오. 다시 돌아와서 시끄럽게 하지 마시오.”라고 알려 주도록 합니다.

티베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식구들이 법사를 초청해서 법회를 열어 몇 번이고 그 영혼이 이해하도록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산을 넘고 수많은 강을 건너야 하니 배불리 잘 먹도록 하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현세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떠나야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의 상황은 모두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시대로 명상하고 관음법문을 수행한 사람이라면 그들과는 달리 죽을 때 고독하지 않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해합니까?

우리 동료수행자들은 죽기 전에 스승이 와서 알려 주고, 임종할 때에도 스승이 데리러 옵니다. 스승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연꽃이 피어나는 가운데 불보살이 스승과 함께 맞이하려 오지요. 만일 여러분이 서방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면 관세음보살이 길을 안내할 수도 있고 아미타불이 연꽃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천주교의 신을 믿는다면 날개를 가진 천사가 여러분을 데리고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억지로 연꽃에 앉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연꽃을 좋아하지 않고 독일의 가장 유명한 자동차 벤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차로 맞이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대중 웃음) 중생은 저마다 바람이 다르고 스승은 늘 그런 서로 다른 중생의 요구에 맞추어야 하지요. 모든 사람이 다 연꽃에 앉아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니 연꽃에 앉을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꼭 배우도록 하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만 하면 그런 교통수단을 예약해 두었다가 여러분을 맞이하러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꽃에 앉을 수 없습니다. 업장이 너무 무거워 올라 앉기만 하면 연꽃이 뒤집혀 버리니까요. (대중 웃음) 우리 출가자 가운데 누군가가 명상 중에 내가 밝고 고아한 모습으로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내가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많은 동료수행자들과 함께 보았다고 했지요. 그때 옆에 있는 수많은 연꽃을 보고 자신들도 앉고 싶어하자 내가 “좋아요. 여러분 모두 올라와 앉으세요. 한 송이에 한 사람씩 앉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올라가자마자 ‘퐁당’ 소리와 함께 모두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대중 웃음) 내가 앉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업장이 너무 무거워 연꽃이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2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군함으로 그녀 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중 웃음) 그녀의 업장이 너무 무거워서요.

우리 관음법문 수행자가 죽을 때의 상황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아스트랄계에 가더라도 그 세계의 높은 경지에 있는 학교에 가서 날마다 스승에게 다시 배우지요. 보통 사람들처럼 영혼이 아무것도 모른 채 육신에서 빠져나와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 곳을 배회하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화를 내는 혼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죽는 상황은 어제 내가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내가 가르쳐 준 그런 법문을 수행합니다. 유체이탈을 해서 아스트랄체로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구름 위까지 날아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른바 ‘구름을 타고 안개를 부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지요. 때로 아스트랄체가 굳어지면 구름 위에 떠 있는 몸을 사람들이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 큰스승의 화신 역시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유체이탈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죽음을 겁내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곧 영혼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수행자는 이런 체험을 하고 난 후 자신이 이미 생사해탈을 한 줄 알고 아주 교만해집니다. 바로 이때 그에게 훌륭한 스승이 없다면 그는 이를 과장할 것이고, 또 그가 가진

학식이 높거나 말재주가 탁월해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산다면 그는 이로써 더욱 교만해질 것입니다.

사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글을 쓰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백과 소동파는 시詩와 사詞에 능했습니다. 이백은 수행은 고사하고 매일 술만 마셨으며, 소동파 역시 수행은 별로 하지 않고 선사들을 찾아가 논쟁하는 것을 즐겼지요.

앞서 얘기했듯이 유체이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름 위를 걸을 수도, 여기서 미국이나 독일까지 갈 수도, 세계를 두루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손오공처럼 구름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닐 수도 있겠지요. 게다가 문장력과 말재주를 두루 갖추고 있거나 외모가 출중하고 장엄하여 사람들이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존경심이 우리날 정도라면 더욱 교만해져서 자신이 살아 있는 부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셔도 인과가 없다는 등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수행을 하면 그에 따른 복이 있겠지만 업장도 함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분명 다르지요. 예컨대 여러분이 일을 해서 날마다 20대만 달러를 버는 동시에 별도로 사람들에게 50대만 달러를 빌린다고 합시다. 그럼 날마다 20대만 달러를 번다고 해도 50대만 달러는 여전히 빚으로 남겠지요. 알겠습니까? 직접 번 20대만 달러와 사람들에게 빌린 50대만 달러는 서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번 돈 20대만 달러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50대만 달러의 빚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인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설령 채식이 좋을 게 없다 하더라도 나쁠 것 또한 없으니 채식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내 말이 틀렸다면 육식을 해도 아무런 인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채식을 하는 게 더욱더 인과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을 비방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그들을 따라 배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고대 경전에 있는 말씀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뉘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신중을 기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훌륭한 법문을 수행하면서 도덕 또한 갖추고 있다면 잘못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도덕이 없다면 이 세상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총명함으로 다른 이들을 속이고 서로 흠치고 핍박하면서 폭력을 휘두를 테니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겠지요. 이렇게 수행해 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중생을 돕기는커녕 곤란에 빠뜨리기만 할 테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매번 여러분에게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신중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무엇인가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집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은 '집착'해야 하며 수행을 잘해야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여러분도 달관해서 자주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절로 알게 되겠지요.

갓 수행을 시작했을 때는 천천히 걸어야지 너무 빨리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말지요. 이제 막 말을 타는 법을 배워 아직 말을 부리는 데 서툴면서도 빨리 몰아 둘 다에게 문제를 초래하거나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갓 운전을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야지 시속 160km로 달려서는 안 됩니다. 교통 법규에서 정한 속도를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테고 자동차 역시 과열로 폭발하게 될 겁니다.

이제 화신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지요. 살아 있는 스승의 화신은 명상할 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을 뜨고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스승들 중 한 분이 살아 계실 때, 비행기 조종술을 배우던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시험일이 가까워지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까 봐 속으로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스승에게 도와 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러자 스승은 날마다 제자 앞에 나타났으며, 그 모습은 제자뿐 아니라 그에게 비행기 조종술을 가르치던 교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볼 때도 있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볼 때도 있었지요.

그 교관이 매번 제자에게 물어도 제자는 늘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요.”라고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스승의 모습은 언뜻 보이곤 이내 사라져 버려 종잡을 수 없었지요. 어느 날 그 교관이 계속해서 다그쳐 묻자 그는 하는 수 없이 “당신이 본 그분은 바로 저의 스승님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교관은 “당신의 스승이 어떻게 우리 비행에까지 동행할 수 있단 말이죠? 외부 사람은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데 말입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 제자는 말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화신입니다. 그분은 공력도 대단하고 무소부재하기도 하지요. 당신이 복이 있어 그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내가 들려줬던 인도의 요가난다(Paramahansa Yogananda)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난다는 요가 스승이었으며, 때로 그의 스승이 그의 옆에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도 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가난다는 명상할 때만 스승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서도 볼 수 있었고 또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스승의 화신이 마치 육체처럼 느껴져서 손으로 잡을 수도 있었고 직접 대화도 나눌 수 있었지요. 마치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때로 나의 몸이 진짜 육신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스승님 웃으심) 오늘 내 모습도 화신인지 모르니 지금 빨리 똑똑히 살펴보세요. (대중 웃음)

스승의 화신을 본 요가난다가 스승의 몸을 붙잡고서 “이것은 당신의 육신입니까?”라고 묻자, 그의 스승은 “그래, 육신이나 다름없지. 그렇지만 진짜 육신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큰스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빛을 발하는 신체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스승이 왕성한 후에도 여전히 육신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요가난다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자서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법문이 우리 법문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역시 수행을 무척 잘했습니다. 우리가 수행자에 관한 책을 보거나 성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 것은 자신의 구도심을 북돋우기 위한 것인데, 우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내 수행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군. 모두들 이렇게 훌륭하게 수행했는데 나는 어째 이 모양이지?”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수행하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지요.

나 역시 여러분에게 성인의 수행 생활을 담은 책을 보라고 권장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꼭 내 책만 봐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보고 나서 동요되지는 마십시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어떤 법문도 관음법문보다 높지는 않지요. 만일 그보다 더 높은 법문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법문을 수행하면 모두 빛을 지니게 됩니다. 간혹 빛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경우 내면의 소리가 있으면 됩니다. 수행을 하는 데 그리 조금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배경이 다 다르니까요. 수세기를 걸쳐 수행해 오다가 이번 생에 서야 스승을 만난 사람도 있고, 이번 생에 겨우 수행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수행 배경이 다르면 당연히 진보의 속도도 다릅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조금해 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에 이롭습니다. 강한 구도심이야말로 축복이자 커다란 공덕이지요. 매일 수행하고자, 해탈하고자 하는 것이 경지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비록 경지를 얻기는 했어도 구도심이 강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

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은 수행했다가 내일은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곳에 와서 좀 수행했다가 다시 저곳으로 가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꾸 바꾸면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체험은 적지만 구도심이 강하여 날마다 해탈을 갈망하며 애써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도를 얻을 것입니다. 불보살도 틀림없이 그를 기억할 것이며, 그의 수행에도 분명 성과가 있을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해 보일 건 없습니다만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마음은 아주 너그럽습니다. 그는 매우 자비로워서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없이 하지요. 그에게는 이기적인 관념이란 게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매우 폭넓게 다루며,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정, 자기 단체에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태도만 보아도 그 사람의 깨달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이 많지 않고 진보가 빠르지 않다 해서 왜 불보살이 돕지 않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도운 일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었는지, 대중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 어떤 봉사를 했는지, 우리가 한 일이 온 우주 혹은 이와 동등한 큰 이상을 위한 것이었는지 먼저 자신에게 똑똑히 물어봐야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알겠습니까?

해탈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이 해탈하도록 도와야 하며, 스승이 되고자 한다면 스승을 돕고, 스승을 존경하며, 스승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인과법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무언가를 기꺼이 내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준다면 그걸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역시 기회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지요. 우리의 친구의와 구도심을 공양해야 하며 좋은 소식을 중생에게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법문이 가장 좋은지, 나를 따라 수행하면 일세해탈한다든지,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등의 소식을 대중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일종의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나를 위해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 등의 일을 해야만 나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탈하도록 돕고 다른 사람이 '정도正道'를 알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도움이며 최상의 공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여러분이 원래 폐허였던 뒤쪽 공터를 아주 깨끗이 정리한 데다 동료수행자들이 함께 명상할 수 있도록 임시 센터를 지을 준비까지 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공덕입니다. 내가 공덕을 탐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과법, 수행법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을 이롭게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에게 더욱 이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수행만을 돌볼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궁극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궁극적인 이익이란 사람들에게 '정도'

를 알려 주고 그들 역시 우리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이익입니다. 돈을 보시하거나 물 걷는 일을 돕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사람들이 정법을 알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일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 도울수록 우리는 더욱 향상되고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서 이 점에 대해 잘 생각해 보고 이제까지 그런 일을 얼마나 했으며 앞으로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하기를 원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Q: 평소에도 가끔 관음을 할 때 들었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A: 원래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평소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야 스승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요. 꼭 관음을 할 때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스승이 영원토록 늘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 주지요. 스승은 육신이 아닙니다. 스승은 빛이고 소리이며 힘입니다.



3장

어떻게
스승의 가피력을 느끼는가

3장

어떻게 스승의 가피력을 느끼는가

1987. 12. 5. 포모사 타이난 치구 아쉬람

우리는 이따금 사람들이 “그 스승을 따라 배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지?”라며 원망하는 걸 듣기도 합니다. 그들은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염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수행이 충분치 못한 사람은 가피력을 그렇게 빨리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스승의 가피력을 쉽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타이난에 입문한 지 겨우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 노인이 있는데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차에 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데리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차에 부딪혔는데도 전혀 아픈 줄을 몰랐다고 하지요. 당시 그는 한 줄기 빛이 자신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빛이 바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스승의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저런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으며, 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의 가피력입니다. 스승이 자기 집에 와서 방금 세상을 떠난 가족을 데리고 높은 경지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문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입문하지 않은 사람도 볼 수 있으며, 여섯 살, 아홉 살, 열 살짜리 어린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승을 볼 때는 마치 삼매에 빠진 것과도 같은데, 그걸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지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입문한 사람이 스승의 화신을 본다면 환상을 본 것이라든지, 스승에게 최면이 걸린 것이라든지, 스승이 ‘얽’ 하며 무슨 신통을 써서 (스승님이 손짓을 하신. 대중 웃음) 그들을 미혹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섯 살, 아홉 살, 열 살이 된 아이들은 스승을 본 적도 없으며 수행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스승을 보고도 누군지 모른 채, 가족들에게 “매우 아름답고 빛이 나는 스님 한 분이 오셨어요.”라고 알려 줄 뿐입니다. 가족들이 어린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 아무도 없지 않니!”라고 하면 아이는 “있었던 말이에요.”라고 하면서 그 사람(스승님을 가리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지요.

당시 입문한 제자가 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보여 주며 “이분이었니?”라고 묻자, 그 아이는 “예, 맞아요. 그렇지만 사진보다 살이 좀 쪼여요.”라고 말했습니다. (대중 웃음) 사실은 살이 쪼면 게 아니라 몸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좀 둥그스름하게 보였던 것뿐이지요. 빛이 있으면 좀 두텁게 보이는 까닭에 살이 좀 더 쪼 보였던 것

입니다.

나는 오늘 땅을 보러 갔습니다. 그저께도 땅을 보러 갔었는데, 가는 길에 큰 교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긴 옷을 입은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이 서 있었지요. 나는 그의 머리에서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선 마음속으로 '예전에 그가 수행하면서 빛을 발했겠구나. 그 빛이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비추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빛을 숭배하는 것이겠지.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성인이고 큰 힘을 가진 사람이며 도를 성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걸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불상이나 관세음보살상 같은 모든 불상에 빛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들만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수행하면 모두 빛을 발하게 됩니다. 몸에서만 빛이 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무량광을 발하여 우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그 빛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처럼 바로 무량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고뇌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일종의 막연한 느낌이었는데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천여 년이 지났건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이 그런 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가 발산하는 빛이 너무나 커서 일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의 힘만을 믿나 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런 위대한 사람이 한 명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요. 그런 득도한 사람들은 비록 몇 줄기의 빛만 발산하더라도 사람들을 해탈시킬 수 있으며, 사람들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사를 해탈하여 자유자재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교인들은 어디를 가든 석가모니불이 빛을 발한다고 찬탄합니다. 그가 설법할 때 온 사바세계가 황금세계로 변했으며, 평등하지 못한 곳은 모두 그에 의해 평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의 빛이 수많은 곳을 비추었으며 당시의 제자들은 여기서도 천당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입문의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문할 때나 명상할 때에 이런 상황을 보기도 하고, 나의 강연을 들을 때 그런 경지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그런 불가사의한 힘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석가모니불은 매우 유명합니다.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그를 숭배하는 것은 그가 이런 힘을 지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그 한 사람만이 그런 위대한 힘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불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 우리의 숭배와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그들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여서 찬탄이 그칠 줄을 모르지요. 그러나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은 그들만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매일 그들에게만 절을 하며, 그들과 똑같은 힘을 가진 위대한 스승은 찾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위대하게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보지도 않은 채 이제는 희미해서

보이지도 않는 고대의 스승들만을 향해 하루 종일 절을 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불만이 위대한 스승은 아니었습니다. 모하멧 · 플라톤 · 노자 · 장자를 비롯하여 크고 작게 이름난 다른 수많은 스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아주 오래되었건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숭배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 나는 그런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아 고개를 가로저어 보기도 하지만 별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역시 매일 경전을 보지만 너무나 지루해서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강연을 위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따금 경전이나 유행하는 현대 철학을 참고하곤 합니다.

중국 속담에 “군자는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아니하면 지루함과 불편을 느끼게 되며,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봐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 웃음) 왜 그럴까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백지와 같아서 말을 하고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을 할 때도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하고, 또 말을 마치고 나서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요. 바로 ‘나’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들은 명리나 사람들의 숭배를 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며,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경지는 이미 범부의 두뇌로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에 그들 입장에서는 ‘천하엔 본래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꼭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듣고 싶어하는 까닭에 경을 읽고 책을 보는 것입니다. 경전과

서적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그런 경전을 보아 왔으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면 무슨 얘기를 해야 그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먼저 책이나 경전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다음 천천히 넓혀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말이 없지요. 제일 좋은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차례나 ‘말을 할수록 틀린 듯한 느낌이 드는군. 진리를 어찌 언어로 나타낼 수 있겠어? 높은 경지의 체험을 표현할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럴테면 깨달음을 얻어 득도하자 매우 기뻐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그에게 “무엇이 그리도 기쁘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말로 표현하긴 어렵군요. 내가 얻은 경지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알려 주세요.”라고 하면 그는 잠시 생각한 후에 “그런 상태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울 수 있는 상태보다 천백억만 배나 더 즐거우며, 심지어는 그보다 더 즐겁기도 합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것은 깨달음뿐만 아니라 도까지 얻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경전이 비록 훌륭하다고는 하나 궁극적인 경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전은 아직 문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약간의 참고 자료로, 문 안으로 들어선 후에는 자신의 체험을 실증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신의 등급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체험마저도 넘어서게 된다면 경전으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들 ‘선’은 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승의 화신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의 배경과 전생의 수행 정도, 혹은 현재의 신실한 마음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스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스승을 보아야만 스승이 돕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떤 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느낄 테고, 그러면 안전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소로 동의를 표함.)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치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 같고 어디에 있든지 누군가 우리와 함께 자리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으며, 잘못하면 곧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비난도, 비평도 하지 않으며 우리를 가로막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치 않다면 그저 지켜볼 뿐이지요. 마치 유치원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의 책임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맘때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 일이나 저지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두 모아 놓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러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 밖에 나가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요. 이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하기에 몹시 피곤합니다. 장사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잘 대해 주지 않을 때도 있지요. 게다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때로는 ‘왜 아직도 내게 병이 있지? 왜 장사는 여전히 잘 안 되지? 왜 아직도 나를 속이는 사람이 있지?’라며 자신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스승님께서서는 무소부재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따금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나도 이런 상황을 잘 압니다. 나 역시 의심도 하고 원망도 했으니까요. 내가 쓴 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여 주겠습니다. 이미 중국어로 번역되긴 했지만 아직은 내가 좀더 손을 봐야 하니, 다 정리되고 나서 인쇄되어 나오면 읽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내가 포모사에서 처음으로 내는 시집입니다. 짧은 시들이지요. 각각의 시들은 그리 길지 않고 몇 마디로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집(『침묵의 눈물』)을 보고 어찌면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따금 우리는 사회에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불보살을 의심하고 스승을 의심하며 우리가 수행하는 법문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새운

지마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대중: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잃어버렸던 탓에 오히려 좋은 상황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옹(변방의 늑은이)은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수행담을 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가 수행을 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겠지요. 그는 아주 차분하고 침착했으며, 자유로우면서도 자신감에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본보기 삼아 배워야 합니다.

그가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도 우리는 더더욱 수행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일개 범부에 지나지 않던 그도 그렇게 차분하고 평온하며 자유자재한 품격을 지닐 수 있었는데 수행자인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황사형이 어떻게 자신의 병을 극복했을까요? 여러분은 압니까? 그가 어떻게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스승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행을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쉽게 긴장하거나 겁먹지 않지요. 겁내고 두려워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이제 스승의 가피력이 어떤지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혈관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곧잘 '무서워 죽겠다.'라는 말을 씁니다. 겁을 먹으면 피가 흐르지 않고 심장도 멈추며 두뇌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을 하려 해도 생각이 트이지 않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피를 흘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굳게 믿습니다. 엄마가 피를 보고 부산을 떨면 아이는 피를 흘리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아이들은 엄마에게 의지하므로 엄마가 안정을 찾으면 아이들도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한다면 아이는 심각성을 느끼지요. 원래는 피가 나도 울지 않다가, 동생이나 엄마가 “어머니! 피가 나네! 큰일났구나!” 하고 말하면 그제야 울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수행자라고 해서 모두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행하여 큰 힘을 얻어야만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황 사형은 병이 났을 때도 실망하거나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과 다름없이 살아갔지요. 평소에는 내게 전화를 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오히려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할 때도 여전히 웃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게 전화를 걸면 좋아질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는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요.

그는 체험도 좋았습니다. 스승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스승의 힘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스승의 힘은 조물주의 힘이 지 '나'라는 칭하이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스승은 '칭하이'라는 이 육체가 아닙니다. 내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보살의 등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스승의 힘이 바로 우주 최고의 힘입니다. 인간보다 더 위대한 이 힘에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작고 유한한 능

력에 의지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이로움은 얻을 수 없지요.

어쩌면 여러분은 “저희는 이미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있는데 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하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황 사형의 예처럼, 그 역시 입문하여 관음법문을 수행했는데 왜 스승이 그를 보호하지 않고서 병이 나도록 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나면 병이 나도록 놔두는 겁니다.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지요. 병이 없다면 수많은 업장을 어떻게 그토록 빨리 없앨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병이 나지 않는다면 지옥에 수천백 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병이 나는 것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병이 좀 나도 상관없잖아요!

현장법사 역시 관음법문을 수행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거기에도 소리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인도에 갔을 때 그는 소리의 경전과 소리의 법문을 배웠습니다. 샤브다 비드야(Shabda Vidya)란 바로 소리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현장의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요.

사람됨이 훌륭한 데다 관음법문까지 수행한 그였지만 그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병이 너무나 심해 고통스러운 나머지 불보살에게 도움을 청하자 보살이 나타나 “괜찮을 것이다. 약간의 병이 있음으로 해서 세세생생의 수많은 업장이 씻겨지는 것이니 참아야만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좋아졌지요.

우리는 인과를 소멸시켜야 하면서도 가끔 그걸 피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늘 “업장은 원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또 업장을 깨끗이 갹아야만 할까요? 사실 업장이라고 해서 무슨 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이지 원래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 두뇌는 그런 선입견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즉 2백 년 전에는 이 일을 잘못했고 20년 전 아직 태어나기 전에는 저 일을 잘못했으며 10년 전에는 그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요. 들리는 것은 모두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사회가 우리를 책망하고 도덕 경전이 우리를 질책합니다.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이 사실 사회의 풍속에 맞지 않는다는 것뿐인데도 풍속을 어겼다 해서 우린 여지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차례나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풍속·법률·관습이 다 다르다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역사와 풍속·관습·법률을 배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차가 좌측통행을 하지만 포모사에서는 좌측통행을 하면 불법입니다. “내가 알기로 영국에서는 차가 좌측통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다른 차와 충돌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운전 과실 때문에 차가 충돌한 것이니 이 일로 인해 여러분은 업장을 짓게 될 겁니다.

원래는 아무 업장도 없으며, 어떤 것이나 다 좋도록 안배되어 있

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연극입니다.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연극이 끝나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분장을 지우고 집에 가면 모두가 보통 사람이고 여전히 훌륭한 남편, 정숙한 아내입니다. 그때는 왕도 없고, 탐관오리도 없으며, 정승도 없고, 예쁜 궁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계 역시 좋고 나쁜 것이 존재하는 일종의 극장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공연을 하면서 관중에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 나를 미워하지 말라거나 나는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으니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공연을 할 때면 우리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생생한 공연을 할 수 없겠지요.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배역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감나게 연기합니다. 진짜처럼 울고, 화내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므로 연극이 아주 재미있어지지요. 왕은 말 그대로 위엄을 풍기며 악인은 흉악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악인을 연기할 때의 눈은 비열하기 짝이 없으며, 괴로운 상황을 표현할 때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배우나 연예인들 가운데 종종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매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궁중의 황후나 귀비 같은 화려한 역만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자신을 호위해 주고 시중을 들어 주던 연극 속의 역할과는 달리 실생활에서의 자신은 그저 늙은

마누라(대중 웃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상당한 괴리를 느끼고선 괴로워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부 유명한 배우들의 실생활이 그다지 정상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사람도 있으며, 마약이나 도박 등 그야말로 나쁜 습관에 빠져 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그들의 마음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스승의 가피력에 대해 얘기하다 말고 어쩌다가 연극 얘기로 넘어오게 되었지요? (대중 웃음) 그렇지만 이것도 쓸모있는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명상도 열심히 하고 구도심도 확고한 데 비해 체험이 극히 적어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용도가 있으니 “스승님은 왜 제게 가피를 주지 않으십니까? 어서 하늘 문을 열어 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세상은 정말 괴롭습니다. 천당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왜 저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십니까?”라며 너무 크게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이 세상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천당을 보고 돌아온 후에는 더욱 괴로워질 겁니다. (대중 웃음) 그래서 스승이 여러분에게 빨리 보여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TV를 봐서 모두 알겠지만 미국에서 임사 체험에 관한 특집을 한 편 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죽었다가 20분이나 한두 시간 뒤에 살아 돌아와서 죽음의 상황이 어떤지를 말해 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죽을 때 혼이 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육체를 빠져나간 영체는 공중에서 자신의 육신이 아래에 누워 있는 것을 보지요. 의사가 와서 맥을 짚

고,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는 등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좀더 높이 올라가다가 자신을 맞이하러 온 빛나는 중생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끌려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나 가족, 또는 유명인사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 관음법문 수행자들은 그곳이 아스트랄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겁니다. 아스트랄계의 천당은 궁극적인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들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가서 좀 둘러보기만 할 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녀온 후로는 이 세상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요.

어떤 사람은 돌아온 후 무척 괴로워하며 수주일 동안 계속 울기만 하기도 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곳을 두고 이 지지분한 세계에 다시 돌아와 살아야 하니 괴로운 것도 당연하겠지요. 그 책은 아주 유명합니다. TV에서도 소개되었던 것 같은데, 나는 TV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잘 알겠지요.

마찬가지로 관음법문 수행 역시 천천히 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수행하다가 정신이상자가 되거나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될까요? 우리 그런 사람을 '마장'에 걸렸다고 하는데, 왜 마장에 걸리게 될까요? 왜 그런 체험을 한 후 돌아와서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까요? 그 이유를 알려 주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이 세계에서만 살 수 있고 이 진동력 안에만 놓일 수 있어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자 한다면 우리의 진동력을 서서히 높은 경지의 정교한 진동력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갓난아기가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우리 어른은 산해진미를 먹으면서도 갓난아기에게는 우유만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기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아기엔 산해진미나 갈비 또는 닭다리 같은 것을 주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갓 태어난 아기가 그런 것들을 소화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유만을 줄 뿐이지요.

우유를 주더라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약간의 물까지 타서 주는데도 아기는 잘 자랍니다. 매일 아기만 쳐다보고 있을 땐 하나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두 달 정도 보지 않다가 보게 되면 훌쩍 자란 걸 알게 되지요. 날마다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따금씩 통통하게 살찐 아기를 안다 보면 금세 피곤해져 더 이상 안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기를 안는 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아기 엄마는 매일 아기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가지요. 늘 아기를 안고 있다 보니 한 손으로는 장을 본 큰 보따리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통통한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조금씩 자람에 따라 매일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도 안아 주는 데 조금씩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기가 점점 더 자라더라도 엄마는 힘든 줄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매일 수행하고 명상하는데도 우리 자신은 전혀 자라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릴 알아보지요. 우리 자신은 변한 것을 몰라도 우리 친구들은 우리

가 자랐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가끔 우리도 그걸 조금 알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중대 변화를 쉽사리 알아차리는데 비한다면 아주 조금일 뿐이지요. 이제 막 입문하고 돌아왔을 뿐인데도 가족들은 곧바로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시비를 걸고 싸우면서 이혼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합니다. (대중 웃음)

갓 입문하고 와도 이처럼 골치 아픈데 수행을 더 많이 한다면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수행이 좋아질수록 가족들도 우리의 진동력에 서서히 익숙해져 전처럼 그렇게 많이 다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대하도록 하세요. 모든 건 진동력의 문제이고 성장의 한 과정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천히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아주 약해서 때로 명상을 지나치게 하면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평소 나는 명상을 많이 하면 아주 흥분해질 거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피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고개를 가로저어 피곤하지 않다고 표시함.) 당신은 명상을 얼마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고개를 저을 수밖에요. (대중 웃음) 명상이 너무 적어서 피곤함을 모르는 겁니다. 한 번에 명상을 8시간 정도 하면 피곤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불력(佛力)에서 전해지는 압력이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이지요. 비록 그것이 좋은 압력이라고는 해도 진동력이 너무 높고 가피력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약한 육체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가피력을 견뎌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명상을 많이 하면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

나 피곤하다 해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녹초가 되어 느끼는 그런 피곤함과 달리 그저 축 늘어지는 듯해서, 그때 맥을 짚어 보면 맥박이 거의 뛰질 않고 심장 박동도 아주 느리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매우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이 몸을 한쪽에 남겨 두고 멀리 빠져나가서는 전화를 걸어 이 신체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너무 멀어서 지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굴삭기와도 같습니다. 굴삭기 앞쪽에는 흙을 파는 커다란 손이 있는데, 그 기계손은 우리의 손처럼 움직이지만 운전하는 사람의 손은 아닙니다. 운전기사는 기계를 조작하여 땅을 파고, 돌을 파고, 나무를 파고, 길을 내는 일 등을 합니다. 차 안에서 기계손을 부리면서 땅을 파지만 직접 기계손 옆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일정하게 떨어진 곳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기계손이 마치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지요. 우리가 그것을 ‘괴상한’ 손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대중 웃음)

공상과학 영화에서 주인이 로봇을 시켜 재료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로봇은 꼳꼳한 자세로 기계적으로 걸어가지요. 물건을 집을 때도 이렇습니다. (스승님이 기계적인 동작을 해 보이심. 대중 웃음) 마찬가지로 명상을 너무 많이 하면 아주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피곤한 건 아니고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나도 아주 피곤하게 느껴져서 잠을 자면서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것 역시 이 몸의 주인이 없기 때문이지요.

옛날에 오로지 잠만 자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문

들은 그를 욕했지요. 모든 사람이 그가 게으른 스님이어서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잠만 잔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만한 쪽에 놓아둔 채 영혼이 놀러 나갔던 것입니다. 굴삭기를 작동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기계를 다 부린 후에 피곤해지면 굴삭기를 한 쪽에 두고 나가서 밥을 먹거나 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우리의 도구가 피곤한 것이지요.

그저께 내가 여러분에게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 돌아다닐 수 있는 법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한다면 돌아가서 계속 연습해도 됩니다. 영혼이 나갈 때 우리는 자신의 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스승이 말한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더 높은 경지에 가게 되면 자신의 신체조차 볼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속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이 외부의 것들을 보러 나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몸이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서야 스승이 “우리는 이 몸이 아니다.”라고 말한 진정한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문은 연습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목적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외에도 이상한 법문들은 아주 많습니다. 원한다면 시간이 날 때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들은 모두 쓸모없는 법문들입니다. 설명 쓸모가 있다 하더라도 하룻밤뿐이지요. 이를테면 여러분에게 비교해 보라고 우리 법문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정도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실험과도 같습니다. 실험은 사람들에게 잠시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법문들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유용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지요.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던 당장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여러분더러 먼저 시도하도록 한 다음 계속해서 설명을 덧붙일 겁니다.

이른바 팔만 사천 법문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믿는다면 곧바로 관음법문을 수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이자 최상입니다. 복잡하게 다른 법문을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할 일도 많고 가정도 돌봐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법문을 다 시도해 봐야 한다면 어느 세월에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복잡하겠지요.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른 법문을 배워서 안 된다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유체이탈 법문에 익숙해지고 나면 단 한 개의 육체만 남겨 놓은 채 내면의 다른 모든 신체들을 데리고 나가는 데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책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이 육체 안에는 또 다른 신체들이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그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그에게 가르쳐 준 유체가 탈 법문을 수행한다면 이 몸뚱이만을 남겨 놓고 내면의 다른 신체들은 모두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나중에는 고치기가 매우 어렵지요. 더군다나 내면의 신체를 가지고 다닐 때마다 갖가지 장애를 겪게 될 겁니다. 높은 경지에 가려면 모든 옷을 다 벗어 버려야 하니까요.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은 영혼 그 자체만 올라갈 수 있지, 다른 내면의 신체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스트랄체라는 옷마저도 걸칠 수가 없지요.

우리 각자는 모두 응신(應身)·보신(報身)·화신(化身)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신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육체로 이 세상에 화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화신이란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응신이란 바로 제2세계의 신체입니다. 인과 때문에 형성된 것인데, 그 신체 안에는 우리의 인과가 모조리 씌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케주얼 바디(Casual Body)라고 부르는데 인과의 신체란 뜻이지요. 제3세계의 신체는 또 다른 화신으로 멘탈 바디(Mental Body)라고 부릅니다. 그런 신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평소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5세계에 이르러서야 모든 신체를 벗게 됩니다. 평소 우리가 유체가탈을 하는 것은 단지 이 사바세계를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이 된 후에는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조그마한 지구 위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지요.

석가모니가 성불한 후 언젠가 강을 건너려고 할 때였습니다. 강가에 있던 뱃사공에게 “강을 건너게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석가모

니불이 묻자 뱃사공은 강을 건너려면 뱃삿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나는 출가자입니다. 생사를 해탈하고 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무슨 돈이 있어 당신에게 주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뱃사공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 배를 태워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석가모니불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맞혀 보겠습니까? 그는 물위를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대중 웃음)

보리달마나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석가모니불 역시 일반 사람들처럼 배를 타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걸어서 간 것이지요. 이해하겠습니까?

밀라레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스승들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선神通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알려 주겠습니다. 어느 날 밀라레빠는 장차 자신의 수제자가 될 지공레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공레빠는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지요. 밀라레빠가 지공레빠 앞을 지나면서 “오늘은 무척 피곤하여 먼 길을 갈 수가 없군요. 하지만 지금 꼭 어딜 가야 하는데 나에게 말 한 필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가든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공레빠는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 갈 일도 없고, 그곳을 지나치는 길도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려면 강을 건너야 했거든요. 그는 강을 건너지 않는다면서 밀라레빠에게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선 떠나려

고 했으나 밀라레빠는 이 사람이 자신과 인연이 있고 수행의 근기가 있음을 알고서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요. 그가 이 기회를 놓치고 그냥 가 버릴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수행 근기가 있다고 해도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오랜 세월을 기다린 후에야 다시 기회를 얻어 큰스승을 만나 입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공레빠가 그냥 가 버렸다면 언제 다시 밀라레빠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설령 밀라레빠를 다시 만났다 하더라도 그가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시간이 촉박한 데다 미래의 큰 제자가 떠나 버릴까 봐 염려스러웠던 밀라레빠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강 위를 걸었습니다. 넓고 깊은 그 강의 수면 위를 걸어서 왔다 갔다 했지요. (대중 웃음) 그때서야 지공레빠는 밀라레빠가 누군지를 알아보고서 당장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 말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입고 계신 옷은 다 해졌으니 저의 이 옷도 가져가십시오. 제게 있는 것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아직 필요한 것이 더 있으십니까?” 물론 밀라레빠는 아무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지공레빠뿐이었지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공레빠가 밀라레빠를 따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스승들이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끄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원래 묵묵히 중생을 제도하지 그런 요란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왜 수행에 진보가 없지? 스승

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원망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보했는지는 친구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 보통 수행자들과 잠깐만 얘기해 봐도 여러분의 등급이 그들의 등급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겁니다. 잠깐만 논쟁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쳐서는 “좋아요. 좋아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말하겠지요. (대중 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제자: 있습니다.)

어느 날 맥이 좀 빠지고 스승과 관음법문이 의심스러워진다면, 그때 여러분은 선사를 찾아가 담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담론을 벌이고 나면 곧바로 믿음을 되찾아 돌아와서는 “관음법문 최고, 칭하이 스승님 만세!”라고 (대중 웃음) 선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중 웃음) 여러분을 보러 정신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수행은 천천히 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성장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나는 혼자 수행하는 사람들은 종종 마장에 걸리거나 정신이상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영체를 드러내어 자신도 모르는 어떤 힘에게, 여태껏 알지도 못했던 어떤 힘에게 그것을 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조물주의 힘은 불가사의할 정도로 큼니다. 마치 전기와도 같지요. 전기는 볼 수 없기에 그것을 사용하려면 하나의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전선을 설치하고 안전장치로 그것을 덮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한 후에야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 설치되지도 않은 전기를 만진다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겠지요. ‘관’을 사야 할 겁니다. (대중 웃음) 만일 전기 사용법도 모르면서 함부로 그것을 만진다면 감전되어 죽을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힘을 처리하고 조절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큰스승의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산더미처럼 커다란 힘을 만나게 된다면, 비록 그 힘이 이 사바세계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수행하는 사람은 충분히 감전사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서 깨어난 후 신체와 정신이 무언가 달라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갑자기 그런 큰 힘을 만나는 바람에 자기 혼자서는 통제하지도, 처리하지도, 소화해 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큰스승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힘에 서서히 익숙해져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갑자기 큰 체험을 한다거나 너무나 아름다운 경지를 보게 된다면 다시 돌아와서는 일도 하기 싫고 살기도 싫어서 자살하고만 싶어지겠지요. 단순히 괴로워서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 웃음) 이 혐오스런 세상에서 하루빨리 도망치고 싶은 것이지요.

수행의 진보가 빠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사회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살아야만 하지요. 남편·아내·가정·부모·자녀라는 상황들이 이미 주어졌으니 계속 유지해야지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압담하여 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

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내일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즐겁고 용감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해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낮에 시간이 나면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명상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5분 후에 어떤 사람이 “내일 저는 일이 없는데 좀 일찍 와도 될까요?” 하고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중 웃음) 모두들 멍하니 듣고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요.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모두 기억할 테니까요. 스승의 눈을 본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예전에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운전하는 도중 무언가로 귀를 막고 명상을 하다 명상에 도취되는 바람에 손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듣질 못했거든요. 보통 인간의 등급을 넘어서는 바람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24시간 관‘음’만 하지 말고 관‘광’도 해야 합니다. 관‘음’을 너무 많이 하면 거기에 취해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어떤 것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 인도 여자가 차파티(얇게 구운 인도 빵)를 만들 때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절반쯤 만들었을 때 삼매에 빠져 영혼이 나가 버렸지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바닥이 온통 밀가루 천지였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차파티도 없었습니다. (대중 웃음)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

의 입장을 깨끗이 다 갚아야 하지요. 그렇지만 입장을 아주 편안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일 새로운 법문을 들려줄 테니, 24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들으러 오십시오. (모두들 참지 못하고 서 바로 얘기해 달라고 스승님께 요청함.) 내일 다시 들으러 오세요. 하루에 한 번, 한 가지씩 듣도록 하세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으면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명상하도록 합시다.



4장

연각불

4장

연각불

1986. 8. 31. 포모사 타이베이 신디엔

독각불獨覺佛이나 연각불緣覺佛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 법을 얻기 때문에 그 법은 그다지 큰 힘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혼자만이 깨닫거나 두세 사람에게 전해 줄 수 있을 뿐이지요.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수행을 하다가 때마침 옳은 길을 걷게 된 덕분으로 그야말로 기회와 인연이 딱 들어맞아 성공한 것뿐이지 이 길이 그의 진정한 법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따라 배우고 싶어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수행하여 성공했습니까?”라고 물으면 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수행하는 도중 부지불식간에 걷게 된 것이니까요.

인도에는 지금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독각불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법을 구할 정도로 유명하지만 그들에게는 전해 줄 만한 특정한 법문이 없는 데다 전해 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들처럼 꼭 해탈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더러 스스로 경을 보고 외우며, 절을 하고 염불을 하며 수행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역시 진정으로 수행하여 그들처럼 수행의 길을 깨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해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보고서 약간의 복을 얻는다 해도 그들에겐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길도, 전해 줄 법문도 없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 스스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른바 법문이라는 것은 한 스승에게 전수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을 전해 주는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지요. 만일 스스로 깨달아 해탈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제도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처럼 해탈하도록 이끌어 줄 수도 없고, 우리와 같은 등급으로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지요. 물론 연각불의 공덕이 대단히 커서 자신을 보러 온 사람들더러 훗날 자기처럼 될 수도 있으니 열심히 수행하라고 복으로써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도와 포모사에서 보았던 연각불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인도에도 수많은 연각불이 있었지만 그들에겐 법을 전해 줄 만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많긴 했어도 스승의 등급에 이르지 못한 제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사실 법문이 없기 때문에 스승과 똑같은 등급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법문은 계단과도 같아서 계단이 있어야 스승과 동일한 등급에 이를 수 있을 텐데, 계단이 없으니 올라설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이럴테면 숲 속에서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는 특출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마치 영화 속의 타잔처럼 나무줄기를 이용

하여 숲 속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원숭이처럼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숲 속에서 나는 것이 자신의 특기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산 위로 통하는 길을 가르쳐 준다면 비교적 간단하고도 쉽게 산에 오를 수 있겠지요. 그냥 알려 준 길을 따라서 걷기만 하면 타잔처럼 산 위에 다다를 수 있을 테니까요. 타잔이 가르쳐 준 방식대로 꼭 나무줄기를 이용하여 날아 올라가야 한다면 너무나 어려워 산 정상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타잔은 연각불과 매한가지라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길이 없으니 산 정상에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어떤 길을 찾아가든 상관없습니다. 연각불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길이 없기에 법을 전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길을 가본 적이 있고 산 위로 통하는 길을 알고 있다면 그는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길 안내자가 있어야 좀더 수월하지요.

연각불은 세세생생 오랫동안 수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계속 수행만 한다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일세에 성불할 수 있지요. 석가모니불도 일세성불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타잔은 어려서부터 원숭이와 함께 살면서 숲 속에서 날아다니는 연습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는 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원숭이와 함께 생활한 것이 아니라서 타잔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닦아 놓은 길

을 가야만 하며, 그렇게 해야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길을 일러줄 안내자만 있다면 갈 수 있는 것이지, 꼭 나무 타는 기술을 연마해야만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연각불은 이미 아주 오랫동안 수행했기에 이생에서 자연스럽게 성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세생생 수행을 잘하지 못했어도 지금 대수행자를 만난다면, 그에게는 복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복을 약간 나누어 가질 수도, 그가 우리를 좀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려 줄 수도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 수많은 연각불이 그에게 와서 배웠습니다. 석가모니불에게는 법을 전해 준 스승이 있었지만 연각불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연각불이 자신의 제자에게 법을 전해 주기 위해서는 석가모니불에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연각불 자신은 이미 높은 등급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문만 얻는다면 곧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전해 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불교 경전을 보면 수많은 연각불들은 이미 다 배워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데도 석가모니불의 설법을 듣고 그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법문을 배워야만 나중에 중생에게 법을 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도에는 수많은 연각불이 있으며, 포모사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모사에 있던 연각불은 모두 입적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다른 연각불이 아직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앞서 말한 타잔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타잔과 같은 능력이 없다 해도 산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게 “모모 법사는 포모사에서 6년 동안 은거하면서 아주 힘들게 수행한 데다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힘들게 수행해야만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수행해서 그가 오른 경지가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등급은 또 얼마나 높았는지 나로서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에서 6년, 10년을 은거한다고 해서 성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호랑이도 일찌감치 성불했겠지요. (대중 웃음) 호랑이는 일생을 산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오래 생활합니다. 코끼리·토끼·여우들도 언젠가는 모두 성불하겠지만 동물일 때는 아직 안 됩니다. 여우로 둔갑하자면 수행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산 속에서 은거하며 사람도 만나지 않고 시내에도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성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부처가 되겠습니까? 산山부처가 될까요? 여러분은 인도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굴에서 수행한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내 제자 가운데에도 그곳에 가서 동굴 속에서 수행하고 싶어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동굴을 하나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불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처가 되겠습니까? 동굴인은 되겠지요. 여우는 한평생 동굴에서 살지만 성불은 할 수 없습니다.

동굴 속에서 수행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그것도 개인의 인연을 보고 그 인연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훌륭한 스승이나 큰 복이 없다면 은둔해서 고생스럽게 수행해야 하겠지만, 복이 많아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된다면 집에서 수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마거사도 동굴에 가서 수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가모니불에게도 수많은 재가 보살 제자들이 있었지만 석가모니는 그들더러 달리 뭘 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다들 집에서 수행했어도 좋은 체험이 많았습니다.

선칠 때 『능엄경』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기록된 체험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출가자의 체험이 아닌 재가 보살들의 체험이었습니다. 출가자의 체험도 있긴 했지만 재가자의 체험 또한 많았던 것이지요. 『능엄경』에 언급된 25명의 보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재가자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수행은 반드시 산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가 보살들의 체험 가운데 어떤 보살이 자기 방에 앉아 물을 관하며 수행하다 방안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마침 방문을 연 그의 제자가 방안이 물로 가득한 것을 보고는 “어찌 된 일이지? 왜 스승님 방이 온통 물로 가득한 거지?”라고 중얼거렸지요. 제자는 방안에 돌 하나를 집어던져 보곤 ‘퐁당’ 하는 소리가 들리자 돌이 물속에 떨어진 소리라고만 여기고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 뒤 삼매에서 깨어난 스승은 가슴이 무척 아팠지요. 제자가 던진 돌이 공교롭게도 스승의 가슴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그 보살이 집에서 수행한 것이지 동굴이나 눈이 내리는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에서 수행하는 것도 개인의 인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

다면 정말 불공평하겠지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수행을 할 수 없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는데, 인도인에게만 불성이 있고 포모사인에게는 불성이 없겠습니까? 히말라야 산에서는 찾을 수 있는 불성을 포모사 신디엔의 산 위라고 해서 찾을 수 없겠습니까? 불성은 어느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삼 때 좋은 체험을 합니다. 선삼·선칠은 며칠 동안만 나와 함께 명상하는 것인데도 체험이 아주 좋지요. 어쩌면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높은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개인적인 체험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살이 앉아 있다 하더라도 모를 수도 있지요.

어떤 제자는 선삼·선칠을 하러 오지 않고 자기 혼자 집에서 명상을 하면서 영혼으로 이곳에 와서 나의 설법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삼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지요. 직접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선삼에 참여한 것이나 다름없는 좋은 체험을 합니다.

그녀는 등급이 높아 이곳에 와서 법문을 듣는 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승이 선삼 기간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처리해야 할 집안일이 많아 무척 바빴던 탓에 선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오고 싶은 마음에 영혼으로 참가한 것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불보살과 성인들·큰스승들이 이곳 아쉬람에 온 것을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육안

이 아닌 지혜안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았지요. 그녀의 체험은 선삼에 참가했던 어느 누구의 체험보다도 훌륭했습니다.

그 제자는 나에게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1년 남짓 되었을 뿐이었죠. 나중에 그녀는 내가 선삼 기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했었는지 물었는데,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직접 와서 보지 않았다면 결코 몰랐을 일들이었지요. 참가했던 사람들조차도 몰랐던 일을 그녀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성심껏 수행한다면 아주 빠르게 진보할 겁니다. 반드시 동굴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굴에 가서 수행한다면 동굴인이 될 겁니다. (대중 웃음) 그러므로 수행은 산에서 6년, 10년, 20년을 은거하며 고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인연에 따른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수행해야 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뭔가를 성취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래로는 밥을 지을 수 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법문과 훌륭한 안내자, 즉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졌다면 어디에서 수행하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성심껏 수행한다면 어떤 법문을 수행하든 다 복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복은 세상의 복이지 궁극적인 해탈을 위한 복은 아닙니다. 결과가 다르지요. 좋은 스승과 좋은 법문이 있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세속의 재물과 지위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꼭 버리지 않더라도 여전히 해탈할 수 있지요. 반면에 좋은 스승과 좋은 법문이 없다면 동굴에서 아무리 고행하면서 힘들게 수행한다 해도 공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세속의 복을 짓는 것일

뿐 해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옷이나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고행한다고 성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부처는 재물로 살 수 있는 것도, 뇌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돈을 헌납하고 수많은 소원을 빌며 수많은 재산을 버린다고 부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고행을 하면 고행자가 되고, 동굴에서 수행하면 동굴인이 될 뿐입니다. (대중 웃음)

원숭이는 모두 산에서 살지 시내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산은 오염되지 않아 공기가 맑고 깨끗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배하러 산을 찾던 목적이 이젠 산에 대한 숭배로 바뀌어 버렸지요. (대중 웃음) 광친 노스님은 광친 노스님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산에 참배하러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건강해질뿐더러 성심껏 한다면야 약간의 복까지도 생기겠지요. 하지만 궁극적인 해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원래 출가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센터에 와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녀가 산에 참배하러 가겠다고 하기에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도 그녀는 산에 가서 불공을 드려 더 많은 복을 쌓아 좀더 안정적으로 출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산에 가서 불공을 드리더니 결국은 환속해 버렸습니다. (대중 웃음) 출가도 하기 전에 달아나 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건가요? 산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이 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째서 출가하지 않고 환속했을까요? 이 사람들(스승님의 출가 제자들을 가리킴)은 산에 가서 불공을 드린 것도

아닌데 출가해서 지금까지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산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이 진정 복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곳(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심)에서 참배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산·물·부처·천당·지옥에 참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고 우주의 가장 위대한 중생이므로 산에 참배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이 비밀을 알려 줘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 줘야 합니다. 큰스승은 시방 삼세불을 대표하는 살아 있는 부처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말을 들으면 모든 복을 다 얻겠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시방 삼세불에게 참배를 해도 아무런 복이 없으며, 여러분을 제자로 받아 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에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스승의 생각보다 낮고, 스승이 말한 것은 아무 의미도, 쓸모도 없으며, 난 이걸 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내'가 스승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 내 생각대로 해야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자그마한 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복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스승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업장이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스스로 장애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흘러가는 물을 돌이나 나무로 막는다면 물은 흐르지 못할 겁니다. 집에서 물을 쓰려고 해도 물이 아주 조금만 나오겠지요. 이처럼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상류에서 돌이나 나무로 막아 흐르지 못하게 한다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다에 가려면 배를 타야 하고 산에 올라가려면 슬리퍼가 아닌 튼튼한 등산화를 신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끄러지거나 뜻밖의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독약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끔 우리는 독약을 마시는 줄 모르고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독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장애이지요. 그야말로 병이 나거나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우주의 법칙을 몰라서 어떤 일을 하든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몸이나 정신 또는 영혼이 곧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혼을 ‘지혜’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본래면목’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걸 가리키지요.

참 스승은 변호사와 같습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법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 내용을 모두 알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변호사에게 묻거나 전문가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수행도 그렇습니다. 우주 자연의 법칙은 너무도 방대하여 우리가 그 전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스승이나 깨달은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의 법칙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변호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경찰이 나를 단속하러 온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법을 어기지 않게 되는 거죠?”라고 물으면 변호사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 줄 겁니다. “당신이 전에 했던 일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제 제 말대로 한다면 경찰이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법칙이나 현상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 그것을 알려 줄 깨달은 법사나 큰스승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오고 노자나 예수 그리스도 등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법칙을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더욱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큰스승들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불 역시 무슨 새로운 교리를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보통 법사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대 경전을 강독하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붓다Buddha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붓다란 깨달은 큰스승이란 뜻입니다. 중국어에서는 붓다를 뜻으로 번역하지 않고 소리로 번역해서 포투어(佛陀)라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석가모니불을 붓다라고 부르는데 이는 박사나 변호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의 호칭일 뿐입니다. 그가 붓다(불타)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 배우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인(Buddhist)이 됩니다. 불교인이라는 용어도 불타라는 호칭에서 온 것이니, 석가모니불이 어떤 새로운 종교 이론을 펼쳤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무슨 새로운 이치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교리만 가르친 게 아니라 법, 즉 이 힘도 전해 주었습니다. 경전에는 교리는 있으나 이 힘은 없기 때문에 그는 옛 가르침을 먼저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법, 즉 이 힘도 함께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면서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지요.

혜능과 보리달마도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이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이 자신의 스승을 매우 존경해서 “나는 불교인이다.”라고 말했던 것뿐이지요. 그건 바로 부처를 따라 배운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불이 가장 유명했던 까닭에 오늘날 부처를 언급하면 으레 석가모니불을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실제로 부처는 대단히 많습니다. 무릇 크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처입니다.

부처든 예수 그리스도든 그들은 한결같이 업장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어떤 원인을 심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뿌린 대로 거두리라(As you sow, so shall you reap).”라고 했습니다. 예수도 부처와 마찬가지로 업장과 인과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과가 전부 업장인 것은 아닙니다. 인과란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얻고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흔히들 말하지요. 그러나 업장이란 특별히 나쁜 인과를 말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살인이나 도둑질을 했다면 조만간 보복을 당하거나 경찰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인과가 전부 업장인 것은 아니지요. 좋은 인과는 ‘복’이라 하고 나

쁜 인과는 ‘업장’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접해 보지 않아 업장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업장이란 바로 나쁜 일을 한 업보이며 나쁜 결과를 말합니다.

이러테면 여러 해 동안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시다. 이제 아주 좋은 기회를 얻어 명상을 하려 하는데,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탓에 명상이 어렵고 체험이 적으며 진보가 느리다고 한다면 이를 일컬어 바로 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장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전에 마셨던 술의 영향에서 옵니다. 술로 인한 나쁜 영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과거의 업장, 나쁜 결과라고 합니다. 업장과 나쁜 결과는 같은 말입니다.

산에 가서 참배하는 것이 쓸모가 있을까요? 그건 광친 노스님의 복을 흠치는 것입니다. 자신은 복을 짓지 않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복을 흠칠 생각만 하는 것이지요. 대수행자는 무궁무진한 복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좀 흠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나를 찾아와서는 1시간 동안 나를 보고 나의 복을 흠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흠치면 흠칠수록 나는 복을 더 쌓게 되니 복이 다 떨어져 줄 게 없을까 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행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돈(복)을 벌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업장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마련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세생생 지은 수많은 원인 때문에 수많은 결과가 생겨났는데 지금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길을 모르니 우리를

안내할 큰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쉽게 벗어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만 의지한다면 떠날 수 없습니다. 이미 늪에 빠져 버렸기 때문에 발버둥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 들게 됩니다. 인생은 꿈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깨어나질 못합니까? 꿈이란 본래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큰 꿈에선 깨어나질 못하고 있을까요?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꿈의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깨어난 사람을 우리는 ‘연각불’이라고 합니다.

많지는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홀로 수행하여 이 세계가 한바탕 꿈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런 등급을 얻고 난 후에는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부처라 불리는데, 연각불 혹은 독각불이라고 하지요. 독각불은 완전히 자신에게 의지하여 해탈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제도하지는 못합니다. 제도한다 해도 겨우 두세 사람에게 불과하지요.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해도 법을 전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전해 줄 만한 진정한 법문이 없으니까요.

시방 삼세제불이 다 큰스승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큰스승이나 살아 있는 부처의 가르침이 바로 시방 삼세불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큰스승 한 분에게 절하는 것이 시방 삼세불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시방 삼세제불에게 절을 해야 한다면 어느 세월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심껏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도 약간의 복이 있기는 하겠지만 쓰기에 충분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달은 스승을 따르며 그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고

배운다면, 그것이 바로 최대의 복을 쌓는 일이며 시방 삼세불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복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입문 후에도 여전히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바꾸거나 세속의 생활을 버릴 필요 없이 여전히 일을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업장이 다릅니다. 산에 가서 절을 해야 복을 쌓게 되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인과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나는 그 사람더러 산에 가서 절을 하라고 하지요. 불상에 절을 해야만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불상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마다 상황은 달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따르기만 한다면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로 한다면 아무런 복도 없을뿐더러 업장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지나다니는 길에 바위를 갖다 놓아 보행자들에게 지장을 초래하고 그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업장이 존재하고 인과가 있어서 어떤 인을 심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과를 얻기도 하겠지만, 우린 그 인과의 등급 또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인과는 어디에서 옵니까? 가령 신이 존재하여 인과의 법칙을 창조했다면 이 ‘인과율’은 여전히 그의 손에 달렸으므로, 우리가 ‘신’이나 ‘조물주’ 또는 ‘본래면목’을 찾았을 때 인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고대 군주국가에서는 왕이 최고의 권력을 대표했습니다. 만일 왕이 농부의 아름다운 딸을 사랑하여 결혼했다면, 그녀의 부모가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라 할지라도 딸이 왕비가 되었으니 그들은 석방될 것입니다. 왕이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으니깐요. 그 당시에는 왕 자신이 법을 만들고 고쳐도 감히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설사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대신이 있다 하더라도 왕이 최고의 힘을 대표하고 법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 법률과 인과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최고의 힘, 즉 우리의 본래면목과 통하고, 대자대비하고 대응대력大雄大力한 이 영원한 힘과 통한다면 인과와는 인연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업定業도 조금은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든 예를 다시 보면, 그 농부의 딸이 이미 왕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이 감옥에 전달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왕의 사면령이 전달되고 그들을 맞이하러 보낸 전용차가 도착하기 전까진 그들의 지위가 어떻게 감옥에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얼마간의 시간이 바로 ‘정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입문하고 나서 이미 5대가 천도되었고 우리 자신 역시 해탈했다 하더라도 때가 되어 전용차가 와서 우리를 싣고 떠날 때까지 우리는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곧바로 왕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하지요. 부모·남편·아내·자식 등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한 후에야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업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편안하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이미 석방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죄인과는 달리 이미 석방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용차

가 와서 데리고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지요.

감옥에서 기다리는 동안의 생활이 궁전에서 편히 지내는 생활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유롭습니다. 감옥엔 감방 외엔 다른 곳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잠시 그곳에 머무르면서 여전히 죄수복을 입고 감옥의 음식을 먹으며 죄인이 사는 곳에서 살아야겠지만 다른 죄인과는 달리 좀 있으면 석방될 것이고 집에 돌아가 왕의 친척이 될 것입니다.

평범한 한 백성의 딸이 왕비가 된 후에는 일가족이 모두 귀족의 지위로 상승되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관계가 소원했던 먼 친척들도 이를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느끼지요. 그들은 자랑스럽게 “내 친척 아무개가 지금의 왕비야.” 라고 말할 겁니다. 이처럼 함께 살지 않는 먼 친척의 지위도 상승되며, 많은 사람들조차 자신들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심지어는 친구들까지도 더불어 영예롭게 느끼거나 신분·지위가 올라가는 등 영향을 받게 되지요.

입문의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입문 후에는 여러분 개인에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전체에게도 복이 있고 5대에게도 천도와 더불어 복이 있습니다. 게다가 친구를 한번 생각하기만 해도 그들 역시 복을 받게 되지요.

입문한 사람은 이미 해탈했습니다. 농부가 이미 석방된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농부는 감옥에서 궁궐까지 가는 동안 그리 편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이었던 터라 몸은 지치고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

져 있을 테고, 궁궐까지 가는 길 또한 수월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궁궐에 도착하게 되면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입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문한 후에도 생활은 여전히 예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나아질 뿐 썩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원래 좋은 일이란 게 없으니까요. 잠시 후 우리가 집, 즉 서방 극락정토나 불국토로 돌아가게 되면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리 즐길 만한 것이 없지요. 우리는 돌아가는 길이 평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고급 비행기를 탄다 해도 피곤함을 느끼고 집에 있는 것만큼 편안하지 않을 테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농부 역시 궁궐로 가는 도중에는 다른 행인들처럼 걸어야만 합니다. 설령 마차를 탄다 하더라도 노상의 다른 마차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행인들과는 달리 그의 목적지는 궁궐입니다. 우리 입문자들도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일하고 가정과 아이를 돌보겠지만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는 곳은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는 것 같겠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오늘 어린 소녀 한 명이 입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처음 그녀를 데리고 와서 강연을 들었을 때 그녀는 아주 집중해서 들었을 뿐 아니라 손을 들고서 성불하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여섯 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난 바보가 아닙니다. 아이라고 다 입문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아이들이 다 입문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른들조차도 입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입문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녀는 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입문을 원했지요. 그녀는 전생에 수행을 했던 까닭에 어른들보다도 훨씬 총명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대신해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이 역시 이번 생만이 아니라 세세생생 윤회를 했으니까요. 어떤 아이는 큰 아이(어른)보다도 훨씬 총명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천재나 신동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어른들은 모두 “우리는 이미 성장했으니 스스로 입문을 결정할 능력이 있지만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그러니 다 자란 후에 결정하도록 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를 대신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결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어쨌든 자신의 결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은 여전히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아이보다도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남편이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수행을 하여 지혜롭고 덕망이 있다면, 그때는 자신의 결정이 좋은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의 아버지는 수행은커녕 고기 먹고 술까지 마시면서 아이의 입문을 막고 부인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설법을 들으러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나 남편이라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남이 도덕적인 일을 하려는 데 방해하는 것은 자신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비슷한 예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수행을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이 수행하여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는데 오히려 “너는 어린아이에 불

과한데 어떻게 좋고 나쁜 것을 가릴 수 있겠느냐?”라며 여러분의 수행을 막는다고 합시다. 단순히 아버지의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그 한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은 지혜와는 무관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린아이보다 총명한 것은 아니며,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자식보다 총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는 예전에 자기 부인이 수행하는 것을 싫어해서 “당신이 수행한다면 이혼하고 말겠소.”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는 또 “아이가 아직 어려서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자기 부인더러 수행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마 부인을 아이로 본 건 아니겠지요? 그 사람의 결정은 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물론 자신의 결정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지요. 설령 좋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진정한 호의는 아니며 ‘무지’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총명해지는 걸 원치 않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치를 배운 뒤에 부인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까 봐, 아이가 자기보다 잘 배울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배우지 않는 것은 업장이 무거워 수행할 마음이 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부인이나 아이더러 많이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기적이지요. 부인이 집에서 얌전히 밥이나 짓고 양말이나 빨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인에게는 약간의 자유도 주려 하지 않고, 아이는 자기보다 멍청하게 되길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비교적 통제하기가 쉽거든요. 만일 아이가 너무 총명해진다면 곤란해지겠지요. 아버지인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이건 이기적인 것이지 호의가 아닙니다. 호의라면 내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호의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편은 수행하고 싶어하는데 부인이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밥도 해주지 않고 심하게 압박을 가해 어떻게든 수행하는 것을 막아 보려고 하지요. 우리 제자 가운데도 그런 부인을 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들만 수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처럼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나마 자유로운 편이지만, 결혼한 후에는 서로를 얽어맷니다. 미혼일 때는 서로 자유롭지만 결혼한 후에는 상대방의 노예가 되지요. 무슨 일이든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어떻게 이 정도까지 변할 수가 있지요? 결혼을 하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불만이 있을 때는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싸우고 폭력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혼은 해서 무엇 합니까? 이런 남편이나 부인은 좋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라고 할 수밖에요.

좋은 친구라면 상대방이 즐거워야 자신도 즐거운 법입니다. 친구가 공놀이를 좋아하면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친구가 운동장에서 공놀이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여러분도 이를 함께 나누려 할 겁니다. 그래야 좋은 친구이지요. 어떻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못 하게 하고, 부인이 집에서 ‘나’를 위해 시중들고,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기만을 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니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할 일을 다 하고도 여유가 생긴다면 부인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 또는 동료수행자와 얘기하며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지 날마다 퇴근하자마자 곧장 귀가해야 한다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일찍 귀가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부인을 좀더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인이 하려는 일이 나쁜 일만 아니라면 해도 괜찮은 겁니다. 부인이 밖에 나가 시비나 일으키고, 도박이나 하며, 술이나 마시고, 춤이나 추는 것보다는 낫지요. 설법을 들으러 가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아내는 가장 훌륭한 아내입니다. 명상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게 뭐가 나쁘니까? 왜 못 가게 하는 건가요?

천주교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도덕과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풍조가 없는 포모사에서는 이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려 해도 쉽지 않지요. 반드시 부모나 조부모의 견해를 먼저 물어야 하는데,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포모사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한 일이다 보니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천주교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렇지요?

불교는 비교적 민주적이라서 아이들에게 억지로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가르치려 해도 쉽지가 않지요. 내가 나중에 신분을 바꿀 수 있다면 천주교 수녀가 되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훨씬 쉬울 테니까요. (대중 웃음) 수녀나 신부가 하는 일은 뭐든 당연시되는 터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대로 따릅니다. 이렇게 되면 가르치기가 좀 수

월하지요. 불교는 너무 민주적이라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려면 직접 찾아가 간청하고 절을 올려야 할 정도이지요.

이 세상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 해탈 외에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고 해도 아이의 장래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스승만이 보장해 줄 수 있지요. 그렇다면 누가 더 낫습니까? 누구의 결정이 더 옳을까요? 독일에 친구이자 동료수행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수행은 하지 않고 고기 먹고 술 마시는 걸 즐겼습니다. 비록 나의 스승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수행은 하고 싶어하지 않았지요. 이것은 그 사람 개인의 업장입니다. 자신이 수행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내와 아이가 수행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훗날 그 친구는 남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입문했으며, 나중에는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입문시켰습니다. 아이가 입문하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 아이는 나의 스승에게 법을 전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분도 아이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되는 사람도 평소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결코 아버지에게만 발언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밖에 나가 힘들게 돈을 벌었다 해도 그 어머니 역시 돈을 벌면서 아버지보다도 더 힘들게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일까지 해야 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지요. 아버지만 돈을 벌었다면 발언권이 좀더 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 어머니의 경우는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아이도 데려오고

남편과 아이의 웃도 빨며 온 가족이 먹을 밥도 해야 했지요. 상황이 그런데 아버지 된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일하는 것 외에 무얼 더 분담한 게 있던가요?

이미 결혼을 했다면 이혼하지는 마십시오. 이미 결혼을 했는데 이혼은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결혼이란 친구를 하나 얻은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 어떻든 간에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 나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혼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인의 마음씨가 곱다고 독재를 해서 안 됩니다. 그 아이와 엄마는 그런 가정이 없더라도 변함없이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최선은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해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죽고 나서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왜 나는 남자가 그녀는 여자인지 등의 이런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 결혼을 한다면 그건 자신을 옳아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는다고 불효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도란 무엇입니까? 첫째,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그들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풍족한 음식과 의복, 편안하게 살 장소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해탈의 이치를 깨달았다면 집에 돌아가 이를 말해 줌으로써 그들도 그런 복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無上의 복이며, 작고 유한한 복이 아닌 최대의 큰 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결혼을 해야만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결혼을 했어도 자식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한다고 다 아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이가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리란 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만일 아이가 밖에 나가 제멋대로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 계신 동안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은 것을 아주 마음 아파한다고 합시다. 이때 여러분이 결혼한다면 그들은 아주 기뻐하겠지요. 그러나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애야,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고 나면 매우 고통스럽단다.” 하고 알려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아들을 수 없겠지요. 진정 효성스러운 자식이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크게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지, 꼭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조 혜능은 위대한 선사였습니다. 독자였던 그는 출가하기 전 나무를 해서 연로하신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떤 사람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선 수행하여 크게 깨달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왜 우리의 인생은 백 년도 채 못 되는가? 왜 천 년, 이천 년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왜 인생이 그토록 짧은 것인가? 왜 사람이란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스승을 찾아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스

승을 찾아가 도를 구했을까요? 그때 마침 한 친구가 돕겠다고 나서며 그에게 충분한 여비도 주고, 사람을 구해 어머니를 돌봐 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의연히 도를 구하러 떠났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가장 유명한 선사가 되어 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혜능 대사처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결혼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손자를 안겨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인도에 가서 스승을 만나 수행했으며, 나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큰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이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최고의 보은은 견성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다른 친척들까지 제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복이 있지 않고선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 틀림없이 천당에 가리란 보장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만일 여러분이 살인이나 강도 같은 나쁜 일을 저지른다면 여러분의 부모도 이에 연루되어 복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수행을 잘해서 복덕을 갖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부모는 곧바로 천도되어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 죽은 후에 아주 고통스럽고 고독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구해 줄 사람이 없어 지옥에 갈지도 모르지요. 죄를 조금밖에 짓지 않았어도 지옥을 벗어날 길이 없어 대단히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법칙은 대단히 엄중하고 강경하여 인정이나 자비 같은 것을 전혀 따지지 않으니까요.

독신일 때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어디를 가려 해도 불편하고, 아이라도 생기면 갈수록 더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신의 염원에 달려 있으니 결혼하고 하지 않고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양친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형제자매도 이미 다 가정을 꾸렸다면, 이때가 바로 여러분에게도 전심전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부모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자 효심을 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자기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부모의 입장까지 짚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말하건대 결혼은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총명한 일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늘 울기만 합니다. 자식이 불효하기 때문이지요. 밖에서 사고를 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부모와 언쟁을 합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타일러도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라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처럼 자식이 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세생생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자식으로 와서 원수를 갚으려 하니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행자가 가정을 가지면 좀 고생스럽습니다. 부부가 동료수행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래도 많은 괴로움이 생길 겁니다. 남편이나 부인이 수행을 못 하게 막는다든지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등 배제할 수 없는 번뇌들이 언제나 산재해 있지요. 결혼은 정말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먹는 것도 간단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입는 것도 아주 검소하여 옷 두 세 벌로 번갈아 입습니다. 밥도 많이 먹어야 두세 그릇이며 남는 시간은 수행하고, 경전을 보고, 일하고, 잠을 잡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불 · 예수 그리스도 · 노자에게서 배워 고대의 성인들처럼 자신의 부모나 가족만이 아닌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구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이런 생활이 높은 이상을 지닌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한 가정을 제도할 뿐이지만 결혼하지 않고 출가하면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니 훨씬 의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출가 생활이 매우 즐겁다고 느끼는 터라 여러분이 왜 출가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결혼하고 안 하고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만일 내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결혼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나의 충고를 듣지 않고 결혼한 후 달려와 울고불고 하소연하면 나도 정말 괴롭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결혼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그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선 결혼하더니 늘 눈물짓고 살면서 내게 달려와 원망하고 하소연하기에, 나는 그러기에 애당초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도 왜 말을 듣지 않았느냐면서 지금은 때가 너무 늦었으니 원망해 봤자 소용도 없고, 이미 아이도 있으니 갈수록 더 골치만 아플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비록 아주 고약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가족이니 그 아이를 바닷속에 던져 버리고 돌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좋은 나쁜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함께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이가 있는데 이혼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테니까요.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제발 결혼하지 마십시오. 결혼하고 1, 2년이 지난 후에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때는 아이도 있고 감정도 생겨 헤어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5장

은신술

5장

은신술

1986. 9. 28. 포모사 타이베이 신디엔

어제 나는 여러분과 신통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아직 기억합니까? 우리가 신통을 탐한다면 거기에 머무르고 맙니다. 비바람을 부르고 산과 바다를 옮기며 콩을 던져 병사를 만드는 일 등은 아주 재미있기 때문이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플라스틱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큰 차를 사 준다 해도 싫다 하고 손으로 미는 자신의 조그만 장난감 차를 좋아합니다.

신통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통이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통을 가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큰스승들은 모두 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과에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스스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이를테면 말린 간두부나 두부 같은 매운 음식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그렇다고 어린아이에게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만일 억지로 먹인다면 아이는 소화시키지 못하고 우유를

마시려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면 도울 수 있지만 그들이 원할 때 도와야 합니다. 원치 않으면 돕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을 원한다는 것은 이미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자신이 해탈하고자 할 때 비로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수행의 등급이 제2세계에 도달하면 과거·현재·미래의 인과를 알 수 있고, 제3세계에 도달하면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제4세계에 도달해서야 진정한 신통의 세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4세계부터는 진정한 신통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아의 신통으로서 모든 불보살들은 어디든 원하는 곳에 화신을 나탈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느 곳으로 화신을 나투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인연이 있는 중생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즉시 그곳으로 화신을 나투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진정한 무아라서 어느 곳이든 다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통을 잘못 사용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자신을 팔아 버릴 수도 있지요.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도 같아서 급기야는 마왕의 나라에 귀화하여 마왕의 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해서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왕밖에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행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통을 잘못 사용하면 자신에게 많은 재난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통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그렇다고 그가 꼭 최고의 스승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고의 스승은 신통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아는 것

만으로 만족할 뿐 신통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타심통·숙명통·신족통 등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아쉬람에 올 때마다 내가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렵고 창피해서 감히 나에게 다가오지 못할 겁니다. 나의 제자인 여러분이야 이제는 좀 이해할 테니 그렇게 부끄러워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막 왔거나 갓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내가 자신들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모두 말해 버리면 백 년이 지나도 감히 스승을 보러 오지 못할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이 더 많으니까요.

사실 나 역시 중생의 잡다한 일들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나로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좋고 나쁜 것은 모두 중생의 관념이지 불보살의 관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타심통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는 신통은 모두 어린애 장난이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수행해서 제1세계나 제2세계에 도달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포모사에는 병을 고치는 종파들이 아주 많습니다. 타이중이나 타이난에도 이런 종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21자로 된 신주(神呪)를 외우고 신상을 모시며 사람들의 병도 치료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2세계의 등급일 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병을 고쳐 주면 일주일 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물론 재발하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병을 고칩니까? 오늘은 병이 없다 해도 내일 또다시 병이 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채식을 권하지도 않으며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라고 합니다. 물론 삼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마왕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환영하며 “OK! 상관없어요.”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아이를 돌볼 생각이 없는 부모라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만 놓고는 그 아이가 배우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총명하게 되든 우둔하게 되든 상관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모는 분명 엄격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자식이 총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아이가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고 좀더 노력하도록 보다 엄격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스승님을 따라 배우려면 왜 꼭 채식을 해야 합니까?”라고 불평합니다. 채식은 원래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호랑이나 야수가 아니니까요. 채식은 아주 간단한 일인데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은신술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은신술이라는 것이 왜 있을까요? 사실 은신술도 별게 아닙니다. 몸을 숨길 때 몸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이지요. 왜 보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 몸의 세포가 모두 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내 몸 속에 있

는 세포 원자의 진동 주파수가 곧바로 그 사람 세포 원자의 진동 주파수를 따라 동일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존재를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몸을 감추고 싶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힘, 최고의 힘, 부처의 힘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수행해서 그 등급에 이르게 되면 그 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을 감추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몸을 숨겨야 합니다.'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그 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이 높은 스승일수록 더욱 겸손합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주의 힘이 한 일이며, '나'는 단지 그 힘의 일부로서 약간의 힘만 사용할 따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부분 역시 전체입니다. 이 컵 속의 물을 시냇물에 붓는다면 그 물 또한 시냇물의 일부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물은 다른 물과 통할 겁니다. 그러니 컵 안에 있던 물이 시냇물이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수행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최고 힘의 일부가 됩니다. 이 우주의 힘과 통하여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부와는 다릅니다. 큰스승들은 '내가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곧바로 천국에서 내려와 자신을 위해 일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처럼 대단하지 않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의 수행이 좋지 않고 복이 많지 않았다면 그 큰 힘의 일부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그가 기도하자마자 아버지가 곧바로 내려와 돕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은신술은 비록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의 수행 등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신은 화신과 같은 상황입니다. 화신 역시 자연스레 나투는 것이지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나'는 화신을 나투어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고이며 여전히 마왕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화신'은 자동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즉시 나투어집니다. 한 예로 지금 어떤 사람에게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스승의 화신은 즉시 그를 구해 줄 것입니다. 스승이 그걸 조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승이 이미 그 힘이 되었으니까요. 마치 태양처럼 말입니다. 태양을 보고 싶을 때는 문만 열면 태양이 나타나지요. 태양의 출현은 자동적인 것이지 태양이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으므로 태양을 보고 싶다면 문만 열면 즉시 빛이 비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태양이 '오늘은 이 집을 비추고 내일은 저 집을 비추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면 대단히 바쁘고 피곤하겠지요.

그래서 작은 신통을 사용한 후에는 무척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두뇌를 사용해서 먼저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그린 후에야 한두 개의 화신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큰 신통은 공기처럼 자동적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기는 즉시 오지요. 누군가가 공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전 자동이지요. 이것이 바로 무아의 신통입니다.

수행이 제4세계를 넘어 제5세계에 다다랐을 때 이런 무아의 신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스승님은 신통으로 화신을 나눌 수 있으니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데, 사실은 ‘나’에게 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일들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불보살은 자신이 불보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만일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불보살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러저러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진정한 불보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불보살은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본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큰 힘의 일부분으로서, 큰 힘으로부터 화신을 나누어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일 뿐,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영원히 존재하고 무엇이든 다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든 다 줄 수 있습니다. 이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언어로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것은 본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지요. 중생을 제도하지만 또한 제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호흡하는 것보다도 더 자연스럽지요. 호흡은 우리가 이따금씩 의식할 수도 있으니까요. 본래는 호흡을 의식하지 않지만 때로 의식하려고 하면 의식할 수도 있고 길거나 짧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이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중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곧 실현되므로 스승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범부의) 나와 그(화신의) 나는 또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화신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이 스승의 화신만을 보겠습니까? 조물주는 특징인을 선택하여 부처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성불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듯이 말입니다. 정말로 단순하고 예고가 없는 사람이야 이 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다지 이롭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안에 산해진미를 담는다고 해도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설령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제맛을 낼 수는 없는 데다 충분히 깨끗하지 않다 보니 약간의 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모래가 씹히지? 맛이 없어!’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이는 음식 탓이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힘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단순해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나 에고가 없어야 비교적 좋지요.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 은신을 할 때 자기 세포 원자의 진동 주파수를 상대방의 진동 주파수와 같게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럿 있는 곳이라면 한 사람에게 진동 주파수를 맞추어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다 쳐도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모습이 보일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파수가 이 사람과는 같지만 저 사람과는 다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알고 있나요? 이것은 낮은 등급의 은신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등급의 은신은 은신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파수를 아주 높게 올려 범부의 눈으로는 볼 수 없게 합니다.

예컨대 사방 곳곳에 사람들이 있을 땐 어떻게 은신을 해야 할까요? 그럴 땐 모든 방향에 따라 신체의 진동 주파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곳에서 저 사람을 보면 진동 주파수를 저 사람에게 맞추고, 이곳에서는 곧바로 이 사람의 진동 주파수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나타난다 해도 아무도 여러분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가까이 다가온다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은신을 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다가올 때는 좀 비켜서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존재를 느낄 겁니다. 만일 그 사람과 부딪힌다면 그가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체계가

깨어나니까요. 이 범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깨어나면 은신의 회로는 곧 끊겨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은신술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이 없지요.

Q: 은신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신체는 여전히 존재합니까?

A: 신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얼굴도 그대로이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얘기한 것은 진짜 은신입니다. 이것 외에 또 다른 은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주 평화롭고 부드러운 기운을 갖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볼지도 모르지만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운을 어지럽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일 조금 전 우리가 명상할 때 흥분한 사람이 들어와 마구 시끄럽게 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의 존재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자마자 곧바로 뒤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명상하고 어떤 격정적인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아주 평온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기운이 비슷해서 다른 사람의 기운을 어지럽히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갔을 때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염불만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느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입을 열면 곧바로 우리의 존재가 알려지지요.

그러므로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 진동이 생기

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를 흥분시키지요. 무슨 말이건 하게 되면 진동이 생깁니다. 원래는 평온한 상태의 진동이었는데 말을 하고 나서 어지러워지는 까닭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급기야는 서로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비교적 격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그 힘이 우리 몸에게까지 작용하여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은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일종의 은신술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따금 큰 파티에 참석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이 저마다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용히 들어간다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바로 앞을 지나가도 못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얘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데다 우리 또한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이와 같아서 갈수록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수행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싶어하지요. 어떤 분위기에서든 수행자는 흥분하지 않는 데다 수행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누구든 그와 가까이했을 때는 편안함을 느끼는 데 반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늘 방해받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등급이 높은 수행자는 사람들을 간섭하지도, 그들의 기운을 어지럽히지도 않기 때문에 모두들 아주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아무개는 부드러운 사람 같아. 그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가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무슨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지요. 그것은 그가 가진 내적 기운이 너무나 격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설령 손을 들어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어도 내면의 생각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어 막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상대는 불편함을 느끼고 병이 나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흑신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먼 곳에서 생각으로 사람을 해칩니다. 부적이나 신통을 사용한다든지 사진이나 머리카락을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먼 곳에서 자신의 나쁜 생각으로 상대방을 해치지요. 꼭 가까이 있어야만 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구의 모두 중요합니다. 몸을 써야만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긴 마찬가지여서 몸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사람을 때린다면 상처야 좀 입겠지만 약을 발라 주거나 한동안 보살피 주기만 한다면 곧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영체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신체라서 손상되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도 모를뿐더러 치료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수행하거나 좋은 스승을 만나 일정 기간 보살핌을 받는다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신체처럼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반응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고 합시다. 정말로 화가 나

서 때려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고 매일 생각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때리려고 했던 그 사람은 정신병을 앓거나 마음의 평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그 이유도 모른 채 말이지요. 생각으로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신의 친구의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Q: 스승님, 어떤 책에서 보니 은신술을 수련하는 인도인들 가운데 등급이 여전히 삼계 내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낮은 법문으로도 은신술을 수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A: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통일 뿐이어서 보통 사람들도 수련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수행이 아직 제1세계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련할 수가 있지요. 은신술은 일종의 기술이므로 당연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통으로는 궁극적인 해탈을 할 수 없습니다. 최면술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기 먹고 술을 마시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어제 내가 얘기했던 제2세계나 제3세계의 신통은 모두 자연스러운 신통입니다. 수행을 한 후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신통들이 생기는 것이지 일부러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우리가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어느 경지에 이르렀을 때 자연적으로 그러한 신통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원하는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까?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신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일부러 신통을 찾

고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수행이 제1세계에도 이르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삼계를 벗어나겠습니까?

Q: 만일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은신술을 수련한다면, 그 은신의 힘이 우주의 자연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A: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쁜 힘이든 좋은 힘이든 모두 우주에서 온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전기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전기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힘일 뿐, 그것으로 무엇을 하건 그건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기로 사람을 해치는 일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로는 불을 밝히거나 사람을 도와야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자유 의지에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이 나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같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있다고 한다면 오로지 선한 신통입니다. 그는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다 우리 자신이 초래한 일입니다.

Q: 스승님, 부처의 천안통은 어느 경지에 있는 것입니까?

A: 제1세계에도 천안통은 있습니다. 외국에 한 거사가 있는데, 그는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투시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안다면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지요. 제

1세계에서도 이런 신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불교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인데, 신통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더러 억지로 불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니, 아직은 분별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Q: 그 거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제도하는 방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A: 만일 석가모니불이 그렇게 했다면 전세계가 그를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신통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목건련에게는 신통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목건련이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신통을 펼쳐 보이며 자신의 스승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말할 때마다 부처는 그를 꾸짖기만 했지요.

Q: 그 거사는 또 어떤 스님이 병원을 짓는 것도 돕고 있다는데, 그 공덕은 무량한 것입니까?

A: 무엇이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곳은 자유국가이니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지요. 병원 하나 짓는 것은 대수로운 게 아닙니다. 미국인들도 수많은 병원을 지었고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디넓은 세상에 병원 하나 짓는 게 뭐 그리 대수겠어요? 병원은 사람들의 무상한 육체만을 잠시 구할 수 있을 뿐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대

단한 일로 만들어 버렸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지은 병원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양무제는 많은 절을 지어 수많은 출가자들에게 공양을 했는데도 달마대사는 그에게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병원 하나 짓는 것을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병원을 지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훌륭한 일이겠지만, 명리나 공덕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Q: 스승님께서서는 방금 나쁜 힘이나 좋지 않은 생각이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아무개의 목을 조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려 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A: 그렇습니다. 예감이 있습니다. 뚜렷한 느낌은 없을지 모르지만 상대에 대해 몹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정말로 목이 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단지 감정이 작용해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매우 화가 날 때는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졸리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하는데, 그것은 분노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해친 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Q: 그러나 명상할 때는 화가 나지 않겠지요?

A: 당신이 전에 어떤 법문을 수행하고 어떻게 명상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전에 불질을 할 때였습니다. 매번 명상만 시작하면 저와 다른

세 사람이 동시에 무엇인가에 심장이 놀리는 듯하고 목이 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수행을 가르쳐 준 스승의 힘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매년 포행 布行(역주: 좌선을 하기 전에 하는 일종의 걷기 운동)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수인手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힘입니다. 마의 힘이지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밀종에도 수인이 있습니다.) 있지요. 하지만 석가모니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후대로 오면서 복잡하게 변했지요. 물론 수인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낮은 경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슨 수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곳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이따금 자고 싶어하면서 말이지요. 그래도 여러분은 아주 좋은 체험을 하며, 흥분하고 편안해져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나는 어떤 복잡한 방법으로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어떤 격동적인 일을 해야 한다거나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좋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자연스레 생성된 것이지 누가 특별히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힘이 무엇인가를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연적인 힘이야말로 최고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유형의 것들은 다 음색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금강경』에 “만약 색으로 나를 보고 소리로 나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며 여래를 볼 수 없다(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라고 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종에서는 자기들의 수행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내가 그들이 한 말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대수인大手印은 궁극적인 것입니까?) 누군가 수행하여 제1세계에 이르면 그는 자신이 가장 높다고 말할 겁니다. 그는 “이곳이 가장 높은 신의 경지이다.”라고 말하겠지요. 그의 수행이 제2세계에 이르면 그는 또 “이곳이 최고의 경지이다.”라고 말할 것이고, 제3세계에 이르렀을 때는 “범천이 가장 높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제4세계, 제5세계, 제6세계, 제7세계, 제8세계, 제9세계 등 더 높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천엽연화千葉蓮花의 세계에 이르면 가장 높은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십 년간 고행을 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천엽연화의 세계에 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천엽연화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높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갓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과 논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어제 나는 제1세계에 가면 이른바 대수행자라는 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모두 잊었습니까? 모두 귀담아듣지 않은 것 같군요.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우익藕益 스님은 이미 제 몇 세계에 이르렀지만 자기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살아 있는 진정한 부처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등급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걸

봐서 무엇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그걸 체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니지만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은 모두 마의 세계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닌 선정의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세계를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입문하면 최소한 제1세계나 제2세계에 이릅니다. 최소한 제1세계지요. 제1세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빛도 볼 수 없고 소리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예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Q: 스승님께선 방금 사람의 생각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등급에 이른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A: 이 법문을 수행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가능하고요. (누군가를 아주 미워한다면 비록 상대가 이를 전혀 모른다 해도 결국엔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해도 상대에게 전해지는 겁니까?) 역시 약간의 영향은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영향력도 커지겠지요. 생각을 집중하면 할수록 큰 힘이 나옵니다. 나쁜 힘도 그렇고 좋은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Q: 인도에 쿤달리니Kundalini 요가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힘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요가를 수행해서 영체가 나가기도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

가요?

A: 그것 역시 삼매입니다. 쿤달리니는 신체의 가장 낮은 부분인 생식 기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마의 힘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오지는 않겠지요. 우리 내면에는 많은 대소변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대중 웃음) (어떤 사람들은 이 법문을 수행하면 다소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후에는 영혼이 지혜안에서 나가는 데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정말인지 아닌지 난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식의 수행은 아주 느립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한 중심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가 이마에 도달하지요. 미처 그곳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복잡하고 지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법문으로 수행하려면 수십 년의 시간이 소모됩니다. 몸이 플라스틱처럼 되겠지요. 내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진정한 법문은 오직 관음법문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큰스승들이 왕성한 후, 수행하여 신을 찾고 싶지만 수행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몇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내어 시험 삼아 해본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요가 체계는 천국으로 가는 정도正道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치를 믿으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Q: 천주교나 기독교는 정도가 아닙니까?

A: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종교 그 자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큰스승만이 중요한 것이지요. 종교란 단지 큰스승의 말씀일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볼 뿐입니다. 내가 매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매일 내 얘기를 들으러 온다고 해서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에게 법을 전해 주지 않았으니까요. 법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설법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일 뿐이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종교에는 법문이 없어 사람들은 절반만을 들을 뿐이라서 영양분이 충분치 않습니다.

메뉴를 보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메뉴도 봐야겠지만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메뉴만으로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경전은 바로 메뉴 같아서 별 쓸모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좋지만 살아 있는 스승이 없다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Q: 이따금 우리 마음속에서 탐진치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 스승님의 도움을 구하면 유용할까요?

A: 당신은 무엇을 탐합니까? (재물을 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행일기를 준 것은 여러분이 매일 검토해서 고치고 나아지라는 뜻에서입니다. 별도로 스승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소용은 있겠지만, 내일이 되면 또다시 탐진치의 생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세생생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생각들이므로 매일 조금씩 고쳐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소밭에 잡초가 많이 있다고 합시다. 아주 오랫동안 방치해 뒀던 탓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면 이제 그 잡초들을 매일 조금씩 제거해야 합니다. 하루에 모두 다 뽑을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뿌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겉보기에는 깨끗이 제거된 것 같아도 이튿날이면 또 자라납니다. 풀이 자라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풀이 이미 자랐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탐심이 생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탐심이 생긴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큰일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고치십시오.

Q: 스승님, 보살이 화신으로 와서 사람을 제도할 때 그의 육신도 개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습성에 의한 것입니까? 보살 자신에게는 고정된 습성이란 게 없을 텐데요. 이를테면 인광印光대사는 아주 근엄했던 데 반해 스승님은 아주 유머러스하십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스승님이 이런 식으로 중생을 제도하셔야만 중생에게 이롭기 때문인가요?

A: 여러분은 내가 근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대중 웃음) 나를 아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내가 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가요? (제 얘기는 보살이 화신으로 와서 사람을 제도할 때, 그 생애의 개성은 중생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의 전생이 어떠했든 지금은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현생의 개성은 과거의 습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여러

분의 업장 때문입니다. 불보살은 시대마다 다른 방법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각 시대마다 수많은 다른 중생들이 있으니 중생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매 시대마다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시간이 있어 산에 가서 명상하고 염불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TV를 보고 신문을 보며 차를 몰고 놀러 갑니다. 주말에는 또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해야 하고 르웨탄(日月潭: 타이베이 관광 명소)에 놀러도 가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더러 매일 산에 가서 명상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산에 가도 명상할 장소가 없습니다. 소풍을 왔거나 야영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해 버렸지요.

지금은 옛날과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니 중생을 제도하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만일 내가 옛날처럼 매일같이 꾸짖고 때린다면 모두들 달아나 버릴 겁니다. 이곳에 설법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요. 그러므로 좀 유머러스해야 합니다.

사실은 나도 아주 엄합니다. 누가 나더러 엄하지 않다고 합니까? (대중 웃음) 때로 난 내가 너무 엄하다고 느껴지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 자신에게 ‘그렇게 엄해선 안 돼. 제자들에게 좀 너그러워야 해.’라고 말하곤 합니다. 내가 제자들을 아주 많이 꾸짖는데도 당신은 어떻게 내가 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요? 정말 놀랍군요!

(다른 스승들은 모두 아주 엄하시거든요. 어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때리는 그 스승처럼요. 정말 무섭습니다!) 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 사람보다는 낫지요. (대중 웃음) 그 방면에서는 내가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겠네요. 여러 해 수련하고 나면 사람들을 좀 때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스승님, 사람을 때리는 그런 스승도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가 수행을 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살인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는데 왜 못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가 수행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은 잘못을 깨달아 뉘우친 다음에 수행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지만, 그와 같은 스승은 자신이 아주 높다고 여기며 이미 법사가 되었으니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개성입니다. 사실 그는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질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일지도 모르지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일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고민만 쌓이고 어디에다 의지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두들 그에게 번뇌만 가져다주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할 시간이 없는 거지요. 명상을 하는 동안에도 번뇌가 너무 많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다 보니 화를 내고 순식간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폭발할 때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부숴 버리지요.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6장

자신의 불성을 알자

6장

자신의 불성을 알자

1987. 2. 13. 포모사 평후

큰스승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 곧 붓다입니다. 붓다는 산스크리트어로 크게 깨달은 사람, 빛이 있는 사람, 명확히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스승을 존경하여 그를 부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처나 붓다·대법사·참 스승·큰스승·대선지식·대보살마하살 등이 모든 것은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생명 현상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중생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를 존경하여 큰스승 혹은 부처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 또한 범부에서 옵니다. 부처는 겉보기에 우리와 똑같습니다. 눈·귀·코·입·신체가 있으며, 남자라면 남자의 형상을 갖추고 있겠지요. 여자 부처도 있긴 합니다만 성불할 땐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성불하지 않았을 때와 다름없지만 내면은 변해 있습니다. 성불은 내면이 변하는 것

이지 외면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법화경』에는 여덟 살에 성불한 용녀龍女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남자만이 성불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화경』에서 석가모니불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깨고 중생의 집착을 끊기 위해서 성불한 용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녀는 넓은 바닷속에 사는 중생으로 천룡팔부天龍八部의 용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인간만이 성불할 수 있고 용이나 천인·신선은 성불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법화경』에서는 용녀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녀는 인간도 아니고 더군다나 남자도 아닌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매우 오묘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수사리보살이 용궁으로 내려가 설법하고 그들에게 관음법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어찌면 이 때문에 용이 성불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불력佛力은 무한하니까요. 이 우주도 창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용을 사람으로 만들 수 없겠습니까?

『법화경』에서 모든 부처의 출현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부처의 지혜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석가모니불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도, 석가모니불의 지혜를 숭배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으니깐요. 석가모니불이 이 사바세계에 온 것은 우리더러 그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혜를 열고 불성을 보아 성불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보살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자신은 성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에게 미래에 성불하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그는 감히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까요? 성불할 생각을 감히 할 수 없다면 무슨 생각을 감히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매일 잠자고 밥 먹고 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아이를 낳고 결국에는 죽는 이러한 일생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인간의 몸에 상응하며 대장부의 이상에 걸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부란 일개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부란 일종의 품격, 일종의 등급, 일종의 능력, 일종의 지혜로서, 사물의 이치를 명확히 알고 이해하며, 아주 고귀한 이상을 가지고 생사를 해탈하고자, 우주의 법칙을 알고자, 대지혜를 얻고자, ‘도’를 깨닫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래야만 대장부입니다. 여러분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다만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사회에 물이 들어 어두워질 정도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생각지 못하고 성불할 생각도 하지 못하며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으려고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나약해서는 안 됩니다.

한 왕을 예로 들겠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피신하여 수십 년간을 숨어 산 왕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왕인지를 몰랐지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나 농부·평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날이 갈수록 그들의 생활 습관이 몸에 배고, 그들과 똑같은 관념,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 마지막에는 감히 자가 왕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으며,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위엄과 기

품 있는 품격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를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모두들 하루 종일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 놓고 당신이 돌아와 저희를 이끌고 적과 싸워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나라를 당신에게 다시 되돌려 주고자 합니다. 원래 당신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그는 왕의 이상도 모두 잃었던 터라 절망한 나머지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소. 나는 이렇게 한평생을 지내는 것이 좋소. 먹을 밥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오. 나는 감히 더 높은 기대는 하지 못하겠소.” 그는 원래 총명하고 위대하며 위엄을 갖춘 왕이었지만 지금은 감히 아무것도 생각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람으로 살다 보니 이 사회에 물들어 버려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감히 생각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흥미한 일생을 보내다니 정말 불쌍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루에 세 끼를 먹고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걸치는 것이 고작일 뿐 돈도 얼마 없습니다.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며 자식·남편·아내가 있는, 즉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지요. 자신을 추스르기도 힘든데 남편이나 아내·자식까지 책임져야 하다니요. 많은 짐을 짊어진 나귀처럼 짐은 갈수록 늘어나기만 해서 나중에는 휴식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백 년뿐인 인생을 위해 한평생을 고생하며 지내지요.

사실은 백 년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공기가 오염된 데다 모든 물건에 농약과 화학약품이 섞여 있어 우리는 백 년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몇 십 년의 세월을 위하여 그렇게 고생하면서 원래는 자신이 무엇이든 다 가지고 있었으며 온 우주가 다 우리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면 아침저녁으로 경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를 못 하면 경을 읽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경을 외우지도 말고 부처에게 절하지도 마십시오. 경전에서 얘기하는 체험을 이해하고 자신이 성불해야만 옳습니다. 부처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은 미신이며 부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미래의 신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매일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를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집에 들어가 그녀를 그리워하고 숭배하며 좋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그리워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처인데 자신만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이 부처라고 알려 준다면 여러분은 믿지 못할 겁니다. 첫째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고, 둘째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할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스승이 되어 공양을 받고 여러분에게 존경과 숭상을 받는 일들은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관습일

뿐 수행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승을 참으로 존경하는 것은 열심히 '수행'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스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를 가장 공경하는 일이며, '성불'하는 것이 부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부처라는 것을 알려 줌과 동시에 여러분이 자신의 불성을 찾으려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편지를 전하는 이 여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뿐 부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우체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며 남편과 아내·자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편지 안에 담긴 소식입니다. 편지에 뭐라고 써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우체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체부에게 절을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석가모니불이 온다 해도 그에게 절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종의 예이므로 절을 해도 복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다하는 것이니까요! 이른바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경할 겁니다. 그런 복을 얻는 것 말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어야 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저기 다니며 법을 전하는 것은 많은 제자들을 만들고자, 무슨 큰일을 이루고자, 유명해지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전해 주고자 할 뿐입니다. 편

지는 여러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지 않겠다면 나 역시 방법이 없습니다. 가지고 돌아가는 수밖에요.

어떤 사람은 이 편지를 싫어합니다. 그는 편지 보낸 사람을 모른 다거나, 그런 선물은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이미 이사를 가서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편지를 돌려보낼지도 모르지요.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며 그 우체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의 일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것 뿐이니 받고 받지 않고는 여러분 자신의 일입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일 죽더라도 여전히 염주나 경전 속에 파묻혀 무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책벌레가 책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지요. 사람들의 체험을 매일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문수사리보살이 부처의 힘을 빌려 어떤 경지에 갔다 느니, 아난이 석가모니불과 함께 무슨 불국토에 갔다느니 하는 얘기를 날마다 듣고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석가모니불이 성불한 것은 그의 일이며 우리와는 무관합니다. 그는 이미 2천여 년 전에 성불했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군가 의사가 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될 때까지 매일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절을 하고 의학 서적들을 읽는다고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속적인 일들이 다 그러하다면 성불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체험을 읽는 것으로 체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스스로 체험해야 합니다. 아난이 천상의 세계에

갔다면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목건련이 신통을 이용하여 불국토에 갔다면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천백억 화신을 나타냈다면 우리도 천백억 화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얼마간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에 우리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부처에게 절을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제 나는 부처에게 절하는 것은 부처의 신발을 닦고 부처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처가 되어야지 부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원토록 불자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우리도 스스로 음식을 먹고 자라서 장차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보다 나이도 많고 우리를 낳아 주었다고 해서 매일 그들에게 절이나 공경만 하고, 밥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마시며 매일 아기 노릇만 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좋아할까요?

범부의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그들에게 공손하게 절만 하고 스스로 독립하지도 못한 채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가 어찌 우리가 매일 자신에게 절만 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절은 절이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 수행해야 합니다. 메뉴를 읽는다고 배가 부를 리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요. 경을 외우는 것은 메뉴를 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어제 『금강경』은 『금강경』이 아니기 때문에 비로소 『금강경』

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전에는 『금강경』을 찬탄하는 말들만 있으니까요. 그런 건 『금강경』을 찬탄하는 경전일 뿐입니다. 이를테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갔다고 합시다. 의사가 준 처방전에 매일 얼마만큼의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두통에 효과가 있고, 그 외에 티포마이신Typhomycine이나 가장 좋은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등을 복용해도 된다고 써어 있다면, 이것은 단지 아스피린이나 티포마이신·테트라사이클린을 소개하면서 그것들의 효과를 찬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두통을 치료하려면 아스피린을 구해서 직접 복용해야만 합니다. 아스피린의 효과를 찬탄한 처방전과 아스피린 그 자체는 서로 무관합니다. 아스피린은 처방전이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먹어야만 효과가 있는 일종의 약입니다.

마찬가지로 『금강경』을 찬탄하는 것은 아직 『금강경』이 아닙니다. 『금강경』은 별개의 경전으로서 참 스승을 찾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참 경전은 우리 내면에 있긴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다 알고, 어떤 지혜든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금강경』이며 참 경전입니다. 외면의 경전들은 모두 참 경전을 소개하는 것뿐이지요.

예컨대 그제께부터 오늘까지 내가 계속 관음법문을 찬탄하며 “누구든 이 ‘관음’을 얻을 수 있다면 매우 유익하며, 계속 관음법문을 수행한다면 반드시 해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누군가 전부 기록해 놓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내가 관음법문이 좋다고 찬탄하는 것을 모두 적어 놓았다가 책을 만들어서는 그것을 『관음경』이라고 일컫

는 것이지요. 스승이 관음법문에 대해 얘기했다고 해서 『관음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로부터 2백 년이나 2천 년이 지난 다음 누군가 이 책 속에서 “누구든 이 관음을 듣게 되면 큰 공덕이 있으며, 큰 복을 가진 사람만이 관음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써어 있는 구절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그 경문을 읽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음은 이 경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은 관음을 소개할 따름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아직 관음법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석가모니불은 비유나 표현을 달리 사용했을 뿐 어디를 가든 늘 같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나도 여기에서 관음법문을 얘기하면서 많은 비유를 듭니다. 이따금 난 한 곳에서 하루밖에 머물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토 법문을 수행하고자 하는 두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많은 이야기를 해줄 시간이 없다 보니 『아미타경』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무량광 법문이니 이것을 수행하면 반드시 서방세계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를 듣고서는 아미타 법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 경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또 『금강경』을 좋아하여 경전 전체를 다 외운 사람에게는 『금강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어야 나중에 관음법문을 전해 주기도 쉽습니다. 나는 『아미타경』이나 『금강경』뿐 아니라 『법화경』이나 『능엄경』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법문을 얘기한 것이

니까요. 이름만 달리 사용해 관음법문을 설명한 것뿐입니다.

석가모니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 많은 것을 얘기하다 보니 『법화경』이 되었고, 시간이 없을 때는 간략하게 얘기하다 보니 『아미타경』이 되었지만 이 둘은 같은 것으로서 관음법문이 좋다는 것을 중생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미타경』은 아미타 법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미타경』을 수십 년간 읽다 하더라도 감응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난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나에게 와서 배우면 곧바로 체험이 있습니다. 전에는 모래로 밥을 지었기에 밥이 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쌀로 밥을 지으니 즉시 밥이 됩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모래를 끓인다면 천백억 년을 끓여도 밥이 될 리가 없습니다. 쌀로 밥을 지어야 밥이 됩니다. 밥은 밥이고 모래는 모래니까요. 모래를 오랫동안 끓인다고 밥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도 법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계율을 줍니다. 5계를 좀 넓게 해석한다면 『금강경』과 거의 같습니다.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는 수행의 기본적 계율이자 규칙입니다. 『금강경』 안에는 육바라밀에 대해서만 써어 있을 뿐 어떤 법문에 대한 언급도, 금강 법문에 대한 얘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정에 들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선정에 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써어 있지 않지요. 이는 선정이 별개의 가르침에 속하는 것으로, 한 개인에게 ‘이심전심’으로 단독 전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인을 전한다.’라거나 ‘법을 전한다.’라고 일컫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외별전敎外別傳 법문으로 경전 안에다 설명해 놓을 수도, 기록해 놓을 수도 없

는 것입니다.

어제 나는 여러분에게 법을 전할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라 말할 것도, 설명해야 할 ‘법’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이 법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전하지 않으면 또 안 되지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을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마음을 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비록 전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는 해도 여러분은 모두 얻는 바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모두 무언가를 얻습니다. 이것은 법을 전해 줄 때에야 알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금강경』, 진정한 금강 법문, 진정한 마하반야바라밀다 법문, 진정한 관음법문입니다.

나 역시 법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금강경』을 줍니다. 그러나 나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내가 해석한 5계는 이렇습니다. 나도 ‘보시’를 하라고는 하지만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으로 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지요. ‘지계’는 매일 자신을 성찰하여 5계를 확실히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욕’이라 함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부처를 ‘염’하고 스승이 가르쳐 준 법문에 집중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욕입니다. 그러나 인욕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일 열심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진’입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명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명상해야 지혜를 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선정’입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를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경』에서 얘기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규율일 뿐 진정한 『금강경』은 아닙니다. 『금강경』은 법을 전해 줄 때에야 비로소 존재합니다. 진정한 『금강경』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은 『금강경』이 아닙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내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나에게 지혜가 부족할까 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중국어도 유창하지 않으니까요. 만일 우리의 복이 충분치 않은 데다 인연 또한 깊지 않았다면 술술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이해한 느낌을 타인에게 완전히 얘기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간혹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친구 간에 오해가 생기며,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뜻을 전달하지 못해서 상대방의 오해를 사게 되는 거지요. 범부가 겪는 평범한 일도 때로는 이처럼 완전히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부처의 지혜는 어떻겠습니까? 부처의 지혜를 어떻게 범부의 언어로, 세상의 언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바는 그 자신만이 압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별개의 일이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깨달는 것과 법을 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법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을 전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깨달은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나는 깨닫지는 못했어도 법을 전해 줄 수는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중 웃음) 여러분은 나를 따라 수행하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는 상관할 것 없습니다. 그녀는 책임지고 편지를 전해 줄 우체부일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서 나는 깨달은 사람조차도 자신의 지혜를 완전히 표현하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나는 깨닫지 못했어도 여러분은 깨달아서 그런지 이해를 아주 빨리 하는군요. 조금밖에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금방 알아들으니 말입니다. (대중 웃음) 이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이 크게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러분 같은 동료수행자들을 만나서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벌써 그렇게 깨달았으면서도 아직까지 부처가 된다는 생각조차 감히 못 하고 있다니 정말이지 안타깝군요!

나는 비록 아직 깨닫지는 못했어도 감히 성불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이생에서 반드시 성불하고자 하지요. 내가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어찌면 벌레나 지렁이가 될 수도 있겠지요. 불교 경전에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복이 없다면 소·닭·말·양·지렁이·쥐 따위가 되어 먹이를 구하려고 사람들의 음식을 훔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설법을 듣고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생에서 성불할 거라고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장담할 필요도 없이 틀림없이 성불할 겁니다. 왜 못 하겠습니까? 석가모니불도 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2,500년 전 이 세상은 그리 편리하지 않은 데다 사람들도 총명하지 않아서 TV나 전화·비

행기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무척 어리석었으며 지금 우리보다도 더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많은 것들을 발명할 수 있으니 성불도 빨리 해야 마땅합니다. 왜 성불할 수 없겠습니까? 석가모니불이 6년 동안 수행하여 성불했다면 우리는 6개월 만에 성불해야 오늘날의 스피드 시대에 걸맞다고 할 수 있지요. 오늘날 우리는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너무 느리고 자동차·기차도 너무 느려 지금은 다들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나 비행기도 현대인에게는 충분히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우주선을 이용해서 우리를 달나라에 보낼지도 모릅니다. 이 세계는 이미 만원인데도 인구가 갈수록 늘어 밭 디딜 틈이 없다 보니 달에 가서 살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용감하고 대단해서 우리 역시 빨리 성불해야만 그들과 보조를 좀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6개월 만에 부처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원합니까? 6개월 만에 부처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6분 만에요? 그것도 아니라면 한순간에요? 6개월은 너무 느립니다. 이 '도'를 찾기만 하면 바로 성불하겠지만 찾지 못한다면 밖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패 번호를 찾지 못해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실령 문 근처에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을 찾는다면 재빨리 깨달을 것입니다.

입문할 때 곧바로 아라한이나 보살·불퇴보살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성불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성불했어도 모르지만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부처라면서 왜 입문을 해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아직 부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와 중생은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불성을 안다면 곧바로 성불하게 됩니다. 반드시 수행을 하고 나서야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짜 부처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원래 부처였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에 모르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것은 자신이 원래 부처였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이지 수행을 한 후에야 성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에도 성불할 수 있습니다. 불성이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등은 이미 전기가 통하고 있으므로 스위치를 한번 누르기만 하면 등은 밝아집니다.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사방으로 찾아봐야겠지만 일단 스위치를 찾아 켜기만 한다면 등은 곧바로 밝아집니다. 순식간에요. 여러분도 순식간에 성불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아라한이 되었던 겁니다. 경전을 보면 석가모니불의 설법을 듣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수다원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처가 법을 전해 준 후에는 곧바로 자기의 등급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이미 아라한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요. 이때 뭔가 한번 재 보기만 한다면 곧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예로 오늘 어떤 신사분이 저녁 7시 설법을 기다리지 못하고서 오후 2시에 나를 찾아왔었습니다. 내가 내내 이곳을 떠나지 않았을

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찾지 못한 채 돌아갔지요. 그리고선 또 기다리질 못해 3시에 다시 찾아왔지만 여전히 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이곳에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그가 2시간이 넘도록 나를 찾아다니고 나서야 내가 나타났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난 여기에 있었지만 그가 찾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 있는 여러 방들 가운데 내가 어느 방에 거처하는지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사방으로 찾아다녔던 거지요. 방만 제대로 찾았더라면 곧바로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얼굴을 모르니 몰라봤을 겁니다.

(스승님이 그 신사에게 질문하심.) 당신은 오늘 그 사람(스승님을 가리킴)을 보았을 때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대중 웃음) 몰랐지요? 당신은 그녀에게 “큰스님이 어디에 계신지 압니까? 칭하이라는 큰스님이 이곳에서 설법을 하신다고 하는데 누구인지 아세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지요?”라고 물었지요. 나는 “아니오. 그녀는 명상하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대중 웃음)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부처가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지를 못합니다. 불성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입문 때 자신의 본래면목을 보고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깨달은 후에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깨달은 사람들도 여전히 스승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경지가 정말 깨달았음을 뜻하는 것인지, 높은 경지를 나타내는 것인지, 이미 삼계를 초월한 것인지를 인증받으려고 자신의 스승이나 다른 스승을 찾아갔던 것이지요.

오늘 그 신사분이 자신은 감히 성불은 생각지도 못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기 비하적인 태도입니다. 성불과 같은 그런 불가사의한 일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기 때문에 입문 때 깨달았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걸어 본 적이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등급 인지를 알려 줄 수 있어야만 우리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갈수록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의 ‘깨달음’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화경』에서 비유한 것과 같습니다. 한 공자가 있었는데 그는 원래 어느 부자의 아들이었지요. 그러나 길을 잃고 아주 먼 곳까지 갔던 탓에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도 몰라보고 아버지가 대단히 부자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 부자가 가까이 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도망까지 가 버렸지요. 그래서 부자는 우선 아들더러 마당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일부터 서서히 시켰습니다. 아들에게 살 곳과 밥과 옷을 주겠다고 하면서 천천히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타일렀지요. 부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게만 살던 아들이라 자신이 원래 부자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오래 지내다 보면 그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부자가 아들로 하여금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처음에는 하인으로 삼았다가 나중에는 집사로 승격시킨 다음 마지막에는 전 재산을 모두 다 아들더러 관리하도록 한다면 그는 차츰차츰 고귀한 사

람으로 변할 테니 그때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알려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하인에서 집사로 승격된 다음 부자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부터 부자의 아들이었으며, 그 재산 역시 본래부터 그의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가난하게 지냈던 탓에 자신이 부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히 생각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수행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스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부처임을 알려 줄 겁니다. 그때는 이미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당신은 부처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믿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한 사람, 아니 반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범부라는 생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불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여자야. 남자만이 성불할 수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어? 나의 업장은 깊고 무거워.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는…….’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석가모니불이 거짓말을 한 것이겠지요. 나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불도 최대의 망언을 한 게 될 겁니다. 그는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중생은 나와 똑같이 평등하며 차이가 없다. 왜 스스로 자신을 알지 못하는가? 정말 불쌍하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아직 성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각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정말입니다. 나는 여

러분을 모두 부처로 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성불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나는 석가모니불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부처가 아닙니다. 연결선이 끊겼으니까요. 우리 자신이 벽을 쌓고 스스로를 고립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공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자신이 원래 부자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원래는 자기 것이며, 매일 마당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런 비천한 일은 자기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이른바 과거의 관념이나 습관·신분 등이 장애가 되었던 것이지요. 본래 그는 주인이어야 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부자는 아들의 잘못된 관념과 무지를 조금씩 없애고 씻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아들 자신이 누구인지 본인에게 알려 줄 수 있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아직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열심히 관음법문을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본래면목을 좀더 빨리 깨닫게 될 겁니다. 입문 때 우리는 곧바로 무언가를 얻게 되어 전과는 달라질 테니까요. 그것은 마치 그 공자가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가 아버지를 만나 그 집에서 안전하게 살게 되면서부터는 서서히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 부처의 힘과 통하여 나중에 우리 자신이 바로 이 부처의 힘이며 바로 부처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 줄 수 있는 다른 법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공자처럼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우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면서 서서히 자신을 알게 되고 아버지 역시 자신을 돌봐 줄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숨거나 떠나 버린다면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이 부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까지 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준다거나 원래 지위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쳐 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음법문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도록 해주는 가장 궁극적이고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공자는 어쩌면 자신에게 재산이 아주 많은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와 만나기 전이라면 정확히 알 수 없는 노릇이겠죠. 자신이 부유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에 살면서 아버지로 하여금 서서히 자신을 훈련시키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는 관음법문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시방 삼세불은 모두 관음법문을 수행해서 성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은 어느 경전에서나 이 수행 법문을, 이 내면의 불음佛音을 찬탄했습니다. 『법화경』에서도 이 내면의 소리를 언급했으며 그 밖에 『보문품』·『능엄경』·『능가경』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금강경』에도 소개되어 있으며 『반야바라밀다심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수행을 한 후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전에는 『반야심경』의 뜻을 몰랐습니다. ‘제법공상諸法空相,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 시고공중무색是故空中無色, 무수상행식無受想行識’ 등이 도대체 무

엇을 가리키며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으나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에야 이해하게 되었지요.

Q: 만일 우리가 이 본성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청정한 경지에 완전히 다다를 수 있습니까?

A: 이미 본성을 알았다면 계속해서 수행하십시오. 본성을 알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훌륭한데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재가자들도 무척 수행하고 싶어하지만 종종 그런 청정한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청정한 경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재가 생활이 비교적 바빠서입니다. 아침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3시에서 6시까지 명상하십시오. 그때는 아이도 자고 있고 남편도 아주 피곤할 테니까요. (대중 웃음)

(그 시간에 일어난다면, 매일 고정적으로 그 시간에 명상해야 하는 겁니까?) 고정적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럴 수 없다면 언제든지 명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앉는 자세는요?) 자세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스승에게 물어보면 되겠지요.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에게 가부좌를 하라고 가르치던가요? (아닙니다. 저의 스승님은 어떤 자세로 앉든 편안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같군요. 당신 스승이 무슨 법문을 가르칩니까? 호흡입니까? (반가부좌를 할 때도 있고 호흡에 맞추어 염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편안하면 됩니다.

Q: 스승님께서선 염불이나 부처에 절하는 것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는 우리가 부처에게 절을 하게 되면 불인(佛因)을 심은 것과 같아서 장래에 불과(佛果)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죽고 나서도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아미타불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써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A: 누가 당신에게 서방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보증해 주었습니까? 도장을 찍어 주던가요? (대중 웃음) (책에서 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그걸 믿는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설명해 주겠어요.

부처에게 절을 하고 염불을 하면 불인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심어야 자라겠습니까? 이게 바로 큰 문제이지요. 나에겐 이미 나무가 있고 당신에게 먹으라고 줄 열매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릅니다. 만일 매일 물을 주면서 당신이 심은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일찌감치 굶어 죽고 말 겁니다. 이것을 선종에서는 ‘점오’와 ‘돈오’라고 부르는데, 점오는 너무나 느려서 언제 성불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생에서 부처를 볼 수도 있고, 어쩌면 다음 생, 혹은 다음 다음 다음 생, 어쩌면 아승지겁이 지난 후에야 성불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오는 곧바로 알고 곧바로 깨닫고 곧바로 부처와 통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비교적 빠릅니다. 내가 염불이나 부처에게 절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한 것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오는 복이 나에게는 너무나 미미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에게 2대만 달러

나 100대만 달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얼마 안 되는 돈은 그에게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만일 그 부자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가 1, 2백 대만 달러쯤 원한다고 생각하여 “지금 제게 1, 2백 대만 달러 정도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라고 묻겠지만 그는 “그것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대꾸할 겁니다. 그가 필요한 건 2백만 대만 달러 정도일 테니까요. 그는 1, 2백 대만 달러 정도의 씹씹이에는 익숙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1, 2백 대만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알겠습니까?

당신이 불인을 심고 복을 짓기를 원한다면 부처에게 절을 하고 염불을 해야겠지만 내가 원하는 건 성불이지, 복을 짓는다거나 무슨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당신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겠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의사가 되려고 할 테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는 것도 유용하긴 하겠지만 나에게는 충분치 않지요. 나는 내 병도 직접 치료하고 다른 사람의 병도 직접 치료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이지, 의사에게 존경이나 표하고 아스피린이나 한두 알 받아 와서 두통이나 치료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을 하거나 염불하는 것이 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절을 하고 염불을 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선근을 지니게 되지요. 아직 젊음에도 벌써부터 부처를 존경하고 도덕적인 데다 도를 추구하는 마음까지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씩 훌륭합니다. 나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계속해서 절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이치를 말하는 것은 감히 성불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감히 자신이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일은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불을 하겠다고 하면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누군가 아직 성불을 원치 않는다 해도 상관없으며, 설법을 들으러 오는 것 역시 환영합니다. 조만간 그들도 성불할 겁니다. 원래 부처였잖아요! 그렇지만 좀 급한 성격 탓에 천천히 불인을 심을 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빨리 성불하고 싶어하지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좀더 천천히 불인을 심어도 됩니다. 훗날 불과를 거두게 될 것이고, 최후에는 마찬가지로 성불하게 될 것입니다.

염불을 일심불란하게 하려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의력을 위쪽에 두고 마음을 이곳(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심)에 두어야만 일심불란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외워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부처를 ‘염’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매우 어지럽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입에 의지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고 듣는다면, 이는 여전히 세상의 언어입니다. 이런 무상한 언어에 의지해서 어떻게 영원한 부처의 과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초월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세상을 초월한 곳, 세상을 초월한 힘에 의지해야지 우리 자신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것도 일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행이란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눈·귀·코·혀·몸·생각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안이비설신의를 모두 무상한 것이니까요.

만일 이런 무상한 육근에 의지한다면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지 않겠습니까? 잠을 잘 때는 눈을 감는 데다 귀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 보니 마치 죽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의식도 어디에 가 있는 건지 악몽이나 길몽 같은 많은 꿈을 꾸게 되지요. 그러므로 안이비설신의에 의지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모두 무상한 것이어서 영원한 경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염불은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불의 산스크리트어는 아미타바Amitabha인데 그 뜻이 ‘무량광’이기 때문입니다. 무량광은 우리를 뜻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 자신의 빛나는 품성, 빛나는 본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외운다면 우리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빛나고 뚜렷한 일면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비심도 있고 지혜와 힘도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우려 한다면 많은 명호를 외워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나무관세음보살·나무대세지보살 등 많은 부처를 외워야 하지요.

때로 우리는 팔십팔불을 외우기도 하고 좀더 욕심을 내어 천불을 외우기도 합니다. 삼천불을 외는 사람도 있고 만불에 절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각각의 부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성 가운데 하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만불을 외운다 해도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만불도 만 개의 품성만을 나타낸 것이니까요. 우리에게는 갠지스 강의 모래알만큼이나 수많은 품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외워야 다 외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미타불도 궁극적인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미타경』에는 상품상생이

대단한 것도, 궁극적인 것도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불은 우리의 한 품성만을 나타낼 뿐이므로 완전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다른 여러 방면의 품성들이 합쳐져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두 아미타불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방에 가고 싶다면 일심불란해야 하며, 일심불란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불성에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수행할 수 있으며 일심불란할 수 있습니다. 이 무상한 언어에 의지하여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배터리처럼 말이지요.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는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난 후에는 다시 충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불보살이었는데 왜 중생으로 변했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을 너무 많이 주어 힘이 다소 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시를 너무 많이 해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모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다시 불보살의 힘을 갖게 되고, 다시 이 세계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은 갈수록 적어져 결국에는 지옥으로, 어두운 곳으로 변하게 되고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달에 빛이 있고 태양에 빛이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 빛들은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경지에 가게 되면 우리 사바세계의 빛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등불의 빛이 발전소에서 오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등 자체는 빛이 없지만 발전소와 통한 까닭에 빛이 있는 것이지요. 지구도 빛이

있으며 우리 자신도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부처의 빛과 통한 까닭입니다. 만일 부처의 빛과 소통이 끊긴다면 우리의 빛은 사라지고 이 세상은 즉시 암흑의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불보살이 이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을 축복하며 다시 그들에게 등을 만들어 주고 전선을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수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스위치를 한번 누르기만 하면 곧바로 등이 켜져 아무런 문제도 없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부처의 빛을 잃었지만 이제 다시 빛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등은 망가졌고 전선도 끊어졌지만 지금 연결되기만 하면 곧바로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대단히 과학적인 해석으로서 신비스러운 게 전혀 없지요.



7장

스승은 오직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다

7장

스승은 오직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다

1987. 5. 3. 포모사 타이베이 신디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데 설법을 들으러 오다니 여러분은 도심이 아주 높군요. 지난번에 나는 무상정등정각은 음과 양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부처는 ‘양’이라는 절반에만 속해 있으며 온통 밝기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란 살아 있는 진정한 스승을 가리키므로 석가모니만 부처인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 나는 이미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는데, 매번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부처’가 누구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좀더 수행한다면 우리 자신이 살아 있는 부처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아직은 수행을 하지 않았으니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세세생생 석가모니만이 유일한 부처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기에 집착하여 자신은 수행도 할 수 없고 성불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석가모니불은 많은 부처 가운데 한 분일 뿐 유일무이한 부처는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2천 년 만에 한 번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세생생 부처는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나는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부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거나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만 큼은 반드시 불성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 있는 부처라는 것을 알지도, 인식하지도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성불하지 못할까요? 방금 나는 우리가 살아 있는 부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더 수행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나무 속에 불이 있다 하더라도 나무 스스로 불을 일으켜 자신을 태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불이 붙은 나무를 찾아 같이 있어야만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무끼리 우연히 부딪혀서 서로 마찰하다 불이 붙어 타기도 하지요.

여름에는 누가 고의로 불을 지르지 않아도 숲 속에 있는 나무들끼리 어찌다 마찰을 일으켜 산불이 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때로는 담배를 피우다 부주의하여 담배꽂초를 떨어뜨려서 불이 나기도 하지요. 아주 옛날에는 조상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불이 나서 많은 산림이 타 버리기도 했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도를 이룬 살아 있는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혼자서는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을 할 때 지도해 줄 교사가 있다거나 선지식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지식 자신

이 길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를 데려갈 수 있으며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길을 알아야 여행객을 데리고 다니며 관광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두 사람 다 길을 모른다면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 모두 굶어 죽고 말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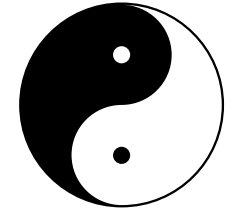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부처이며,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 있는 부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세생생 부처가 내려와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처는 어디서 왔을까? 처음엔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성불했을까?'라고 자문할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유형의 부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석가모니·예수 그리스도·노자·보리달마·헤능과 같은 진정한 큰 부처들인데, 그들은 배우고 나서야 성불했습니다. 둘째는 연각불입니다. 연각불은 비록 궁극의 경지는 아니지만 깨달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생사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사윤회의 상황을 관찰하고 깊은 사고를 한 다음에 자신의 본래면목을 깨닫습니다.

연각불 자신은 큰 힘이 없으며, 전해 줄 법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는 스승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홀연히 깨달았기 때문에 연각불 또는 독각불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혼자 수행하고 혼자 이루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와 가까이 있으면 그의 선량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으며 또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은 원래 무상한 것이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연각불입니다.

물론 연각불도 보통 사람은 아니며, '도' 안의 밝은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림 1) 때로 그는 '도'의 어두운 부분에 가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나도 어두운 그곳에 다소나마 밝은 힘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밝은 곳의 존재들이 어두운 곳에 가는 것은 어두운 부분 가운데 밝은 면을 넓혀 그곳이 너무 어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어두운 곳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하지요. 그런 사람이 이른바 연각불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도 성불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일반 부처와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들은 둘 다 밝은 곳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림 1)

그러나 밝은 곳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부처'입니다. 그 밝은 곳의 존재들은 우리가 이곳에 온 지 너무 오래되어 어두운 것에 더럽혀지고 오염되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불쌍하구나! 그들은 모두 나의 친구들이고 가족들인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옵니다. 이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는 밝은 곳의 존재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연각불은 비록 스승은 없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생사윤회를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일은 바로 이 어두운 곳에 내려와 자신의 모범과 이상을 보여 줌으로써 이 어두운 세계를 돕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도를 이룬 부처였습니다.

연각불도 도를 이루기는 했지만 그 힘은 아주 작습니다. 그는 혼자 빛을 발함으로써 이 세계를 도울 뿐이지요. 그러나 도를 이룬 부처, 이를테면 석가모니불이나 수행하여 도를 이룬 다른 부처, 혹은 살아 있는 부처의 힘은 비교적 큼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들이 열심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수행한 지도 이미 아주 오래되었고, 게다가 스승의 지도도 받았으며 사람들더러 천천히 위로 수행해 나가도록 할 수 있는 법문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발견한 것이나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한 성과를 기록해 두었다가 사람들에게 전해 줍니다. 석가모니불이나 살아 있는 다른 부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가 내려와서 반드시 은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설법을 하러 가면 가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대 수행자들은 모두 은거를 한다는데 당신은 더구나 비구니이면서 어떻게 사방으로 설법을 하러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만일 그들이 모두 숨어 버린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불법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육조 혜능이나 보리달마나 석가모니불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라고 대답합니다.

왜 어떤 부처는 설법을 하러 다닐까요? 첫째는 그것이 바로 그의 일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중생에게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부처가 아직 오지 않았을 당시 중생들이 다 함께 머물고 있었던 곳은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여 길을 볼 수 없었으며, 그 업장은 짙은 안개와 같이 검고 어두워 우리의 길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

문에 부처를 찾으려 해도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가 가는 곳은 어디든 참으로 밝고 빛이 납니다.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로워 아무런 장애가 없지요. 그래서 그는 어두운 곳에 있는 누군가가 부처를 갈망하는 것을 볼 수(혹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곳의 한두 사람, 혹은 세 명이나 다섯 명, 열 명, 혹은 한두 단체가 해탈을 갈망하며 부처를 만나고 싶어하지만 짙은 안개 같은 너무나 많은 업장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처는 자비심을 내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중생들은 자신의 업장 외에도 조상의 업장, 가정의 공업(公業), 그 지방의 공업, 국가의 공업 등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만일 부처들이 모두 숨어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설법을 하러 다녀야 하는데, 그들이 바로 석가모니불이나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들입니다.

물론 부처가 한곳에 앉아 중생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그리 피곤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어느 한 곳의 중생들이 끊임없이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자비심 때문에 그의 육신도 그곳에 달려가 그들을 돕습니다. 육신이 없으면 중생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니깐요. 그가 빛으로 그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영향이 적은 데다 화신으로 가더라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를테면 부처가 기도하는 사람 앞에 대단히 밝고 빛나는 화신으로 나타나서 무언가를 말했다고 합시다. 만약 그 사람이 큰 힘이 있

다든지 높은 등급이나 큰 복을 가졌다고 한다면 부처의 지시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지시를 다 듣고 나더라도 부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를 겁니다.

부처가 언제나 화신으로 그곳에 갈 수는 없습니다. 설령 매번 화신으로 간다 해도 그 사람이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때때로 그 수준에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라디오와 같습니다. 라디오는 틀지 않으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지요. TV 역시 켜지 않으면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이나 TV 방송국에서 24시간 방송을 내보내더라도 우리가 집에서 TV를 켜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아니면 라디오나 TV가 고장이 나도 수신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설법만으로는 법을 전할 수 없습니다. 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야 하며, 오직 사람만이 사람에게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과 불보살의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다음 다시 천천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법을 받은 후에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 변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더 많이 변해 불보살의 등급이 되어서야 불보살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사람인 스승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석가모니불이나 예수 그리스도 또는 다른 큰스승들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칠 필요 없이 천당에서 이곳으로 화신으로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겠지요. 이해하겠습니까? 석가모니불이 우리에게 아미타불을 알려 주기 전에도 아미타불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미타불은 사람

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석가모니불이 알려 준 후에야 아미타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왜 우리는 석가모니불이 소개해 준 다음에야 관세음보살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왜 전에는 신이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 준 후에야 신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까요? 왜 그때서야 신에게 도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있어야 언어로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부처가 한곳에만 머물면서 설법하러 다니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있는 중생들은 부처나 스승을 찾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고생스럽더라도 중생들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대수행자들은 숨어서 수행만 한다는 말도 맞긴 합니다만 그들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중생을 제도하러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만 줄곧 숨어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친 노스님은 설법하러 다니지 않았던 것 같은데, 행여 다녔다 하더라도 무척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시 법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음법문을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도 광친 노스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역시 관음법문을 모르고 있다가 내게 배우고 나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가 관음법문을 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도 설법하러 다니지는 않고 사람들이 오기만 기다리는 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자신의 수제자를 보내 설법을 하도록 하기도 하지요. 인도에 스리 라마크리슈나(Sri Ramakrishna)라

는 대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힌두교 출가자였던 라마크리슈나는 일찍이 여러 법문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불교를 배우면 성불할 수 있는지, 천주교를 수행하면 성취할 수 있는지, 이슬람교를 수행하면 성취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모든 법문을 다 시도해 보았지요. 그런 다음 그는 어떤 법문이든 성취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된 법문으로 수행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즉각 깨닫는 열쇠』에서 모든 법문은 관음법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책을 보았다면 천주교에서도 같은 법문을 수행했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같은 법문을 전했으며, 노자도 같은 것을 말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석가모니불이나 모하멧 같은 고대의 큰 스승들은 모두 이 법문을 수행했습니다. 과거·현재·미래 할 것 없이 모두 오직 이 ‘도’, 이 길로만 올라갈 수 있으며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모두 궁극적인 길이 아니므로 결국에는 다시 이 길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길로 곧장 이끌 수 있는 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만 빙빙 맴돌다가 영원히 길을 찾지 못할 겁니다. 관음법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있는 곳에 오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든 결국에는 이 길로 와야만 나를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인도 이야기로 되돌아갑시다. 라마크리슈나는 아주 오랫동안 수행하여 마침내 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유명해졌어도 설법하러 밖에 나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있

는 곳에 와서 설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스와미 비베카난다(Swami Vivekananda)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후에 비베카난다는 미국에서 흥법하여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스와미란 출가자를 뜻하는 말로 이곳에서의 ‘사미’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힌두교 출가자는 250계를 받지 않고 10계만 받기 때문에 이곳의 사미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10계만 분명히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50개나 되는 계율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냥 보기에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10계만 가지고도 힘들어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율 중에 출가자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따금 제자들이 나에게 공양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사탕이나 과자를 사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과 연관이 되지요. 게다가 기차를 탈 때 그런 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기차를 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차를 탈 수 없는데 어떻게 설법하러 다니겠습니까? 배를 탈 때 가장 싼 표를 산다 해도 어쨌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같은 상황에서는 그 계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계율에는 출가한 다음에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지킬 방법이 없으니 참회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참회합니다! (대중 웃음)

비베카난다Vivekananda는 무슨 뜻일까요? 비벡Vivek은 바로 디스크리미네이션Discrimination, 즉 좋고 나쁨,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며, 아난다Ananda는 즐겁다는 뜻입니다. 불교에도 아난

이 있는데, 이 글자를 번역한 것입니다. 아난존자는 산스크리트어로 아난다이니까요. 비백과 아난다 두 글자를 합치면 분별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비베카난다가 미국에서 유명해지자 더불어 그의 스승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크리슈나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제자에게까지 법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바지Babaji라는 큰스승의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는 벌써 수천 년을 살고 있지만 25세 청년처럼 매우 젊은 모습입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히말라야 산에 숨어서 수행만 하기 때문에 그를 본 사람은 전세계를 통틀어 겨우 몇 십 명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도 모두 우연히 만난 것이지요. 바바지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면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바바지 자신은 법을 전하러 다니지 않았어도 제자들은 법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의 수제자 가운데 한 명이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라히리 마하사야(Lahiri Mahasaya)입니다. 그런데 라히리는 외국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스와미 스리 유크테스와(Swami Sri Yukteswar)라는 수제자도 있었지만 그 역시 외국 흥법을 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가난다(Paramahansa Yogananda)가 바로 그의 또 다른 수제자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서양에서 흥법을 했습니다. 수행자들과 관련된 책을 읽어 보면 여러분도 알 겁니다.

요가난다도 아난다입니다. 인도에는 아난다라는 이름이 흔합니

다. 많은 수행자들의 이름이 아난이며, 어디를 가든 아난이란 이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가난다는 미국에 크리야 요가(Kriya Yoga)를 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들 두 사람, 즉 비베카난다와 요가난다는 미국에서 대단히 유명하지요. 비록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큰스승이 직접 법을 전하러 다니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법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법을 전하지 않았다면 중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법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진작 성불했어야지 왜 아직도 생과 사를 윤회하면서 고통 받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이 우리에게 법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훌륭한 제자를 많이 두었을까? 범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수제자들은 원래 범부가 아니었습니다. 크리슈나도 범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밝은 곳에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밝은 곳에서 사는 존재가 뭘 뜻하는지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은 어두운 곳이고 그들이 사는 곳은 밝은 곳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쉽게 이해 되겠지요. 비베카난다도 밝은 곳에서 왔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려 하는데 듣고 싶습니까? 외도外道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겁나지 않겠습니까? (대중: 예.) 그는 불교인이 아닌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설법한 내용을 보면 석가모니불을 찬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

처도 없고 신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처란 자신들을 제도하러 온 신의 화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붓다Buddha란 비쉬누Vishnu의 화신이라고 말하지요. 비쉬누는 힌두교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입니다.

내가 인도의 불교 사찰에 갔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힌두교인들이 그곳에서 향을 피우고 절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건 바로 부처가 그들의 비쉬누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니 어떻게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원도 힌두교인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외도에 관한 이야기가 겁나지 않으면 계속 말하겠습니다.

비베카난다는 원래 높은 경지에서 수행하던 성인으로서, 그가 삼매에 들 때는 사바세계에서 삼매에 든 것이 아니라 밝은 곳에서 삼매에 들었습니다. 밝은 곳도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가 어떤 경지의 밝은 곳에서 삼매에 들었다는 말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크리슈나는 일찍이 여러 종교의 법문들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도를 이루었을 때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지만 바쁜 데다 몸도 불편했던 그는 사바세계에 거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말을 붙이면 그저 “응! 그래! 그래!”라고 말할 뿐 마음은 벌써 위로 올라가 있어서 그와 대화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사바세계에 머무는 적당한 때를 찾아야만 대화할 수가 있었지요. 6개월 동안 연이어 삼매에 들어 아예 그를 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데다 파리 가룻속에 들어가 집을 짓고 절을 지어도 몰랐습니다. (대중 웃음)

그의 이웃에 동료수행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선 그가 아주 열심히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살아 있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는 매일 굶은 지팡이로 그를 때렸지요. 지팡이에 맞은 그가 살짝 깨어날 즈음 재빨리 입을 벌려 음식을 밀어넣었지만 대부분 흘러나오는 바람에 겨우 조금만 삼키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렇게 해서 6개월을 살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 죽었을 겁니다. 육체는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결국 썩어 버리고 마는 이 세상의 것이니까요.

그는 대부분 삼매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제도하러 다니거나 설법하러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늘 마음이 떠나고 없었던 탓에 간혹 말을 한다곤 해도 극히 드물었지요. 그래서 그는 삼매에 들었을 때 신이나 내면의 힘에게 자신을 도와 중생을 제도해 줄 사람을 보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선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비베카난다가 삼매에 들었다가 이런 상황을 알고는 곧바로 내려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크리슈나를 따라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지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범부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불보살이 우리를 도우러 내려오는 것은 정말 최대의 자비입니다. 내려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데다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성불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석가모니불이 갓 내려왔을 때는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곱 걸음을 걸었으며 걸을 때마다 연꽃이

피어났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역시 모두 잊어버리고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30세가 다 되어서야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두 살 때까지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과 태어난 목적을 기억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모두 잊어버리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처도 그러한데 우리 범부는 어떻겠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비베카난다도 밝은 곳에서 내려온 후 내려온 목적을 잊어버리고는 영망진창으로 만들어진 경전들만 배웠으며,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그런 종교 경전들만 공부했습니다. 수행의 힘은 갖추지 못한 채 경전만 공부했을 따름이었지요. 말재주가 뛰어났던 그는 이곳 선종禪宗에서 하듯이 수많은 경전을 본 후에 사람들과 논쟁했습니다. 비베카난다는 말씀씨로는 자신을 당할 자가 없다 보니 25세가 될 때까지도 무척 교만했습니다. 그는 밝은 곳에서 왔기 때문에 여전히 힘이 있었지요. 비록 수행은 하지 않았지만 힘이 있고 말재주가 뛰어나 사람들은 그와 논쟁을 마치고 돌아가서도 며칠씩 가슴 아파하곤 했습니다. 그의 세 치 혀는 정말 대단했지요. 보통의 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씀씨는 사람들이 당해 낼 재간도 없었거니와 며칠 동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라마크리슈나가 별다른 학식이나 재산도 없는 보잘 것없는 시골 사람인데도 설법을 잘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자신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그는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를 찾아가서 그가 잠도 못 잘 만큼 머리가 아프도록 논쟁하려고 했습니다만 라마크리슈나가 있는 곳에 가자마자 그에게 ‘제도’되어 버렸습니다.

비베카난다는 원래 크리슈나를 모욕하고 그에게 창피를 주려고 갔기 때문에 크리슈나를 보자마자 쉬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크리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비베카난다를 어루만져 주었지요. 그냥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비베카난다는 즉시 깨달았으며 커다란 빛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무언가를 조금 알게 되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었는데, 크리슈나가 잠시 어루만져 주자 강한 전류가 흐른 것 같았지요. 그래서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크리슈나의 제자가 된 후에도 비베카난다는 자신에게 학식이 있다는 교만을 완전히 씻어 버리지 못하고 논쟁을 즐겼습니다. 때로는 스승의 눈에서 눈물을 뺄 정도로 논쟁을 즐기기도 했는데, 스승이 눈물을 흘린 것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가르쳤는데도 변함없이 나아지지 않는 교만한 제자를 두었으니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요. 그래도 어쨌든 스승은 끝까지 그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다 가르친 후에도 비베카난다는 스승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으며,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자기 스승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수많은 법사들이 있었으니 어찌면 그 법사들이 자기 스승보다 더 유명했을까도 모르지요. 그는 처음엔 출가하지 않았

다가 나중에는 출가했습니다. 출가한 후 5년 동안 이른바 스승이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기 스승이 정말 훌륭한지 아닌지를 증명하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승의 등급을 가늠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는 법사들의 설법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 의심이 들어 그들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는 어느 한적한 곳에 앉아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나는 이제 어느 곳에도 가지 않겠다. 깨닫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부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여기 앉아 죽겠다.”

그는 그곳에 앉아 모든 것을 다 놓아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배우고 싶지 않고 논쟁할 생각도 없으며, 스승도 필요 없고 제자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밝은 곳의 사람이며, 어떤 인연으로 이 사바세계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 임무를 깨닫고는 곧바로 돌아갔지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베카난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래 많은 힘을 가진 밝은 곳의 사람도 이 사바세계에 오면 고통스러운 데다 스승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심하지요. 그러므로 나를 믿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 역시 대수행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우리는 그 령기를 바랍니다. 기대한다는 건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요. 희망이 있으면 미래는 좀더 밝아지겠지만 희망이 없다면 끝입니다. 희망 없이는 오늘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내일을 거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희망’은 가장 좋은 것이며 가장 훌륭한 은인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이야기하고,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그만두도록 하세요.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일과 인과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의 은인이며 부처입니다.

무상정등정각인 신은 무정하고 쓸모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인간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인간은 신이고, 인간에게는 불성이 있으며, 천국은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무정합니까? 아닙니다. 신도 무정하지 않으며 무상정등정각도 무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정한 것처럼 보이기만 할 뿐이지요.

왜 내가 무상정등정각은 부처가 아니라고 말할까요? 부처에게는 자비심과 사랑과 밝은 면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무상정등정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부처는 밝은 면에만 속할 뿐 어두운 곳의 성품은 없지만 신에게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모두 있습니다. 석가 모니불이 대자대비하다면 신(가령 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최고의 자비이며 자비의 극치입니다. 지극히 자비로워서 오히려 자비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이 곧 ‘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밝은 곳에 속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은 사바세계나 지옥 등이며 그곳에는 전혀 빛이 없습니다. 부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저지르든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부처의 일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 해도 부처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

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 깨끗이 씻어 줍니다.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부처가 여러분을 구하러 내려오지요. 이해하겠습니까?

신의 일은 꽤 힘든 일입니다. 사람에게 별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니까요. 좋은 일을 하면 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린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신의 일입니다. 자녀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참 잘했어!”라면서 자녀를 응석받이로 키운다면 자녀는 점점 나빠지겠지요? 그와 같습니다.

옛날에 한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가 어떤 곳을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나무 위에서 그의 머리에 오줌을 쏟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들어 아이를 쳐다보고는 야단치지 않고 인사만 하고 지나가 버렸지요. 그러자 그 아이는 자기가 한 일이 잘한 것이라 생각하고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고관이 지나갈 때 그 아이가 전처럼 오줌을 쏟습니다. 그러자 그 고관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를 죽여 버렸지요. 만일 아이가 처음에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고관이 야단쳤더라면 감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관이 나무라지 않았기에 그 아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장난을 친 것인데, 그것이 습관이 된 나머지 마침내 일이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이나 도가 우리를 벌하는 것은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나 도를 가장 자비롭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는 대자비라서 중생을 데리고 올라갈 뿐 중생에게

벌을 주지는 못합니다. 중생에게 벌을 주면 그 자신이 견디지 못하니까요.

예컨대 나도 가끔 제자들을 끌어앉히곤 합니다. 원래는 세 시간 끌어앉으라고 해 놓고 5분이 지나선 참지 못하고 얼른 일어나라고 하지요. 제자가 끌어앉는 것이 마치 내가 끌어앉는 것 같아 참지 못하고는 “됐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벌을 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더 아프지요. 내가 참을 수만 있다면 오래 끌어앉히겠지만, 내가 참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스승의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더러 자비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자비일 뿐 최고의 자비는 아닙니다. 최고의 자비는 더 오래 끌어앉힘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그 아픈 마음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끌어앉는 것은 내가 끌어앉는 것과 같아서 내 마음도 아프니까요! 우리는 늘 “우리는 신의 자녀다.”라는 말을 듣는데, 신이 자녀에게 벌을 줄 때 자신은 아프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아프지만 신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있어야 합니다. 그곳은 세탁소입니다. 더러운 옷은 그곳에서 몇 번이고 세탁해야만 깨끗해질 수 있고, 그래야 다시 입을 수 있습니다.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런 일을 차마 하지 못하며 견디지도 못합니다. 그의 성품은 온통 밝기만 하니까요. 그는 밝은 곳의 사람으로 어두운 면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하기만 할 뿐 벌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처는 무상정등정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이해하겠

습니까?

전에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빼고요. 내 말은 포모사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중: 없습니다.) 불교에는 신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신도 추가하기로 하지요. 그렇지 않고 하루 종일 부처만 찾는다면 신이 무척 외로울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분별심이 있다는 말이므로 신도 이곳에 와서 우리와 대화하도록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인간은 소우주나 작은 신, 또는 신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방금 내가 말했듯이 신에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지만, 미워할 때는 그 사람을 죽이거나 패가망신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에게 신의 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사용하면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무지하여 나쁜 곳에 사용하면 아주 미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이 그렇게 좋다고만 생각지는 마십시오. 신은 우리와 같되 좀 더 거대할 뿐입니다. 이를테면 신은 한 사람이나 한 나라, 심지어 온 우주를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두 사람이나 한두 가정 혹은 한 나라, 한 민족만을 미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테면 흑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흑인들 역시 지구 시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이 한 나라를 미워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 전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설령 여러 나라라 해도 전부 죽일 수가 있지요. 가령 어느

날 신이 이 지구를 언짢게 생각한다면 전 지구를 몽땅 없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른바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 한두 사람이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이 한 것입니다. 본래의 힘이 한 것이지요. 영원히 존재하는,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은 ‘도’가 한 것입니다. 그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나쁜 것도 신이고 가장 좋은 것도 신입니다. 가장 자비로운 것도 신이고 가장 잔인한 것도 신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도 인간이며 가장 나쁜 것도 인간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떤 동물이 인간처럼 그렇게 좋습니까? 인간도 동물의 일종입니다. 동물처럼 움직이고 밥 먹고 잠자고 아이를 낳으니까요. 우리 두뇌가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의 왕입니다. 동물보다 조금 더 총명하니까요.

이 동물의 왕국에서 어떤 동물이 인간만큼 좋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위로해 주거나,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 주어 기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설법을 하고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의 육바라밀을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사랑으로 태양과 나무를 창조하여 인간을 이롭게 하지만 부득이할 때는 모두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 역시 사랑할 때는 큰 병원을 짓고 보시를 크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만, 미워할 때는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동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어떤 동물이 인간처럼 그렇게 잔인합니까? 동물은 다른 동물이 미우면 겨우 한두 마리만 죽이거나 아예 죽이지 않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배가 고파서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것뿐이지요. 사람들은 사자와 호랑이가 가장 야만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들도 배가 고파야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단지 입맛 때문에, 미움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수도 없이 죽입니다. 가정이고 나라고 할 것 없이 전부 죽이지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중죄를 지으면 왕이 구족九族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구족이 죽임을 당했으니 우리 인간의 형벌 체계야말로 가장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갖 형구를 발명하여 사람들을 처벌하지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뛰어나다는 형벌이란 형벌은 죄다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지옥에 그렇게 ‘뛰어난’ 형벌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지옥에서 사람들을 잘 처벌한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우리 이 사바세계에서도 지옥에 버금갈 정도로 인간을 잘 처벌합니다. (스승님 웃으심)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생명을 도탄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잔인한 것도 인간이고 가장 자애로운 것도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을 모방하고 신을 대표하는 신의 자녀이니까

요. 신이 온 우주를 창조했으므로 그가 바로 조물주이며, 그에겐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죽이는 것도 좋아합니다. 사실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완전히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없애 버리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자비로운 신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고쳐서 쓸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누군가 사 가지고 가서 고치고 칠하고 광을 내서 다시 쓸 겁니다. 우리 명상 센터에 있는 고물 차도 다섯 주인을 거친 중고인데 이미 여러 번 수리했습니다. 다섯 주인이나 거친 차이다 보니 항상 수리를 해야만 설법하러 갈 때 탈 수가 있지요. 이 고물 차가 없다면 걸어가도 되긴 합니다만 차가 있으면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걷는 대신에 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차는 수리하면 아직도 탈 수 있으므로 우리는 수리해서 사용합니다. 수리할 수 없게 되면 폐차장에 보내서 고철로 만들어야겠지요. 여러분은 그런 공장을 본 적 있습니까? 거기선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는 차나 냉장고를 한꺼번에 압축시켜 고철 덩어리로 만듭니다. 그렇지요? 그런 고철 덩어리는 아무리 값이 싸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범부의 마음으로 보면 신이 잔인하겠지만,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바로 수리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밝은 곳의 사람은 이 세상을 수리하려고 옵니다. 그는 신과 이렇게 상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서둘러서 인간 세상을 소멸시키

지는 마십시오. 제가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만일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면 그때 당신께 처분하도록 넘겨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불보살은 마음이 매우 급합니다. 중생이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채식을 하고 염불을 하며, 밤새 꿇어앉아 참회의 절을 하고 산전에 절하는 것을 보면 불보살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불보살에게는 자비심만 있으니까요. 그의 일은 오직 사람을 구하는 것일 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신은 두 종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은 사랑하지만 나쁜 것은 없애 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과 같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무엇이든 다 주지만 사랑하지 않을 때는 죽이거나 비방하는 것처럼 신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원래 부모를 닮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번뇌는 보리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탐진치 역시 보리입니다. 탐진치가 없으면 불성도 없고 보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과 마찬가지로 나쁜 성품과 좋은 성품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왜 여전히 불보살은 우리에게 수행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신과 같다면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가기만 하면 될 것을, 왜 꼭 수행해야 한다고 할까요? 신은 영원히 존재하며, 우리도 신과 같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지닌 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수행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압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좋은 화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화두가 없었으니 우리가 이 화두를 추가하면 되겠군요. 가령 화두가 100개 있었다면 지금 하나를 보태어 101개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화두는 ‘왜 우리는 수행해야 하는가’입니다. 듣자하니 우리는 본래 신이고 무상정등정각이며 불성을 갖고 있다는데, 왜 또 수행을 해야 할까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화두는 참구하지 않고 ‘달마대사는 왜 동쪽으로 갔는가’와 같은 이상한 화두만 풀려고 합니다. 그런 화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 수행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나는 중생은 신과 같다고 했는데, 왜 중생을 교화해야 할까요? 동물을 가르쳐서 인간처럼 그렇게 잔인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 우리가 부처처럼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신에게는 좋고 나쁨이 있는데, 우리는 나쁜 품성은 원치 않고 좋은 품성만 원하기 때문에 수행합니다.) 좋습니다. 저 사람은 깨달았군요. (대중 웃음) 여러분은 그의 대답에 동의합니까? 그가 한 말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 맞습니다.) 정말입니까? 몇 사람이나 찬성합니까? 손을 들어 보세요. 절반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절반은 맞다고 생각하는군요. 좋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모두 성불한 후에는 신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신은 어디로 갈까요?

(어떤 사람: 신도 성불합니다.) 신도 성불해야 한다고요? (스승님 웃음) 그렇게 되면 세상이 사라지게 되므로 역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식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사바세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를 좋아하는 중생이 있는 한 여전히

신이 필요하며, 모두 성불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는 자비롭고 청정할 뿐 인간을 차별하지 못합니다. 고장난 부분을 수리만 할 뿐, 수리할 수 없는 차를 부순 다음 쓸 만한 것으로 다시 만들지는 못하지요. 이미 망가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차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폐철을 처리하는 공장에서는 이미 망가진 것들을 사들여서 고철로 만든 다음 다른 공장에 팝니다. 그 공장에서는 다시 고철을 불 속에 넣고 녹인 다음 거푸집에 부어 유용한 도구로 만들지요. 차·비행기·배를 만들 수도 있고 마이크나 만년필·드라이버·엔진 같은 작은 물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사윤회’입니다.

인간이 모기나 뱀·사자와 같은 동물로 변하는 것은 모두 그렇게 놀렸다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차나 냉장고였지만 망가진 후에는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듯이 말입니다. 만일 생사윤회가 두렵다면 즉시 부처에게 배우거나 수리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길 기다렸다가 작디작은 것으로 분해되어 버리지는 마십시오.

생사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전히 신이 필요합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지 않고, 즐거운 상황이나 부처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중생들도 있으니깐요. 그들은 좋고 나쁨이 있고 고통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좋아하므로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택을 하듯 다른 중생 역시 그들 자신의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부처도 아주 자유롭습니다. 물론 부처는 수리하는 것이나 중생을 돕는 것을 무척 좋아하지만 중생이 원치 않으면 부처라 해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하며, 부처 역시 자기 자신의 일을 합니다. 기왕 인간이 신인 바에야 왜 또 수행하여 신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인간에게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고신에게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왜 우리는 신은 가장 자비롭다고 칭송하면서 인간은 무지하고 잔인하고 자비심이 없다고 비난할까요? 왜냐하면 신이 하는 일은 무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테면 우리가 평후에 가서 강연하려고 할 때, 차를 세워 둔 곳에 누군가 와서 장난으로 타이어의 공기를 빼 버린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이 걸어가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 차가 낡았다고 그걸 망가트리려고 한 건 아닐 겁니다. 장난삼아 그랬거나 그곳에 우리 차를 주차시킨 것이 못마땅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지요. 이것은 폐차장에서 차를 눌러 찌그러뜨리거나 아니면 정비소에서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신의 차별이나 소멸이라는 것은 모두 인간을 좋게 하고, 새롭고 쓸모 있는 중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벌을 주거나 인간 세상을 소멸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미움 때문이며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를 없애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이것은 모두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록 신의 성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과 같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선악小善惡의 성품에서 대선악大善惡으로, 혹은 신과 같은 최고의 선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해서 좋은 성품만 있고 나쁜 성품은 없는 부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 역시 수행한 후에 무상정등정각이 되고 신처럼 되어서 나쁜 일과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상 ‘선’도 좋은 것이 아니고 ‘악’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최고의 경지를 깨달았을 때 선악이 따로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좋고 나쁨이 모두 같으며 아무런 분별도 없었던 것이지요. 무상정등정각은 명백한 풍격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불해야 할까요? 그건 선과 악 둘 다 존재하는 형벌 체제 안에 머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불한 후에는 밝은 곳에만 머물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며 영원히 이 처벌의 세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는 인과를 초월하였다고 말합니다. 좋은 곳에 살면서 좋은 일만 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라야 성불할 수 있고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직 사람을 가르쳐야 하고 아직 형影이 있고 상相이 있기 때문에 부처인 것이지, 만일 열반에 들어 무상정등정각으로 변한다면 더 이상 부처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무형 무상으로서 이 큰 힘과 동일체가 되니까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미타불은 무상정등정각이 아닙니다. 무상정등정각이 될 수 없

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세생생 빛을 내어 사람을 제도하겠다고 발원했으니까요. 만일 아직도 ‘뜻’을 가지고 빛을 내어 사람을 제도하려고 한다면 그건 그가 아직은 부처의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아미타불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부처일 뿐 무상정등정각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아직도 좋은 일을 하고 사람을 구하고자 한다면 무상정등정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발원이고 그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당신은 어떻게 아미타불이 무상정등정각이 아니라고 말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말을 이해하겠지요? 아미타불은 무상정등정각이 아닙니다. 만일 그가 무상정등정각이라면 그런 선악의 사정을 상관치 않습니다. 부처는 좋은 일만 할 뿐입니다. 아미타불은 아직도 빛을 내어 사람들을 제도하려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좋아하며, 좋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무상정등정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생이든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가 바로 제도하지요. 중생은 영원히 제도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무상정등정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장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 비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성불하지 못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예.) 깨달았군요! 축하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은 모두 이해하는군요. 여태껏 아무도 말한 적이 없는 이런 이치조차도 여러분은 즉시 이해하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포모사 사람들이나 전세계의 불교인들은 부처가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말합니다. 그

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처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며, 모두들 신이 가장 좋다고 칭송합니다.

신은 아주 좋기도 하지만 아주 나쁘기도 합니다. 우리는 칭송할 때 왜 그를 칭송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이 좋다고 하는 말만 대충 듣고 덩달아 그가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어떻게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는 모릅니다. 부처가 좋다는 말은 들어어도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지요. 이런 것이 이른바 미신이며 맹신입니다.

내 설법을 듣는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왜 믿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는 이미 불교인데, 내게 또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겁니까?” 혹은 “나는 이미 천주교인으로서 신을 알고 있는데,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겁니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천주교인은 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불교인도 부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이해하겠습니까? 모르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만일 신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그녀를 그리워할 수 있고, 어떻게 그녀를 좋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매일 그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치를 모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먼저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믿으라고만 하고, 사람들이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명백한 이치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외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오히려 나를 외도라고 하지요. 나는 그들 역시 외도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범한 외도이고 나는 가장 좋은 외도입니다. (대중 박수) 그들도 외도이고 나 또한 외도이지요. 나는 분별심이 없습니다. (대중 웃음)



8장

어떻게 복을 받고
업을 피하는가

8장

어떻게 복을 받고 업을 피하는가

1988. 6. 9. 포모사 타이중 시립 문화센터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만일 부모가 아기를 사랑으로 돌봐 주지 않는다면 아기는 자라지 못할 거예요. 옛날에 한 폭군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동물과 함께 살도록 깊은 산속에 버려 놓고는 아무도 돌봐 주지 못하도록 했지요. 아기에게 가끔 먹을 것만 가져다줄 뿐, 아무도 그 아기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안아 준다든지, 보호해 준다든지, 사랑해 주지 못하도록 하고선 인간의 사랑 어린 보살핌이 전무한 상태에서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아기는 발육이 부진한 데다 인간과 달리 네 발로 기어다니고 동물의 말을 하며 행동도 무척 야만스럽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한 과학자는 어린아이를 부모와 떨어뜨려 놓고 완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키웠는데, 그 아이는 잘 자라지도 못하고 생기도 없었

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결핍된 것은 사랑이지 음식이 아닙니다. 2, 3일간 먹을 것 없이 견딜 수는 있어도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 2, 3일이라면 무척이나 괴로울 겁니다. 그렇지요?

이럴테면 부부끼리 서로 맞지 않아 다투고는 2, 3일간 마주치기만 해도 서로를 노려보면서 말도 하지 않는다면 (대중 웃음) 너무나 괴롭지 않겠어요? 원망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무거운 마음으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술을 마시거나 터무니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의 본분은 사랑을 지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헐뜯으면서 나쁜 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누구에게나 좋은 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칭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라면 석가모니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사랑을 갖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석가모니불은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원수도 포함되겠지만, 원수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흔쾌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것도 쉽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니까요.

왜 우리의 사랑은 유한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큰 사랑과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미 이 큰 사

랑과 통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고 나서야 진정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그것이 그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큰 사랑과 통할 줄 모르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모두에게는 이 ‘불성’이 있습니다. 이 ‘불성’을 달리 표현하면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칭이 다르다면서 “불성과 큰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라며 논쟁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불성은 큰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불성을 찾은 후에는 저절로 큰 사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관계를 꿰뚫어 보고선 이 사람과 저 사람, 저 사람과 나, 나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지요. 그때서야 우리는 누구든 불보살이 뒤에서 안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죄의식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조물주가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 개인의 힘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업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간파한다면 우리에게 원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마치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움직이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육신은 꼭두각시 인형과 같습니다. 이 큰 사랑의 힘이 없으면 우리 또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자신도 자유롭고 남들도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큰 사랑이 모자란 데다가 자신의 불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성과 통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소 폭력적이긴 하지만 매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목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야만 모든 것, 모든 중생들이 다 불보살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모두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 웃으며 박수)

선은 말이 필요 없으며 눈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눈을 보는 것은 정말 “비쌉니다!” (대중 웃음) 돈으로 따져 비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내 눈을 보는 것은 완전 무료이지요. 그러나 한 번 보는 것은 정말 비쌉니다. 내 눈을 보고 나서는 어찌면 고기도 먹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출가하거나 (스승님 웃음) 관음 법문을 수행하고 싶어질 겁니다. 입문 후에는 남편이나 아내와의 인과가 전부 끊어져 훗날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눈을 한 번 보는 것은 무척 비쌉니다. 겁이 나면 내 눈을 보지 마십시오. (스승님과 대중 함께 웃음)

눈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대수행자의 눈을 보아도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고, 업이 많은 사람의 눈을 보아도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좋게 변하지만 후자는 비교적 불편하게 변하지요. 그래서 흉악한 사람의 눈을 보면 온몸이 떨리지만 수행

이 높고 자비로우며 사랑에 찬 사람의 눈을 보면 아주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온몸이 저린 듯, 나른한 듯하지요. (대중 웃음)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보문품」에 “관음보살은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본다.’”라고 써 있습니다. 관음보살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볼 때 중생의 복은 대해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보문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수행자의 눈을 보고 싶어합니다. 경전을 보면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 사람들이 모두 합장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 있는 부처를 보고는 곧 삼매에 들기도 하지요. 눈을 보고 난 후에는 살아 있는 부처는 보이지 않고 빛만 보이는데, 너무나 편안해져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삼매에 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대수행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로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를 한 번 보고 곧바로 깨닫기도 하지요. 우리는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되고 여러 경전의 의미와 여태껏 몰랐던 많은 것들을 이해하거나 갑자기 삼매에 들어 아주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보면 또다시 보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대수행자가 필요해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그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행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에게 우리를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타인의 신앙을 폄박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벌써 우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한

번만 보아도 좋아하게 되므로 사람들과 어떤 논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세상의 언어로 논쟁할 건가요? 선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강연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두뇌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만 두뇌를 백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지요. 두뇌가 텅 비고 나서야 “선禪은 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문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한 번 보고도 깨닫게 되므로 반드시 내 강연을 들어야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행 단체에 육십 평생을 살생하면서 살아온 한 출가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난 적도, 누구의 설법을 들은 적도 없이 깊은 산속에서 매일 사냥이나 하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표준 중국어도 모르고 포모사어도 절반 정도밖에 몰라서 포모사어와 일본어를 섞어 가며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그는 내가 강가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달려와 점을 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나는 타이둥에서 설법하며 강가에 텐트를 쳐 놓고 지내고 있었지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점을 볼 줄 모릅니다. 더구나 출가자의 계율이나 규정에는 사람들에게 점을 봐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대답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서 하모니카만 연주했지요. 연주가 끝나자 나는 제자를 시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는 겨우 옷 한 벌만 걸치고 있었는데,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아주 가난해 보였습니다. 들어서면서부터 거친 태도를 보인 데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한참 동안이나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나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가 집에 돌아가 보약을 줌 사 먹을 수 있도록 제자에게 돈을 주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줌 주자 그는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채식을 하라거나 살생하지 말라고 권하지도 않았고, 어떤 도덕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권하지도 않았으며, 나에게 배우라는 말은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 겁부터 집어먹었지요. 마치 서유기에 나오는 사오정이 머리를 깎지 않았을 때의 모습처럼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말투는 무척 거칠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마디의 권고도 하지 않고 그냥 먹을 것을 주고는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포모사어를 모르니 내 제자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가면서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채식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더군요. 또 내 제자에게 나를 따라 배울 수 없다고 했다는데 나 역시 그에게 아무것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그는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내게 감화되어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고는 이제부터 다시는 살생하지 않겠다고 잡았던 동물을 모두 풀어주고는 내게 꼭 출가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판사람으로 변했던 거지요. 그 사람의 예전 모습을 알던 사람이라면 지금의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가 집에 돌아갔을 때 30년을 함께 지냈던 친구도 몰라볼 정도였으니 말

입니다.

불보살의 사랑은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어가 필요 없지요. 인연이 있으면 한 번만 보아도 도를 깨치거나 깨달음을 얻게 되어 달리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즉각 도를 깨치는’ 등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내 설법을 듣고, 내 책을 보고, 내 오디오 테이프를 듣고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중생의 등급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겠지요.

어제 어떤 사람이 내게 “중생은 모두 제도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서 나는 “모두 제도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생들이 다 제도되더라도 여전히 돌들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 돌들이 초목으로 변하고 초목은 다시 동물로, 동물은 다시 사람으로 변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이 되었어도 흉악하면 곧바로 성불하지 못하고 다시 동물이나 돌이 되어 수없이 윤회해야 하지요.

지금 깨달은 스승을 만났다 해도 그를 따라 배우지 않고 기회를 놓친다면 몇 억 년을 기다려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몇 억 년을 말입니다! 몇 만 년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법시대이므로 몇 억 년을 기다려야 깨달은 스승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생에서 깨달은 스승을 만나고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다음번에 태어나서 그 스승을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것은 인연의 시기와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전생에 좋은 일도

했고 나쁜 일도 했습니다. 좋고 나쁜 모든 일을 해봤지요. 지금은 우리가 좋은 일을 했던 복을 받는 시간이라서 자연스레 깨달은 스승도 만나고 복도 누리며 부유한 생활에 몸도 건강합니다. 병도 없고 일을 해도 아무런 장애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이 좋은 기회를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조만간 어둡고 암울한 시기가 닥쳤을 때 미처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계속 아래로 끌어내려져 어떤 일을 해도 순조롭지 못하고 업만 더 많이 짓게 되어 다음 생에 선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인색하고 욕심이 많아 한 번도 보시나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돈을 끌어안고 세는 것이 일과였지요. 게다가 결혼을 하면 부인이 많이 먹을까 봐, 아이가 생겨 골치 아파질까 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 다. 또 친구를 사귀면 자기 집에 와서 얘기를 나눌 때 커피나 우유를 마실까 봐 겁이 나서 친구도 사귀지 못했지요. (대중 웃음) 그리고 남의 잔칫집에 가면 나중에 자기가 다시 그들을 대접하고 차비를 써야 하니 그게 겁이 나서 잔칫집에도 가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그 부자는 친구도 없이 아주 고독하게 지냈습니 다. 하지만 매일 돈을 세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외롭다고 느끼지도 않았지요. 그 부자에게는 친구도 돈이고, 처자식도 돈이며, 복도 돈이고, 수행하는 법문도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만 사천 법문 안에는 돈도 포함되어 있나 봅니 다. (대중 웃음) 어제 여러분이 팔만 사천 법문에 대해 물었을 때 어떤 법문은 좋지 않기 때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법문은 오

직 관음법문뿐이지요. 방금 말했듯이 다른 법문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다지 도움은 안 됩니다.

어느 날 그 부자는 근처에 사는 한 사람이 죽으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모든 이에게 나눠 준다고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든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도 된다고 했지요. 그 부자는 아무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혼자서는 다 들고 가지도 못할 만큼 많은 양의 물건을 챙겼습니 다. 그렇지만 차를 산다거나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고 싶지는 않았지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다 집에 가져가고 싶었지만 너무 무거워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걸 놔두고 가자니 아깝고 또 저걸 놔두고 가자니 섭섭해서 하나도 버리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지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까지 들어다 드릴까요?” 부자는 깜짝 놀라며 “당신은 혹 돈을 원하는 게 아니요? 난 남의 도움은 필요 없소. 난 누구에게도 내 돈을 주고 싶지 않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 다. 돈을 받지 않고 당신 집까지 옮겨다 드리지요.” 부자가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이 있다니! 정말이요?” 하며 묻자 그는 “정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구두쇠 부자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가 진짜로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들고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색하고 욕심 많은 부자는 곧 “돈을 달라는 건 절대 안 되오!”라고 정색을 했지요. (대중 웃음) 그러자 그는 “아닙니 다. 저는 당신 돈이나 재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란 당신 집에 가는 도중 제 얘기를 두 시간 동안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마침 당신 집까지 가는 데 두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게 제 조건입니다. 어때요?” 부자가 말했습니다. “좋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시간도 빨리 갈 테니까.” (대중 웃음)

두 사람은 함께 물건을 들고 길을 갔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계속 신의 일과 송고한 이상, 불보살, 도덕적인 것, 최고의 진리를 찬탄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하자 부자가 말했습니다. “됐소. 집에 다 왔으니 더 이상 듣지 않겠소. 물건을 내려놓고 그만 가 보시오.”

그러고선 곧바로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혹시 그가 집에 들어와서 물이나 뭔가를 마실까 봐 두려웠지요. (대중 웃음) 그는 문밖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해줄 말이 아직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자는 그가 돈이나 뭔가를 달라고 할까 봐 겁을 내며 “뭔지 몰라도 어서 말해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은 사흘 후에 죽게 됩니다.”라고 했지요. (대중 웃음) 부자가 기가 차서 “농담하는 거요? 내가 죽긴 왜 죽어?”라고 소리치자 그는 “지금은 제 말이 믿기지 않겠지만 사흘 후에는 저절로 믿게 될 겁니다. 저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언제 죽을지를 압니다. 당신이 전생에 제게 도움을 준 인연이 있는 데다 지금 제가 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당신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사흘 후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준비를 해 두세요. 전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 주러 왔을 뿐 당신의 재물 같은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죽을 때 가지고 갈 복이 없을까 봐 염려되어 이렇게 특별히 와서 당

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려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염라대왕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염라대왕이 당신을 보고선 복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좋은 일도 하지 않았으며 보시·지계·정진·선정·지혜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겐 유일한 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두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요.” (대중 웃음)

“만일 염라대왕이 당신에게 ‘너는 지금 복을 먼저 받겠느냐, 아니면 업을 먼저 받겠느냐?’라고 물으면, 당신은 업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저는 두 시간 설법을 들은 복을 먼저 받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당신에게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업으로 인한 벌을 먼저 받게 되면 백천만겁이 지나도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는 당신을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인색하고 욕심 많은 부자가 말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면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겠소.”) 그러고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사흘 후 부자는 정말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보니 그의 업장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엄청났지요. 온통 업투성이인지라 마지막에야 겨우 두 시간 설법을 들은 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중 웃음) 염라대왕은 과연 앞서 그 사람이 경고한 대로 그 부자에게 “너는 지금 복을 먼저 받겠느냐, 아니면 업을 먼저 받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먼저 복을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요. (대중 웃음) 그러자 염라대왕은 “좋다. 그럼 천당으로 보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부자는 두 시간 동안 신의 이름을 듣고 깨달은 수행자의 설법을 들었기 때문에 가가

스로 천당에 갈 수 있었습니다.

천당에 가자마자 부자는 곧바로 며칠 전에 자기에게 설법을 해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천인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었지요. 부자는 그를 보자마자 “당신이군요!” 하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래요, 접니다. 지금 앉아서 또 들으세요!”라고 했지요. (스승님과 대중 함께 웃으며 대중 박수) 그래서 그 부자는 다섯 시간 동안 설법을 들었으며, 그로 인해 부자의 복은 더 커졌습니다.

두 시간 설법을 들은 것 때문에 천당에서 백 년을 살 수 있었는데, 다섯 시간을 더 듣는 바람에 다시 천 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이 다하고 때가 되자 다시 지옥에 가야 했지요. 그는 부자에게 “지옥에 가면 염라대왕에게 이 다섯 시간의 복을 먼저 받겠다고 말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다섯 시간의 복이 다 끝나자 염라대왕은 “너에게는 큰스승이 있으니 달리 방도가 없구나! 좋다. 벌을 주지 않을 테니 이젠 가도 좋다!”라고 했지요. (대중 박수)

우리는 복과 업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기롭다면 복을 받는 시기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누리 동안 다시 또 다른 복을 짓는다면 우리의 복은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아집니다. 설사 우리에게 업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사람일 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업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미 너무 늦지요. 업이 왔을 때는 지옥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하므로 우리를 구하러 올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아직 지옥에 있지 않고 사람으로 태

어나 육근六根이 온전한 이때 수행한다면 늦지 않습니다. 아직 복이 남아 있을 때 큰 복을 더 지으면 복은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많아지게 되지요. 업은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업은 모두 복에 파묻힐 테니까요.

그래서 염라대왕은 큰스승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염라대왕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큰스승은 무서워합니다. 염라대왕은 큰스승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누구든 큰스승의 눈길을 한 번만 받아도 구원되어 염라대왕과는 전혀 무관한 사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큰스승을 공격하는 사람은 모두 염라대왕의 부하들입니다. 그들의 일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을 막고 스승을 알지 못하도록 하여 세세생생 윤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벌을 줄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시험일 뿐 결코 악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체계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있고 공무원과 경찰이 있는 국가 조직과 같지요. 경찰은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여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고 군인은 적을 무찔러 국가의 평화를 지키는데, 이런 일들은 결코 악의가 아닌 하나의 체계일 뿐입니다. 만일 이런 체계를 피하고 싶다면 높은 법문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욕해서는 안 되며, 다른 길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경찰과 연관되거나 경찰에게 처벌받고 싶지 않다면 도둑질도 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며, 나쁜 짓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하지요.

학식이 높으면 대통령이나 장관?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구해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왜 사람들을 처벌하느냐고 하루 종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연계되지 않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는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불보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이나 마귀와는 연계되지 말고 불보살과 연계되기만 하면 됩니다. 귀신이나 마귀도 결국에는 수행해서 불보살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들이 수행을 원치 않고 그런 일만을 하고 싶어하는 것뿐입니다.



9장

재앙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9장

재앙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1988. 10. 13. 포모사 타이난 아쉬람

우리는 최근 외부로부터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지요. 나는 흥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포모사에 온 후 은둔해 지내다 5년이 지나서 흥법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알게 된 것도 기껏해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됐나요? (대중: 예.) 어떤 사람은 1년 정도 되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아직 안 되었을 겁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대중: 예.) 압력이 너무나 많아 아주 무겁습니다. 그들은 나만 공격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공격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모두 공격을 당해 정신이 얼떨떨하지요. (스승님 웃으심)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 있지요. 마치 센터에 심은 묘목처럼 말입니다. 비록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바람을 여러 차례 맞긴 했지만 파릇파릇 새싹이 돋

아나고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았지요? 정말 생기가 돌고 푸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사 때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여러분 텐트에 비가 새는 데다 바람까지 불어 텐트가 모두 날아가 버렸지요. 나는 새로 심은 묘목들이 심한 비바람을 맞아서 모두 쓰러지거나 못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욱 생기가 나고 튼튼하게 자라서 지금은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있으니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지요. 그날 비바람을 맞고는 달라졌습니다. 잎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파란 싹까지 돋아났지요. 예전에 가끔 물을 주었을 때보다도 훨씬 잘 자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 마찬가지로입니다. 작년에는 이곳저곳을 얻어맞고 많은 시련을 당하며 많은 압력을 받았지만 올해는 좀 나아졌습니다. 작년 말에 처음으로 타이난에서 공개 강연을 시작했지요. 그전에는 공개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강연이라고 해서 사전에 포스터를 붙이거나 선전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모두들 그저 친구나 가족들 손에 이끌려 와 강연을 듣는 정도였지요.

첫 강연 때는 견본책자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지요. 좀더 수월해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많이 수월해졌음을 느낍니다. 비록 여전히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보다 더 눈에 띄게, 더 맹렬하게,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비방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아주 가뿐하고 즐겁습니다. 그런 비방을 듣고 따를 사람들이었다면 애당초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수행 공덕이 큰 사람만이 관음법문을 수행할 수 있지요.

우리는 세세생생 큰스승들이 있었다는 말은 들었어도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서야 그런 큰스승들이 모두 관음법문을 가르쳤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에는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몰랐지요. 이 법문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세생생 그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만 수행을 했으며 성불한 사람은 더더욱 적었던 것입니다.

마치 음악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쟁 같은 악기를 배우지만 그렇다고 모두 유명해지거나 쟁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하루 이틀 배우고는 포기하거나, 나처럼 2, 3주 배우다가 그만두기도 하지요. 바쁘거나 흥미를 잃었으니까요.

이란(宜蘭)에 사는 어떤 사람은 쟁을 겨우 5년 배우고 나서 쟁 선생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0년, 20년을 배워도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는데 말이지요. 우리 제자 가운데 그 선생에게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쟁을 불과 5년 배우고 선생이 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선생은 연주도 아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 선생은 전생에 쟁을 배웠거나 아니면 높은 경지에 있을 때 이미 다 배우고 졸업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높은 경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행자 중 어떤 사람들은 범부가 아닙니다. 도리천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제4세계나 제3세계, 제2세계 또는 아수라 세계에서 온 사람도 있지요. (대중 웃음) 자신의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럴테면 성격이 교만하고 다투거나 발악하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제1세계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제1세계’요. (중국어로 지옥(띠위)과 제1(띠이)의 발음이 비슷함.) (대중 웃음) 어찌면 지옥에서 왔는지도 모르지요. (스승님 웃으심) 축생도에서 곧바로 온 사람도 있고, 갖가지 상황들이 존재해서 다소 복잡합니다.

그러나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변화가 아주 빠릅니다. 우리 출가자 중에도 그런 예가 아주 많지요. 1년 전과 1년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주 힘들게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날마다 기회만 되면 꾸짖어야 했지요. 꼭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더라도 핑계를 찾아 야단침으로써 그들의 업을 빠르게 씻어 주었습니다.

엄한 스승이 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밀라레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밀라레빠의 스승은 그를 아주 힘들게 훈련시키느라 늘 꾸짖고 때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밀라레빠가 떠났을 땐 무척 고통스러워했지요. 남몰래 울면서 밀라레빠가 빨리 돌아오도록 해 달라고 시방 삼세불에게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스승의 마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팔선인(총리·장과로·한상자·이철교·조국구·여동빈·남재화·하선고 등 중국에서 유명한 여덟 명의 신선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중 고관이었던 조국구가 신선이 되고 싶어하자 다른 신선들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조국구가 배에 올라타서 “여보게, 사공! 내가 앓을 의자를 좀 갖다 주게.” 하고 말하자 사공으로 변장한 신선 하선고는 “배에 무슨 의자가 있다고 달라는 게요! 서서 가시오!”라고 했지요. 조국구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시험을 거친 후에

야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조국구가 일부러 의자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기보다는 고관을 지냈던 습관 탓에 좀 오만했던 것입니다.

전생에 도적의 두목이었던 사람은 이생에서도 여전히 난폭하고 오만합니다. 또는 사회에서 웃어른·사장·선생님이라서 사람들을 지휘하는 데 습관이 됐거나, 집에서 노마님이나 영감마님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데 습관이 된 사람이라면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은 데다 도를 구할 때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도를 구하는 것은 간단하여 법을 전해 달라고 요구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는 걸까?’ 하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스스로 벽을 쌓아 자신을 가로막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엄한 스승이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엄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라고 입으로 말만 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요. 어디 그리 간단하겠습니까? 사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엄한 스승 노릇이라고 다를 게 어디 있겠어요? 제자를 훈련시키려면 고생스러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포모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외국인이라서 사람들은 나를 잘 모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기편을 선호하지요. 그렇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은 혈연 관계의 형제자매가 남보다는 낫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미 배척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름도 들어 보지 못한 외국인에다 그렇게 엄하기까지 하니 누가 그녀에게 배우고 싶겠습니까? (대중 웃음) 공양도 받지 않고 꾸짖거나 하는 칭하이 스승에게 와서 배우느니 차라리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보시를 해서 왕처럼 대접받는 게 낫지요.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우리 스승과 제자 모두 좀더 수월해질 겁니다. 한가위부터는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여러분을 좀 기쁘게 해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 주는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기뻐하되 교만한 군인이 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신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고 나면 교만한 군인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교만한 군인이 제일 빨리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훈련도 게을리하기 때문에 적은 무방비 상태인 그런 군인을 쉽게 격퇴시키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면으로 매일 훈련을 쌓고 있으므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알려 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승의 허락 없이 이 힘은 절대 훔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마치 다른 사람의 수표를 훔쳐다가 자기 이름을 서명하고서 돈을 찾으러 간다 해도 은행에서 선뜻 돈을 내주지는커녕 오히려 그곳 사람들에게 붙들리고 마는 것과 같지요. 그러므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오불을 누설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지요. 오불을 누설한 사람에게 나쁘기 때문이지 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불을 배우는 것은 첫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 간직하지 못하고 누설한다면 대밀법(大密法)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 겨우 알파벳 26자만 배우고선 사람들에게 영어의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고 떠드는 것과 같지요. 모든 영문법이 이 26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지긴 했어도 오랫동안 영어를 배우고 익혀야 그걸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26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지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모두 밀교密敎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수행은 다른 사람이 훔칠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내면의 체험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내면으로 스승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기록하거나 듣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오불을 누설하는 것은 가소로울 정도의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진정한 밀교입니다. 내면으로 가르쳐 준 것이니까요. 오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 오불을 외운다 해도 우습기만 할 뿐 아무런 힘이나 감응이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수표를 훔친 것처럼 돈이 생기지 않지요. 이해하겠습니까? 함부로 오불을 누설하는 업은 대단히 큼니다.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나쁜 의도로 했다면 나쁜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최고의 부처를 비방하면 아주 곤란해지지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이지 너무 무지합니다.

설령 이미 참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사라졌다거나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세계와 수많은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무엇이든 보고, 잡고, 만지고, 가질 수 있지요. 또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세계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스트랄계가 우리와 비교적 가깝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급하면서도 나쁘거나, 속세에서 좋다고 여기는 생각들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 생각들은 아스트랄계 가까운 곳으로 날아가는데, 우리는 그곳을 대기층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므로 때로 어떤 병에 걸린다든지, 전염병이 나뉜다든지, 재난이나 전쟁 등의 천재와 인재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우리 지구인이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일만 했는데도 몹쓸 병에 걸렸다거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두들 부처를 믿고 어디서나 절을 하는데도 왜 이런 천재를 겪어야 하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지구인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거나 현재 나쁜 생각을 했던 탓이지요. 알겠습니까?

잠시 생각했다가 그 생각을 끊어 버리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생각의 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힘 자체에 지식이나 총명함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원소라고 하지요. 원소는 영혼도 없고 내면에 부처의 능력도 없으며 지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마치 영혼이 없어도 생각은 할 수 있는 컴퓨터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흉악하고 올바르지 못한 생각들은 컴퓨터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컴퓨터라면 부숴 버리기라도 하겠지만 그런 흉악한 생각들을 없애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르다 해도 끝없이 존재하면서 자기와 같은 자장을 가진 생각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다가 조만간 적당한 기회를 찾아 그 힘을 폭발시키는데 스스로는 결코 소멸되지 않지요.

컴퓨터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너무 많이 사용하면 저절로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또 스위치를 잘못 눌러 컴퓨터가 망가져 버리면 그동안 저장해 두었던 모든 자료들이 일시에 사라져 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흉악한 생각은 일단 생기게 되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우리 주변이나 마을·도시·국가·지구 등을 에워싸는 기운으로 존재하다가 질병이나 재난·전쟁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병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기운들이 같은 생각들을 찾아 그 자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유유상종이지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를 기다리거나 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자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같은 것끼리는 쉽게 섞이기 마련이라 우리 자장 속으로 들어온 것은 계속해서 두뇌와 신경에 침입한 다음 우리의 저항력을 떨어뜨려 암이나 정신이상이라든지 여태껏 들어 보지도 못한 병들을 만들어 냅니다. 항상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생에 좋지 않은 기운을 발산했던 탓에 지금 이생에 돌아와 그 나쁜 기운을 흡수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지요.

그러므로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의 친구의가 24시간 깨끗하다면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질이 다르다 보니 끌어당길 수 없는 데다 들어온다 해도 곧바로 분리되지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업을 녹일 수 있습니다. 비록 전에 흉악한 생각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줄일 수가 있지요. 원래는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들어올 수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만 들어올 뿐이라서 여기 조금 가렵다든지, 저기 조금 아프다든지, 2, 3일 정도 열이 난다든지 할 뿐 암으로 진전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차는 부딪혀서 망가지겠지만 사람은 죽지 않고 찰과상 정도만 입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사바세계에 있을 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구의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계를 벗어난 후에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곳에는 흉악한 기운도 없고 흉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으며, 오직 청정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일 수행하는 데 꼭 계를 지키거나 신구의를 깨끗이 할 필요가 없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가 가소로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수행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린이 장난쯤으로 여기지요.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 차를 운전하는 것은 아주 진지하고 복잡한 일인 데 반해 아이들은 입으로 ‘붕붕’ 소리를 내면서 차를 운전하는 상상을 하며 아주 재미있어합니다. 아이들은 차를 운전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집 짓는 일이 우리에게 아주 힘든 일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간단한 일입니다. 그냥 돌을 쌓아 놓고는 집을 다 지었다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도 아이들이 기뻐하라고 잘했다고 ‘성과’를 칭찬해 줍니다. 또 우리는 돈을 주고 과자를 사지만, 아이들은 흙으로 과자를 만들고 잎사귀를 돈이라고 하면서 사고팝니다. 그렇게 떠들썩하고 즐겁게 논 다음 집에 돌아가 잎사귀를 세어 보고는 “와! 정말 돈이 많은데. 이젠 부자다!” 하고 소리치며 기뻐하지요.

예로부터 수행을 쉽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행을 쉽게 성취한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삼계 너머에서 온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별 장애가 없으며, 수행상의 장애도 아주 적습니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마야가 와서 유혹하는 정도이지요. 마치 석가모니불이 성불하기 직전에 마주쳤던 그 상황처럼 말입니다. 마왕이 석가모니의 부인이나 아들 또는 절세미인으로 변하여 그를 유혹했지만, 석가모니불은 “너희는 모두 환상이다.”라고 말한 후 그들을 제압함으로써 마왕을 물리쳤습니다.

석가모니에겐 이런 것들이 장애였습니다. 이것 외에는 별다른 장애 없이 수행한 지 6년 만에 성불했지요. 우리는 60년, 아니 600년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다른 법문을 수행하면 600년, 아니 600겁이 지나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래로는 밥을 지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삼계 이내나 삼계 너머에 있더라도 수행해서 신구의를 깨닫기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삼계 너머에 다다랐다고 누군가 말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신이 삼계 이내에 있는지 삼계 너머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삼계 이내에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삼계 너머에 있었든 말든 현재는 삼계 이내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저기에 묶여 있어 홀가분하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삼계 이내에 있다는 말이니 어서 빨리 수행하여 삼계를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설령 불보살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수행해야 하지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조차 사막에서

수행할 때는 마왕이 찾아와 괴로울 정도로 유혹했습니다. 예수는 인도에서 십수 년을 수행한 후 사막에서 40일간 명상했습니다. 막 성불하려고 할 때 마왕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대가 내게 한 번만 절을 해도 삼계는 모두 그대의 것이요.”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라!”라고 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니 사라지라는 말이었지요.

삼계 이내의 범천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티베트의 라마승으로 무척 유명했지요. 그의 저서에서 그는 자신이 삼계 이내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계 이내의 왕이라 해도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으며, 우리의 목표는 삼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삼계 너머의 길은 아직 멀고도 맵니다. 삼계를 벗어났다는 것은 이미 해탈했음을 보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 다시는 삼계 이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뿐이지요. 삼계를 벗어났다고 해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5세계에 이르면 무엇을 합니까? 무료하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는 또 무엇을 하며 살지요?”라고 걱정스레 나에게 묻습니다. (대중 웃음)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무얼 하지요? 또 무슨 일이 있나요?”라고 묻는 것과 같지요. 이것은 결혼을 한 후에야 진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결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짓고 돈을 저축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가정과 부모를 돌보

고 사업을 꾸려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했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연애했던 끝에 간신히 힘들게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적인 일을 비유로 드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오묘하고 심오하게 말하면 갓 입문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은 세속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행하면서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쉽게 이해되지요.

그러나 매순간 최고의 힘만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고의 힘을 강렬하게 그리워하고,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를 온 마음으로 갈망하며,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린 자신이 사용할 강렬하고 좋은 기운을 만들게 되고 천당도 짓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여러분의 아쉬움을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설계할지 먼저 생각한 다음 모두 일심단결해서 지었기에 이 아쉬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훌륭한 설계가 없다면 나중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설계가 훌륭할수록 경지도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체유심조이니까요. 천국이나 지옥을 만드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 매일 전능한 힘을 잊지 말고 도와 달라고 성심껏 기도하십시오. “저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다른 건 주어도 좋고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쓸 만큼 충분해도 좋고 부족해도 좋습니다. 저는 오직 고향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며 최고의 힘만을 구할 뿐입니다. 더 이상 천인이나 인간·아수라 같은 생사를 윤회하

는 중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신구의를 늘 깨끗이 하고 계율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수행이 좋아지면 계율은 자연스레 지키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예전에 채식할 때 나는 파나 마늘을 먹었는데, 속가의 남편도 그걸 무척 좋아했으며 파나 마늘을 넣어야 음식 맛이 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는 ‘채식’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지요.

식료품 가게에 갈 때마다 파나 마늘을 잔뜩 샀습니다. 한번은 이탈리아에 갔을 때, 마늘을 한 접 사다가 현관 입구에 걸어 놓았는데 마치 귀신을 쫓는 모습 같았지요. (스승님 웃음) 서양에서는 마늘이 흡혈귀를 쫓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던 곳에 흡혈귀는 없었으나 마늘을 무척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걸어 둔 것이었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마늘을 먹으면 피가 맑아져 많은 병이 치료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는 마늘을 넣어야 음식 맛이 나고 넣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냄새조차 맡기 싫으니 어떻게 먹을 수 있었습니까? 예전에 나와 속가의 남편은 우리가 채식을 하니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더 깨끗한 수준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전에 나는 계란 냄새를 맡거나 사람들이 계란 먹는 것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엔 계란은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드물긴 했지만 먹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건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란을 먹다가 냄새가 지독하게 느껴져서 심하게

토한 후로는 계란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니다. 마치 등급이 좀 올라가 자연스레 계란을 놓아 버린 것 같았지요. 그때는 계란을 먹어선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닐 당시만 해도 적당한 채식 음식을 찾지 못할 때는 계란이라도 먹어서 단백질을 어느 정도 보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나는 계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니다. 겨우 몇 번 먹었는데 먹을 때도 아주 조금만 먹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자마자 곧 지독하게 썩은 냄새가 났거든요. (스승님이 토하는 흉내를 내시자 대중 웃음) 지금도 어떻게 사람들이 계란을 먹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냄새가 정말 지독했어요. 계란이 상해서 나는 냄새라기보다 마치 시체 썩는 냄새 같았지요. 그런 고약한 냄새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그때 먹자마자 곧바로 토한 후로 다시는 계란을 먹지 않았습니니다.

수행을 하고부터는 파나 마늘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나에겐 스승이 많았는데, 그중 한 분은 어울락 출신의 비구니 스님으로 지금도 음식에 파를 넣어 먹습니니다. 하지만 그 파는 프랑스산으로 보통 파와는 조금 다르지요. 전에는 그 스님이 만들어 준 요리를 무척 좋아했는데, 3년 전 독일에 갔을 때는 똑같은 요리였는데도 냄새를 맡자마자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아서 다른 곳에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드렸지요. 도저히 그 냄새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정말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야? 전에 이 요리를 좋아해서 만들어 준 건데.”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스님이

만들어 주신 음식은 좋아하지만 파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지요. 스님이 “정말 이상하군! 전에는 파를 잘 먹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까다로워졌지?”라고 해서 나는 “까다로워진 건 아닌데 냄새를 맡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네요.”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그 스님은 파를 넣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수행에는 정말 등급이 있으며, 계율 역시 진정 자연스레 변하는 겁니다. 수행이 좋아질수록 저절로 계율을 지키게 되지요. 그때는 계정혜를 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계율이나 선정·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계정혜입니다.

진정한 계정혜란 계정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아서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지요. 마치 하루에 몇 번을 해도 아무도 개의치 않는 호흡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손 씻고 세수하고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계정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할수록 좋아져서 관음법문을 수행한 다음에는 점점 더 민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요? 전에는 사람들과 섞여 있어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직장에 가도 가끔 사람들한테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은 동료수행자 한 명이 “저는 출가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냄새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불평했지만 나는 그의 출가를 허락하는 대신 “그런 건 출가할 명분이 못 됩니다. 출가하려면 마땅히 훌륭한 이상을 지켜야지, 고작 사람들 냄새나 피하려고 출가를 하다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끝내 참지 못하고 지금은 미아오리에 와서 새로운 일을 찾

았습니다. 출가하진 않았지만 나와 함께 아쉬람에서 살고 있지요. 내가 보기에 그는 아주 성실한 제자입니다.

확실히 외부 사람들에게서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도 그렇게 단호하게 인연을 끊었던 것이지요. 전엔 사람들과 십수 년을 함께 일해도 관찮았는데 수행을 오래 하자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관음법문을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레 세상이 우리를 놓아 버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놓게 될 테니 거기에 단단히 얽매일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므로 가끔 내가 엄하게 “왜 놓지 못하지요?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았나요?”라고 꾸짖더라도 마음 아파하거나 민감해지기보다는 반성해야 합니다. 스승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꾸준히 수행하기만 한다면 조만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명리나 돈,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즉 있으면 쓰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지요.

조금 전 한 동료수행자가 내게 비싼 로렉스 손목시계를 선물했습니다. 몇 백만 원짜리를 손목에 차고 다니라는 말이었는데, 난 내 손목에 차지 않고 그녀의 손목에다 채워 주었지요. 출가자가 그걸 차서 무엇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시계를 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 업을 왜 차겠어요? 그 시계를 차면 근지럽거나 할 테고, (대중 웃음) 목욕할 때도 조심해야 할 겁니다. 물이 들어가 고장이라도 날까 봐 신경써야 할 테니 번거롭기만 하겠지요. 그래서 나는 그 업을 재빨리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려주었지요.

그렇다고 내가 고마워하지 않거나 감동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몇 백만 원짜리 선물을 사 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처음엔 부인이 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이 산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이야 원래 그런 반짝거리는 물건을 사는 데 쓸데없이 돈을 잘 쓴다지만, 나중에 그녀의 남편이 샀다는 것을 알고선 무척 놀랐습니다. 그나마 부부 둘 다 나를 믿어서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부인은 질투가 나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중 웃음) 남편이 자기 부인 시계보다도 몇 십 배나 더 비싼 로렉스 시계를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선물했으니 어느 부인이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러나 그 부인도 수행이 좋아서 늘 화신 스승을 보았기 때문에 둘 다 아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비싼 시계를 차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뿐이지요. 보는 것도 귀찮은데 어떻게 매일 손에 차고 있겠어요? 근질거리고 불편하기만 할 겁니다. 그런 것으 소의 코에다 구멍을 뚫어 코뚜레를 씌우면 어디든 쉽게 끌고 갈 수 있듯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부를 맞이할 때 남편들이 온갖 금은 장신구를 보내서 신부를 ‘엮어맨’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더 심해서 발목에도 발찌를 채우지요.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어떤 사람은 손목에 열 개 이상이나 차고, 목에도 두세 개 걸고, 귀나 코도 뚫습니다. 인도에

가 보면 알겠지만 온몸에 작은 방울을 달아서 길을 걸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요. 코에 장신구를 채우면 끌고 가서 결혼하기가 제일 쉬울 겁니다. 어쩌면 옛날 남편들은 아내를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생각해 냈을지도 모릅니다. 코가 제일 민감한 부분이니 여기에 무언가를 걸면 잡아당기기가 쉬웠겠지요. 코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줄을 하나 달면 집으로 끌고 가기가 훨씬 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부인들은 남편 말을 잘 듣고 여태 이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혼하는 사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과의 영향 때문이지요. 전에는 이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인도의 부인들은 남편이 아무리 나쁘게 대해도 떠나는 법이 없었지요. 그들에게 남편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런데 포모사의 부인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대중 웃음) 남자 대중이 아직 많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이미 부인에게 매어 지내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에게 채식 요리도 해주지 않고 선칠이나 선삼·선사에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지요.

여러분은 이란(宜蘭)에 사는 한 동료수행자가 선칠 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사람 부인은 그를 선칠에 못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말다툼까지 하고 문밖에 세워 놓은 채 문을 잠가서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문밖에서 겨우 5분 정도 오불을 외웠는데 부인이 견디지 못하고 바로 문을 열어 주었다는군요. (대중 웃음)

그가 집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도 부인은 계속 바가지를 긁었지만 그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부인의 지혜안을 쳐다보면서 오불

만 외웠습니다. 그러자 부인의 마음이 가라앉아서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누운 지 얼마 안 되어 부인이 “좋아요! 선칠에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대중 웃음) 그러므로 여러분은 코걸이 같은 것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통제할 필요 없이 오불만 외우면 됩니다. (스승님 웃음) 오불은 코걸이보다도 더 강력하지요.

그런 장신구들은 자신을 얽어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만물이 생기기 전 아무것도 없던 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없었다기보다 만물은 원래 공췌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니 우리는 그런 무상함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졌고,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이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어느 날 홀연히 깨달을 때까지 오랫동안 수행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깨닫고 나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은 내 재산을 여러분에게 조금 보여 준 데 불과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것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만물은 모두 공이고, 업장 또한 원래 공이다.”라고 한 소리에 만족한 나머지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스승이 말하는 건 무엇이든 옳으니 스승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서 스승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구의의를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청정하게 할수록 재난은 줄어들고 병도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지옥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었으며 지옥도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입문 때도 말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지옥은 병원의 수술실과 같습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토록 고통스럽게 코나 목이나 몸에 튜브를 꽂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때로 환자를 보면 고통스럽지 않던가요? 병원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병을 앓으면서도 사람들은 뜻밖에도 잘 견뎌 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있기도 힘든 그곳에서 한두 달이나 한두 해를 있다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젓가락처럼 생긴 가느다란 튜브를 여기에서 저기까지 길게 꽂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곳의 병원은 아직 지옥 같진 않습니다. 지옥의 어떤 곳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이지요. 입문도 하지 않고서 내게 지옥에 데려가 보여 줄 수 없겠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됩니다. 지옥에 갔다 오면 당신 몸이 불편해지고 정신이 흐려질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정신이 완전히 흐려지고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충격을 받아 정신병을 앓을 수도 있으니 내게 지옥에 데려가 보여 달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지옥을 봐서 무엇 하려고요?”라고 물었습니다. (대중 웃음) 그러자 그는 “지옥이 대단히 무섭다고 하니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라고 대답했지요.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긴 합니다만

불보살이 되고 나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더라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야지요. 불보살이 되어 지옥에 가야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지, 아직 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간다면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모습을 지닌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도 혼이지만 그 모습이 대단히 무서울 정도라서 우린 그들을 귀신이나 마귀, 또는 괴물이라고 부르지요. 사실 그들은 원래 사람이었지만, 수행을 하지 않을 때 하루 종일 흉악한 일만 생각했던 탓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이 너무 흉악하다 보니 스스로 하나의 기운을 만들게 되고, 그런 기운이 한데 모여 영혼이 없는 신체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의 모습을 갖추고 나타나는 그 ‘상체’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신체들이 함께 붙어서 괴물로 변하기 때문에 귀신이나 마귀를 보면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녔던 무서운 생각으로 인해 귀신이나 마귀로 변하기도 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모습 그대로 변하기도 하며, 자기 살을 베어 흉측한 모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탈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여러 병든 신체들이 몸에 더덕더덕 붙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형외과’ 수술을 받는 거지요.

이 세상에도 그런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나의 속가 남편이 바로 그런 의사였는데, 그의 업무 가운데 하나가 성형이었지요. 성

형의 주된 목적이 미용은 아니었다 해도, 때로 사고 등으로 손상을 입은 피부에 다른 부위의 피부를 이식한다거나 사고로 다친 치아를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이리저리 손을 보기도 했으니, 이것 역시 미용과 관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는 더 좋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귀신이나 마귀는 정말 흉측하지요. 전혀 사람 같지 않아서 보고 나면 살맛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들의 끔찍한 얼굴이 그 정도까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갑자기 귀신을 본 사람들이 돌아가서 미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사람들이 그런 흉측한 모습을 보고선 견디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흉측하면서도 끔찍스러운 탓에 그런 기운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꼭 흉하게 생겨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이 무섭게 생긴 가면을 쓰고 나타나더라도 거기엔 무시무시한 기운이 없기 때문에 우린 보고 나서 그냥 웃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은 자신들의 낮은 등급과 관련이 있는 일종의 기운을 발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얼굴색은 우리와 달리 노란색이나 흰색이며, 때로는 검자주색이나 검푸른 색을 띠기도 하지요. 단순한 푸른색이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되었거나 물에 빠진 지 오래된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푸르죽죽한 그런 검푸른 색을 띠니다. 그들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고 내면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조차 무서운 것입니다. 심한 질병에 걸리면 피부색이 변하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정상적이지 못했다면 죽어서도 똑같이 그런 얼굴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말하겠는데, 고뇌하는 부처가 되지 말고 늘 웃으면서 낙관적으로 살도록 하세요. 억지로라도 낙관적으로 살다 보면 조만간 진짜로 낙관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스스로 부추기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에게 강요하겠습니까? 자신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10장

수행 진보의 비결

10장

수행 진보의 비결

1988. 10. 29. 포모사 미아오리 시후 아쉬람

왜 어떤 사람은 수행의 진보가 매우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린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대중: 예. 열렬한 박수) 밀라레빠 존자의 이야기를 압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겠습니다.

밀라레빠는 부친을 여윈 후 모든 재산을 그의 백부와 고모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부인과 아들을 돌봐 달라며 재산을 맡겼는데, 밀라레빠의 친척은 그들을 돌봐 주기는커녕 일꾼처럼 부리며 고생을 시켰습니다. 밀라레빠와 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며, 옷이나 먹을 것이 부족한 데다 일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훗날 밀라레빠의 어머니는 그에게 흑신통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밀라레빠는 흑신통을 이용하여 백부의 가족 30여 명을 죽였는데, 이 업장으로 인해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을 죽인 후 그는

후회하며 매우 두려워했지요. 그에게 흑신통을 가르쳐 준 스승 역시 “빨리 깨달은 스승을 찾아야 네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네가 스승을 찾게 되면 와서 나를 구해 다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흑신통으로 사람을 죽인 업장은 아주 무겁단다.”라고 말했습니다.

밀라레빠는 이 말을 듣고서 큰스승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다 큰스승을 찾았지만 그 스승은 밀라레빠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녹초가 될 때까지 매일 힘든 일만 시켰습니다. 때로는 스승이 아주 큰 돌을 산 위에 옮겨 놓으라고 해서 옮겨 놓으면 “안 되겠다. 다시 원래대로 옮겨 놓아라.”라고 했지요. 나중에 그가 다 옮기고 나면 또다시 원래대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또 집을 지으라고 한 후 허물라고 했다가 허물고 나면 다시 지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를 7년이 넘게 시험하고 나서야 그에게 수행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신실함만 있으면 큰스승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입문한 것과 같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밀라레빠는 그의 스승과 함께 살면서 매일 힘든 일을 했는데도 왜 7년여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까요? 게다가 그의 스승이 그에게 정식으로 법을 전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은 업장이 너무도 깊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업장이든 우리가 참회하기만 하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밀라레빠는 왜 참회를 했는데도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업장을 깨끗이 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쩌면 그가 진정으로 참회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설령 우리가 참회했다 할지라도 업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참회하는 정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신이 철저히 참회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밀라레빠는 스승을 속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스승이 일을 시키면 그는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으로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서 지금은 또다시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 스승님은 왜 그리 변덕이 심하십니까?”

그는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승과 논쟁했습니다. 그는 스승이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골치를 앓았는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스승이 자신에 대한 동정심은 접어 두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업장을 깨끗이 씻도록 도와주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알겠지요? 그가 진정으로 참회했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스승의 고충을 알고서 “내 업장이 너무나 무겁구나. 지금 내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업장을 깨끗이 닦기에는 아직 부족하구나. 나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보다는 덜 고통스럽겠지.”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야 옳았지요.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스승님은 왜 나에게 법을 전해 주지 않으실까? 내가 그렇게 잘해 드렸는데도 스승님은 왜 나에게 잘 대해 주지 않으실까?” 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스승을 속일 생각을 하고는 스승의 부인을 통해, 사형을 통해 법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사형을 속여 “스승님이 사형 더러 제게 법을 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에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스승이 ‘나’에게 잘 대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생한 사람들은 마음이 매우 차가워 살생을 한 뒤에는 그 업장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차가워야 그렇게 많은 생명을 죽일 수 있겠지요. 냉정冷情한 사람들은 진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들 옆에 존재하는 일종의 차가운 기운이 서로를 끌어당기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매우 차갑다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주위로 끌어들이 수 없는 탓에 수행이 그렇게 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려운 것은 스승의 말을 완전히 따르고, 스승의 지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승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은 설사 겉으로는 갈등하지 않는다 해도 내면으로는 갈등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스승님은 매일같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내 생각엔 그게 아니야. 그런데도 스승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혹은 ‘스승님은 여성인 데다 젊고 비전문가인데 그런 일들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할 거고 마음속으로는 늘 갈등할 겁니다. 그래서 진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어린아이로 되돌아갈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천진할 수 없으니까요.

성경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도 “우리가 어린아이로 되돌아가야 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표현은 달랐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살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낙태에 관해 말하겠습니다. 설령 국가의 법률이 허락한다 하더라도 낙태하는 사람들은 정말 냉정한 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냉정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나쁘게 대하고 공격하려거나 해치려고 한다면 우리도 화가 나서 막무가내로 그를 죽이거나 해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당시 화가 났던 탓에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도 없고 죄도 없는 아기를 그렇게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 든다는 것은 우리가 구제불능이며 너무나 냉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계율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차가운 마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차갑다고 그것을 끝까지 차갑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차가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차가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장은 그렇게 차갑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느리고, 냉담하고, 정말로 방해가 되며, 장애가 되는 기운을 많이 끌어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성질의 것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성질이 같은 것은 서로 한곳으로 끌어당기지요.

우리가 그러한 업장들을 지어 놓고 참회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관념들은 모두 우리의 자장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면 거두어들일

방법이 없으며, 조만간 그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업장을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거의 묵은 업장은 스승이 깨끗이 씻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새로 짓는 업장은 여러분 스스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는 것은 과거 무지 상태에서 지은 업장과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계율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생이든 죽였거나 누군가를 해치려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좋지 못한 생각은 조만간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잘못이 좀 나아지도록 보상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 살생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구한다거나, 전에 어린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다른 아이를 데려다 기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참회할 수는 없으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참회를 하든 죄책감은 반드시 남아 있게 마련입니다. 이 죄책감이 우리의 자장에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는 자기 내면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업장이며,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 마음 놓고 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자장이 우리 자신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천당에 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질의 것이 서로를 끌어당기니까요.

왜 선량하거나 단순한 사람들이 수행의 진보가 빠를까요? 그런 어수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논쟁할 줄도, 어떻게 변론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보가 매우 빠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아서 완전히 스승을 믿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지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보는 매우 빠릅니다. 겉모습은 그리 대단치 않아 보여도 스승을 가장 좋아하고, 스승을 가장 믿으며, 스승을 가장 사랑하지요. 스승의 말이라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며, 안으로도 의심하지 않고 겉으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보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착합니다. 스승을 매우 존경하는 것 같지만 좀 있다 그와 몇 마디 나눠 보면 예고가 무척 크고, 스승에 대해서도 결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때로는 그 자신이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되면 누가 진정으로 스승의 교리를 이해하고 있고, 누가 진정으로 스승을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고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보가 빠르거나 느린 것이 완전히 스승 한 사람에게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승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반응이 어떠한 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과 반응만큼 여러분은 진보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진보하는 비결을 알려 주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 주지 마십시오. (대중 웃으며 박수)

우리의 수행이 진보하느냐 진보하지 않느냐는 마음이 단순하냐 단순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매우 단순해지기를 원하지만 단순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그러한

냉담한 입장을 지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왔어도 이 냉담한 벽이 앞을 가려 스승을 완전히 믿을 수도, 우리의 신구의를 완전히 공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행도 매우 힘들게 합니다. 매일 네다섯 시간을 명상해서 보기에는 매우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으며 여전히 명리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할지도 모르지요. 아직도 이 세상을 생각하고, 머무르고 싶어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그들이 다시 한 번 와서 다른 스승을 찾아 배우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진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생에 이미 관음법문을 수행한 적이 있지만 반 정도만 수행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졌거나 진실한 마음이 충분치 않아 스승을 의심했던 까닭에 다시 와야만 했던 동료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준 그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가 말하기를 입문하고 돌아간 후 매일매일 아주 성심껏 스승에게 도와 달라고 기도하고 스승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로 스승을 굳게 믿었더니 겨우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진보가 아주 빨리 명상할 때 가장 빛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에 따르던 스승이 수행 중에 양신陽神이나 음신陰神이 나오게 되면 마장에 걸리게 된다고 말한 것이 생각났던 탓에 결국엔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로 인해 그는 나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수행 방법이 옳지 않다고 의심하는 바람에 결국 등급이 떨어져 지금까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올라가지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마장은 우리에게 아주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법문을 배워,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진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많을수록 지혜는 적어지지요. 그래서 어리석고 단순한 사람이 비교적 빨리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보한 후에도 다시 퇴보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여러분을 아주 대단하다고 여기도록 만든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끝장이며, 등급이 바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을 입 밖에 내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겁니다. 얘기하고 나선 교만심이 이는 걸 피하기란 매우 어려울 테니까요. 사람들이 모두 와서 찬탄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체험이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되어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지지요.

스승의 힘에 완전히 굴복하고 100퍼센트 스승을 믿는다면 아주 빠르게 진보할 겁니다. 여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정말 드문 경우지만 만일 있다면 매우 빨리 진보할 겁니다. 매번 스승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설법을 들으러 오는 사람, 주말마다 아쉬람에 와서 텐트를 치고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꼭 진정으로 스승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믿지 않는 것이 미안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요. 이를테면 스승을 보러 가지 않는 것이 미안한

테다 집에 있어 봐야 심심하기만 할 테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거기 가 버릴 텐데 혼자서만 집에 있자니 재미도 없고 해서 재빨리 따라나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용하긴 합니다. 이곳에 와서 한두 마디 듣는 걸로 깨달을 수도 있고, 서서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체명상이 매우 유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혼자뿐이라면 수행하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선지식이나 친구·동료수행자가 없다면 때로는 신심이 퇴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업장이 매우 무겁다는 건 모르고 아무리 수행해도 체힘이 없고 진보가 없다고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고대의 스승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을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엔 나의 오디오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가 있는데 나를 믿기 어려워하는데 예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전에는 스승을 겨우 한두 번 보고 설법을 두세 번 들었을 뿐, 스승이 얘기한 것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할 수도 없었고, 기록한다 해도 엉터리로 하는 게 예사여서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글자를 모두 틀리게 써 놓고 돌아가서 대충대충 보다 보니 자신의 믿음을 고양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공개적으로 법을 전할 때 5천 명이 그의 법회를 떠났던 것이지요. 그가 얘기한 것이 최고의 법문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자신들은 이미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더 배워야 할 최고의 법문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엔 재가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비구

나 비구니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진리를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해 내려온 풍속들이 우리를 너무나 옳아매고 있으니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상황을 십수 년 보아 온 데다 이미 이에 익숙해져 버려 이제 스승을 만났는데도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 나를 떠나지 않은 것만도 나는 아주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비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설사 열떨결에 남편이나 아내를 따라와서 입문을 했다 쳐도 매우 훌륭합니다. 천천히 더 많이 수행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수행하다 보면 결과가 있을 겁니다.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태양이 내리쬐건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물을 주면, 설령 물을 주다 말다 하면서 건성으로 돌본다 해도 그것은 자랄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죽을 때 딱 알맞게 자라 그때서나마 조금쯤 이해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부터 매일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입문 전에 나를 단지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연을 한 번 듣고는 바로 입문했고, 어떤 사람은 책을 한 권 보고서 입문하러 왔습니다. 오디오테이프를 듣거나 인쇄물 한 부만 보고서 입문한 사람도 있지요. 예전대 우리 출가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 '미타찬의 진의'라는 인쇄물을 가지고 돌아와 보여 준 걸 보고 곧바로 입문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오디오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는커녕 출판된 책도 없었습니다. 얇디얇은 인쇄물 한두 부 정도가 전부였지요.

또 다른 동료수행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하는 한두 마디 말만 듣고서 곧바로 입문하러 왔습니다. 포모사에 있는 그 많은 법사들을 제쳐 두고 나를 선택했던 것이지요. 그 사람 역시 일찍이 여러 곳을 다녀 보았기 때문에 법사란 법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자주 그를 데리고 다니며 많은 법사들을 만나게 해주었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은 그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 도덕적인 관념을 심어 줄 생각으로 그를 데리고 여러 법사들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배울 만한 사람이 없었던 탓에 그는 돌아와서는 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만나고 나서 그는 부인에게 “드디어 찾았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찾았다면서 왜 날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라며 그를 나무랐지요. 두 사람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치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니깐요. 그래서 나를 만나 지금까지 항상 따라다니며, 믿음이 동요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나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지요. 그때는 아직 인쇄물도 내지 않았던 때라 그는 나의 강연을 딱 한 번만 들었을 뿐입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그는 시종일관 웃기만 했는데, 당시 나는 그를 보고 ‘저 사람은 왜 계속 웃기만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더니 부인까지 데리고 와서 입문을 시켰지요.

인연이 매우 깊은 까닭에 스승을 아주 오랫동안 따르고 깊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오디오테이프를 듣고서도 스승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

니, 정말이지 등급의 차이란 게 확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연을 들으러 가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명확히 강연을 했는데도 마지막 질문하는 순서에서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해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나에게 다른 사람과 어떤 식으로 싸워야 하고 천주교에 대해서는 맹세코 죽어도 복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심이 있어야만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강연할 때 여러분은 한쪽에 앉아 아주 똑똑히 듣지만 귀담아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귀가 먼 사람처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지요. 여러분도 간혹 돌아가서 테이프를 다시 듣고 문득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천천히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테이프가 많은 걸 보면 이 시대도 괜찮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내가 너무 빨리 이야기했거나 여러분이 나의 눈을 보고 취해 버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면 돌아가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빠르게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여러분에게 재촉할 수 없고 옆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스승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성심껏 참회할 수 없다 해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따를 겁니다. 밀라레빠처럼 말이지요. 비록 그는 머리가 그토록 굳은 데다 마음까지도 차가웠지만 7년이 지나서는

그래도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보다 느릴지도 모르겠지만 길어 봤자 10년이지요. 우리는 자신에게 시간을 줄 수 있으니 천천히 하는 겁니다. 설령 20년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영원히 없는 것보다는 나를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진보가 느린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나를 따라 배운 이상 계속 배워 나가십시오. 다른 법문을 찾아간다 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만일 수행이 좋지 않아 다시 환생하여 아미타불을 외우게 된다면 너무 무료할 겁니다. 아침저녁으로 경전을 암송하는 것 역시 별게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하는 것도 괜찮지만 끝나고 나면 명상을 해야 합니다. 또 정말로 나무부처에게 절을 하고 싶다면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는 반드시 명상을 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런 형식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하려면 초등학교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하니깐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쓸모없는 거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매우 쓸모가 있겠지요. 가령 고무젓꼭지 같은 것은 어린아이나 갓난아기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이니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쓸모없다는 것은 우리처럼 다 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만일 독경이나 절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일 고무젓꼭지가 필요치 않다면 왜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났을 때 고무젓꼭지를 밀어넣으면 조용해질까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고무젓꼭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자랐기 때문에 고무젓꼭지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뿐이지요. 자라서도 고무젓꼭지를 빼는 것은 정말 꼴불견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더러 나무부처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면적 형식에서 되도록 빨리 벗어나야 진보도 빠릅니다. 만일 정말로 놓아 버릴 수 없다면 절을 하는 한편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상은 하지 않고 모든 시간을 절하는 데만 다 써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이제 대학에 들어왔으니 대학 공부에 힘쓰고 초등학교에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명상하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명상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답입니다. 내 책이 한두 권뿐이긴 하지만 많이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그 안의 완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많이 보면 볼수록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이해하게 되며, 새로운 것을 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관음법문 입문과 5계

【관음법문 입문】

칭하이 스승은 진리를 구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관음법문에 입문시킵니다. 한자로 ‘관음觀音’은 소리의 진동을 관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문은 내면의 빛에 대한 명상과 내면의 소리에 대한 명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면의 체험은 고대로부터 세계의 모든 종교 경전에 반복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니라(요한복음 1장 1절).”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면의 소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로고스Logos·샤브드Shabd·도道·음류音流·나암Naam, 또는 천국의 음악으로 불려 왔습니다. 칭하이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내면에 진동하고 있으며,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선율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갈망을 실현시키며, 모든 세속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강력하며,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소리와 만나면 우리의 가슴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줍니다. 이 소리를 들은 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보다 올바른 모습으로 상당히 바뀝니다.”

내면의 빛, 즉 신의 빛은 ‘깨달음(enlightenment)’이라는 말에 언급된 것과 같은 빛입니다. 이 빛의 강도는 희미한 빛에서부터 수백만 개의 태양빛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내면의 빛과 소리를 통해 우리는 신을 알게 됩니다.

관음법문 입문은 밀교적인 의식이나 새로운 종교를 갖는 의식이 아닙니다. 입문 중에는 내면의 빛과 내면의 소리를 명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으며, 칭하이 스승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법을 전합니다. 침묵 속에서 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칭하이 스승의 육신이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심전심의 전수야말로 이 법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스승의 가피가 없다면 명상법 자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문할 때 즉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빛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돈오頓悟’ 또는 ‘즉각개오(卽刻開悟)’라고 하기도 합니다.

칭하이 스승은 어떤 배경이나 종교에 구애됨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입문시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현재의 종교나 신앙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 어떤 단체에 가입하라거나 참여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비건 채식을 해야만 합니다. 평생 동안 비건 채식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입문의 필수 조건입니다.

입문은 무료로 행해집니다.

관음법문으로 매일 명상하고 5계를 지키는 것이 입문 후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계율은 여러분이 자신과 다른 모든 중생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첫 깨달음의 체험을 더 깊고 강력하게 해주며, 마침내 여러분 스스로 깨달음의 최고 경지, 또는 성불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매일 수행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잊게 되어 평범한 의식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칭하이 스승의 목표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님은 어떤 장치나 버팀목 없이 누구나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스승님은 추종자나 숭배자, 제자들을 구한다든지 회비를 걷는 단체를 설립하든지 하지 않습니다. 스승님은 여러분의 돈이나 선물 또는 큰절을 받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이런 것을 공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님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신실함과 여러분 스스로 성인聖人으로 진보하기 위한 명상 수행만을 받아들입니다.

[5계]

1.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해치지 마라.¹⁾
2.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마라.
3.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마라.
4. 성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마라.
5. 중독 물질을 취하지 마라.²⁾

1) 이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육류·유제품·어류·가금류·계란(유정란이나 무정란 모두)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2) 이에는 술·마약·담배·도박·음란물, 그리고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화나 서적, 비디오 게임과 같은 모든 종류의 독극물이 포함됩니다.

간행물 안내

책

즉각 깨닫는 열쇠

독일어(1-2), 몽골어(1, 6), 스웨덴어(1), 스페인어(1-3), 어울락어(1-15), 영어(1-5), 인도네시아어(1-5), 일본어(1-4), 중국어(1-10), 태국어(1-6), 티베트어(1), 포르투갈어(1-2), 폴란드어(1-2), 프랑스어(1-2), 핀란드어(1), 한국어(1-11), 헝가리어(1).

즉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독일어(1), 러시아어(1), 불가리아어(1), 어울락어(1-4), 영어(1-2), 인도네시아어(1-3), 일본어(1), 중국어(1-3), 체코어(1), 포르투갈어(1), 폴란드어(1), 프랑스어(1), 한국어(1-4), 헝가리어(1).

1992년 선철 특별판

어울락어, 영어.

1993년 세계 순회강연집 특별판

영어(1-6), 중국어(1-6).

사제시간의 편지

스페인어(1), 어울락어(1-2), 영어(1), 중국어(1-3).

신기한 감응

어울락어(1-2), 중국어(1-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한국어.

삶을 다채롭게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칭하이 무상사의 지혜 만화집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후광이 너무 꼭 꺼요!—칭하이 무상사의 깨달음이 담긴 유머집

영어/중국어.

쉽게 수행하는 비결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평화의 길

영어, 중국어.

신과 인류의 이야기—성경 이야기를 통한 고찰

영어, 중국어.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영어, 중국어.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체코어, 터키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한국어, 헝가리어.

감로범어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포르투갈어, 영어/일본어, 영어/중국어, 영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무상 주방(1)—전세계 채식 요리

어울락어, 영어/중국어, 일본어.

무상 주방(2)—가정식

영어/중국어.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어울락어/영어/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예술 창작집

영어, 중국어.

S.M. 천의집

영어/중국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깨들(1, 2)

독일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한국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고귀한 아생

독일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천상의 예술

영어, 중국어.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아네즈 드르노프세크 박사의 저서)

중국어.

위기에서 평화로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태국어, 한국어, 헝가리어, 텔루구어.

<http://www.crisis2peace.org>

시 작품집

침묵의 눈물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 어울락어/영어/중국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한국어.

무자시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얽어버린 기억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조약돌과 황금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나비의 꿈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전생의 발자취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그 옛날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천년의 사랑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뮤지컬 진정한 사랑 영어.

뮤지컬 진정한 사랑 DVD.

전생의 발자취 (어울락어 시 낭송): 오디오테이프 & CD 1, 2, 3. DVD 1, 2(19개 언어 자막).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오디오테이프 & CD 1, 2, 3.

지난날과 지금 (어울락어 시 낭송): CD.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어울락어 시 낭송): CD.

황기로운 손길 (유명 가수들이 어울락어로 부른 노래 공연): CD.

한밤의 꿈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 DVD.

시간의 그늘(시공을 초월하여)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 DVD.

사랑으로 보살피주세요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칭하이 무상사 창작 가곡 모음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노래 공연): CD & DVD.

사랑의 노래 (어울락어, 영어 노래 공연): DVD.

황금 연꽃 (어울락어 시 낭송): CD & DVD.

보석 시집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CD 1, 2 & DVD 1, 2.

고대의 사랑 (어울락어 시 낭송): CD & DVD.

조국 사랑 (어울락어 시 낭송): DVD.

잘 자라. 아가야 (영어 노래 공연): CD.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음악·콘서트가 담긴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MP3, CD, DVD는 다음 언어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광둥어, 그리스어, 네덜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즈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줄루어, 중국어 간체·번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태국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필리핀어, 한국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등. 우리 서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칭하이 무상사의 최신 출판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의 출판물 온라인 주문

<http://www.theCelestialShop.com>

<http://www.EdenRules.com>

무료 견본책자 다운로드 사이트(80개 언어)

<http://sb.godsdirectcontact.net>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미국)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오스트리아)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sb>

주요 연락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P.O.Box 9, Hsihu, Miaoli Hsien, Formosa, Republic of China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kr>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온라인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http://www.EdenRules.com> (영어, 중국어)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2226-1345/ 팩스: 886-2-2226-1344

<http://www.sm-cj.com>

러빙푸드 온라인 쇼핑몰

<http://www.lovingfood.com.tw>

러빙훿 인터내셔널

전화: 886-3-468-3345

팩스: 886-3-468-1581

이메일: service@lovinghut.com

<http://www.lovinghut.com/tw>

포모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82-54-535-9251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

전화: 82-54-532-5821/ 팩스: 82-54-532-5822

(해피요기·SM 보석·천의·만세등·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로드하거나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는 열쇠 제9권

펴낸곳: SM출판사

주소: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음3길 205번지

전화: (054) 535-9251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출판 신고: 제511-5110000251002006000002호 2006년 3월 7일

이 책의 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출판사의 사전 허락을 얻으면 이 출판물의 내용을 복제해도 좋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과거 구도의 힘든 과정에서 완전히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과 진정한 법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참스승들에 의해 전해 내려온 이 법문은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를 일깨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문을 수행하여 대단히 큰 이로움을 얻은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일세해탈-世解脫을 갈망하는 많은 구도자들을 돕고자 스승이신 칭하이 무상사(The Supreme Master Ching Hai)가 세계 각지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은 생명, 삶과 죽음, 수행과 진리 등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